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建築學碩士 學位論文

1인 노인가구의 대안적 주거로서의 노인 공유주택 거주 후 평가

-서울 공공 '노인의 집' 및 '보린두레주택'의 여성노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Post-Occupancy Evaluation of Senior Share House as an Alternative Housing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Female Elderly in 'Senior Share Home' and 'Borine Share House' in Seoul-

2019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황 성 민

1인 노인가구의 대안적 주거로서의 노인 공유주택 거주 후 평가

-서울 공공 '노인의 집' 및 '보린두레주택'의 여성노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Post-Occupancy Evaluation of Senior Share House as an Alternative Housing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Female Elderly in 'Senior Share Home' and 'Borine Share House' in Seoul-

지도교수 이선영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황 성 민

Collection @ uos

황성민의 건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소 라 인

심 사 위 원 윤 정 원 인

심 사 위 원 이 선 영 인

2018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uos

국 문 초 록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고령사회와 가족의 해체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이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1인 노인가구 수의 증가이다. 2017년 65세 이상 1인노인가구의 비율은 전체 노인가구의 24.4%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1인노인가구의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노인가구는 일반 노인들보다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1인 노인가구에게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의 서로가 소통을 유지하고, 집값의 부담이 없는 형태,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셰어하우스 같은 대안적인 주거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린주택, 노인의 집, 구름정원사람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농촌) 등 셰어하우스와 유사한 공유주택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공유주택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 공유주택을 보급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노인주거의 대안적인 주거유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1인 노인가구에게 있어, 하나의 중요한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공유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내에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하여, 향후 노인 공유주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 공유주택'은 비 혈연관계로 1인 노인가구가

Collection @ uos

두 세대 이상이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개인공간과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조사대상은 공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노인공유주택 중, 접근이 가능한 '노인의 집', '보린두레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농촌)'이며, 총 12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노인 공유주택에서 거주자의 거주경험을 조사하여 노인 공유주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조사방법은 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현장 서베이 형식의 거주 후 평가(POE)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 공유주택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인 개인생활방식이나 신체적 수준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한 순차적 입주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갈등은 잠자리공간, 식사공간, 세탁공간, 목욕 및 화장실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간사용의 문제와 커뮤니티의식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나타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입주 전 거주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생활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원하는 거주형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주 전 거주자들의 성향과 생활방식 등의 사전조사를 하여 입주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실, 식당 겸 주방, 화장실 2개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거주 후 평가(POE) 결과, 공통적으로 Safety(안전), Flexibility(가변성), Amenity(편의성), Community(소통과 공유)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공간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주거 내에서의 거주자 안전을 위한 계획이 필수적이고, 라이프스타

Collection @ uos

일과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의 구성과 거실과 주방, 세탁공간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모든 거주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 활성을 위해 공유주택에서의 커뮤니티 유도할 프로그램 및 규칙이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 공유주택에서의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수 커뮤니티 시설의 방향을 제안하여,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 특히,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취사, 공동세탁, 공동목욕, 공동휴식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의 계획방향을 제안하고, 필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주자 간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공동생활 거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 공유주택에서의 거주자들은 같은 세대보다, 다양한 세대의 만남을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경로당 대신,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의 설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공유주택의 이론적인 계획에 따른 현재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부합여부와 공간의 사용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거주자 대상 인터뷰 분석 후,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 공유주택을 계획하는데 있어, 기존의 이론적인 자료를 넘어 거주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의 설치와 이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

Keyword : 1인 노인가구, 여성 1인 노인가구, 여성노인을 위한 주택, 노인 공유주택, 거주 후 평가, 지원주택

Collection @ uos

建築學碩士 學位論文

1인 노인가구의 대안적 주거로서의 노인 공유주택 거주 후 평가

-서울 공공 '노인의 집' 및 '보린두레주택'의 여성노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Post-Occupancy Evaluation of Senior Share House as an Alternative Housing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Female Elderly in 'Senior Share Home' and 'Borine Share House' in Seoul-

2019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황 성 민

Collection @ uos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기존연구의 한계 ····· 4

제3절 연구진행 및 구성 ····· 6

제2장 이론적 고찰 ····· 8

제1절 1인 노인가구의 특성 ····· 8

1. 1인 노인가구의 특성 및 문제점 ····· 8

2. 1인 노인가구 주거의 특성 ····· 11

제2절 노인 공유주택의 정의 ····· 14

1. 노인 공유주택의 개념 및 유사용어 정리 ····· 14

2. 노인 주택의 법규상 정의 ····· 16

제3절 국내·외 노인 공유주택 공간분석 ····· 19

1. 문헌조사를 통한 국내 노인 공유주택 분석 ····· 19

2. 국외 노인 공유주택 공간 문헌분석 ····· 21

3. 국내·외 사례비교 ····· 25

Collection @ uos

제3장 국내 노인 공유주택 조사대상 분석 ····· 27

제1절 국내 노인 공유주택 ····· 27

1. 국내 노인 공유주택 현황 ····· 27

2. 국내 노인 공유주택의 지원 및 운영 ····· 29

제2절 국내 공공 노인 공유주택 조사대상 현황 ····· 31

1. 조사 범위 및 방법 ····· 31

2. 조사대상 ····· 37

3. 공공 노인 공유주택 사례 종합분석 ····· 73

제4장 국내 공공 노인 공유주택 사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77

제1절 화장실 및 욕실공간 ····· 77

제2절 주방 및 식사공간 ····· 80

제3절 세탁공간 ····· 82

제4절 노인 커뮤니티 공간 ····· 84

제5장 결론 ····· 86

참 고 문 헌 ····· 90

부 록 ····· 93

ABSTRACT ····· 159

Collection @ uos

표 목 차

<표 2-1> 노인 가구유형별 현재 걱정 및 고민사항 ····· 9
<표 2-2> 노인의 지출 비율 ····· 10
<표 2-3> 노인의 고독사 이유 ····· 10
<표 2-4> 노인의 주거유형 ····· 11
<표 2-5> 노인의 거주형태 ····· 12
<표 2-6> 노인의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 ····· 13
<표 2-7> 해외 공유주택 유형 ····· 14
<표 2-8> 공유주택 유사용어정리 ····· 15
<표 2-9> 노인주거복지시설 ····· 17
<표 2-10> 선행연구의 노인공유주택 계획요소 ····· 20
<표 2-11> 일본 노인 공유주택 유형 ····· 21
<표 2-12> 영국 보호주택 특징 ····· 22
<표 2-13> 스웨덴 노인 공유주택 유형 ····· 24
<표 2-14> 국외사례의 노인공유주택 공간요소 ····· 26
<표 3-1> 서울시 공동체주택 유형별 ····· 29
<표 3-2> 노인 공유주택 유형 ····· 30
<표 3-3> 조사대상 사례 노인공유주택 건축 개요 ····· 32
<표 3-4> 인터뷰 대상자 ····· 33
<표 3-5> 노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계획 시 고려사항 ····· 35
<표 3-6> 인터뷰 구성 내용 ····· 36
<표 3-7> 국내 사례 노인공유주택 공간구성 ····· 37
<표 3-8>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A ····· 39
<표 3-9>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B ····· 43

Collection @ uos

<표 3-10>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C ····· 46
<표 3-11>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D ····· 49
<표 3-12>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E ····· 52
<표 3-13>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F ····· 55
<표 3-14>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G ····· 58
<표 3-15> '노인의 집'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 61
<표 3-16>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보린두레주택 ····· 63
<표 3-17> '보린두레주택'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 67
<표 3-18>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 69
<표 3-19>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 72
<표 3-20> 국내 공유주택 사례 ····· 73
<표 3-21> 공공 국내 공유주택 사례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 7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 7
<그림 4-1> 조사대상 화장실 사용현황 ····· 78
<그림 4-2> 조사대상 주방 사용현황 ····· 71
<그림 4-3> 조사대상 세탁공간 사용현황 ····· 82

Collection @ uos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증가와 가족의 해체로 인한 독신 등 사회 변화로 인구 및 가족구조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이다. 2005년 이전에 가장 주된 유형은 4인 가구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통계청 자료 중 『2017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전체 1인 가구는 약 560만 명에 이르렀고 비율은 28.6%이며, 70대 이상은 18.0%, 30대는 17.2%, 20대는 17.1% 순으로 나타난다. 1인 가구 연령계층별의 기준으로 60대(14.3%)와 70대(18%)의 비율을 합하면 20-30대의 청년 비율과 비슷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1인가구의 문제가 청년의 문제가 아닌 고령자의 문제로도 나타난다. 특히,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의 비율은 2017년에 전체 노인가구의 24.4%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1인 노인가구의 비율은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인구 통계를 볼 때, 1인 노인가구는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노인가구는 일반 노인들보다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임대료가 저렴한 지하 및 반 지하와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택 수요가 많아진 만큼 노인들을 위한 많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노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Collection @ uos

다양한 타입의 주거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거유형은 원룸형으로 구성되어있고, 일반 거주자들은 노인 거주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 노인의 주거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노인을 위한 주택을 살펴보면 물량은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저하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노인들은 이웃 간의 교류를 원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화된 주거생활로 이웃 간의 교류를 찾기에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 및 거주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보완할 방안과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은 자가 소유 주택, 임대주택 및 생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실버타운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택 유형들은 가족단위 혹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유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주거유형에서 거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가구에게 현재 주거유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1인 노인가구에게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의 서로가 소통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셰어하우스 같은 대안적인 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해외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다양한 공동체형 노인대안주거가 개발되어왔다. 해외 노인 대안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셰어하우스와 유사한 개념의 그룹 리빙, 그룹 홈, 코하우징, 콜릭티브 하우스, 다인거주 주택과 같은 1인 노인가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노인 대안주거시설로서 보린주택, 노인의 집, 구름정원 사람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농촌) 등 셰어

Collection @ uos

하우스와 유사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1]이 도입되어왔다. 이와 같이 1인 노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초기단계로 여전히 일반화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유형으로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는 공공에서보다는 민간에서의 노인 공유주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공공에서도 노인을 위한 공유주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인 공유주택은 가장 수요가 많은 노인주거의 대안주거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임대형 공유주택을 적극 보급하여 바람직한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1인 노인가구에게 있어, 하나의 중요한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공유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내에 이미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하여, 향후 노인 공유주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의 공유주택과 유사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주택의 거주상태와 공간 요소를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갖춰야할 필수적인 물리적 공간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 공유주택이 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가기 전 단계 중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간주하고자 하며, 이후, 노인 공유주택이 활성화 될 시 민간과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공유주택이 노인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셰어하우스' 또는 '쉐어하우스'라고 불리고 있는 단어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말 다듬기 위원회를 통해 외래어인 셰어하우스를 우리말로 '공유주택'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셰어하우스가 아닌 공유주택으로 통일하여 명칭하며, 선행연구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Collection @ uos

제 2절 기존연구의 한계

본 절에서는 노인 공유주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연구들의 방향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노인 공유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외사례에 집중했으며, 노인 공유주택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들로 구성되어있다. 주요연구들을 보면,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연구'[2]에서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니어 셰어하우스에 대한 국내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셰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시니어 쉐어하우스 공간배치 및 면적연구'[3]에서는 일본 시니어 셰어하우스 사례를 분석하고 공간의 배치 및 면적의 규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1인 노인가구에 주거대안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간계획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의 공동생활의 다양한 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테마형 쉐어하우스에 관한 연구'[4]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주거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유주거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과 공유주거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제안'[5]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가

2) 염혜실, 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3) 주현진·문정민, 2015, 일본의 시니어 쉐어하우스 공간배치 및 면적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2), pp.13-20
4) 나성은, 2017, 사회적 약자를 위한 테마형 쉐어하우스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5) 남희경, 2013,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uos

구를 위한 공동생활 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안하며, 노인용 공공임대주택 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주거 도입방안 연구'[6]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일부를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도입하여 노인에게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고령친화단지로의 리모델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노인 셰어하우스의 필요성과 일본사례중심 연구, 공동생활 주거형 변화 및 방향제시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심층적인 분석의 경우에는 1인 노인가구의 인터뷰와 해외사례의 노인 공유주택 거주자의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위해 국내의 노인 공유주택과 유사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론적인 공간을 넘어 실생활차원의 필요공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좀 더 질 높은 노인 공유주택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 김효정·한균·권순정, 2013,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주거 도입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uos

제 3절 연구진행 및 구성

본 연구는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노인 공유주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헌고찰과 웹자료 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 공유주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질적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노인 공유주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 웹자료 및 통계청 자료를 통해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 노인 공유주택의 개념 및 노인주택 및 시설의 법규와 사례를 통해 노인 공유주택의 공간구성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정책보고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 노인 공유주택의 현황과 지원 및 운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 공유주택의 공간구성을 분석하고, 노인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노인 공유주택의 사용실태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내용을 분석 후, 세 개의 사례중심으로 비교하여 문제되는 공간 사용실태를 분석 후, 개선된 방향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분석한 노인 공유주택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된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Collection @ uos

<table>
<tr><td rowspan="2">서론</td><td>연구 배경 및 목적</td><td>기존연구한계와 진행 및 구성</td></tr>
<tr><td>· 1인 노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공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입장에 기초하여 노인 공유주택이 현 상황보다 개선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td><td>·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노인공유주택의 거주자 인터뷰 미흡
· 국내 공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대상
· 노인 공유주택의 사용실태 조사와 인터뷰 및 설문조사</td></tr>
<tr><td rowspan="3">이론적 고찰</td><td colspan="2">1인 노인가구의 특성 및 노인공유주택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td></tr>
<tr><td>· 1인 노인가구의 특성 및 문제점
· 1인 노인가구의 주거특성</td><td>· 노인 주택 법규상정의
· 노인 공유주택 개념 및 용어정리</td></tr>
<tr><td colspan="2">국내·외 노인 공유주택 공간분석 사례비교</td></tr>
<tr><td rowspan="2">사례 및 인터뷰 분석</td><td colspan="2">국내 노인 공유주택 사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td></tr>
<tr><td>· 조사 범위 및 방법, 대상
· 국내 노인 공유주택 지원 및 운영
· 국내 노인공유주택 조사대상 현황 (노인의 집, 보린두레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td><td>· 화장실 및 욕실공간
· 주방 및 식사 공간
· 세탁공간
· 노인 커뮤니티 공간</td></tr>
<tr><td>결론</td><td colspan="2">결론 도출</td></tr>
</table>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Collection @ uos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1인 노인가구의 특성

현대 사회의 1인 노인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1인 노인가구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노인가구의 주거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인 노인가구의 특성 및 문제점

가. 1인 노인가구의 특성

1인 노인[7]가구의 주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1인 노인가구란 일반적으로 홀몸노인 및 독거노인이라 부르기도 하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으로 기술되어 있다. 1인 노인가구의 정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독거노인은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관리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의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이진숙, 2015) 노인 1인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과 더불어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고립감이 크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고독감, 자살 등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지선, 201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인 노인가구는 경제적,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며, 신체적 기능이 쇠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7) '노인복지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전적인 정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출생 후한 평생을 사는 동안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라고 기술 되어있다.

Collection @ uos

나. 1인 노인가구의 문제점

전 세계에서 1인 노인가구의 사회적 문제로는 고독사, 빈곤율, 안전문제 등이 나타난다. 1인 노인가구는 일반적인 노인들보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많이 느끼며, 가족이 없거나 분리된 상황에서 일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가 없다면,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에 더 많은 노출 될 수 있다. 이러한 1인 노인가구의 문제점들은 크게 3가지로 분석가능하다. (<표 2-1> 재인용, 염혜실)

<표 2-1> 노인 가구유형별 현재 걱정 및 고민사항

구 분	노인 1인가구	노인 부부	자녀동거가구	기타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관계	3.9	5.1	9.0	7.0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	53.0	5.45	46.7	38.0
경제적 어려움	20.6	16.9	16.8	26.1
주거 문제	1.5	0.7	1.1	2.5
소외 및 고독감	8.4	0.9	1.4	2.7
삶의 무료함	1.3	1.6	2.1	3.7
기타	3.1	5.6	12.6	10.1
없음	8.1	14.7	10.1	9.9
계 (명)	100.0(2,086)	100.0(5,119)	100.0(2,845)	100.0(487)

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재인용) (단위: %, 명)

첫째,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기 꺼려하는 현상과 부모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를 원치 않아 함께 살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경제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족에게서나 가능하다. (이진숙, 2015) 1인 독거노인은 고령과 질병, 자녀의 경제적인 도움 요구, 취업기회의 불균형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 노인가구를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주거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표2-2>와 같다.

Collection @ uos

<표 2-2> 노인의 지출 비율

특성	식비	주거 관련비(월세)	보건 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없음	계 (명)
1인 노인	16.4	52.3	1.4	1.9	17.3	10.7	100.0 (2,426)
노인부부	17.0	28.2	27.2	6.1	11.9	9.6	100.0 (4,980)
자녀동거	24.3	25.6	14.7	3.4	23.9	8.2	100.0 (2,444)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단위: %, 명)

둘째, 1인 노인가구는 가족과 분리된 상황과 이웃 간의 무관심 등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없을 시, 고독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진숙, 2015) 이러한 고독사의 이유는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부부와 자녀, 친구갈등 및 단절 등으로 나타난다. (<표2-3> 참조)

<표 2-3> 노인의 고독사 이유

특성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배우자,가족, 친구)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기타
노인전체	27.6	27.7	12.4	8.3	18.6	0.6
1인 노인	26.8	32.2	20.0	9.9	9.3	0.4
노인부부	32.2	22.8	5.1	5.4	25.3	0.4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단위: %, 명)

셋째, 노인의 건강상태는 1인 노인가구가 노인부부보다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부정적인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사고나 사망 후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1인 노인가구는 이러한 문제에 항시 불안감이 있다.

즉, 1인 노인가구의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은 경제적인 주거비부담과 사회 교류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과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 할 주거대안이 필요하고, 자녀의 부양이 아닌, 이를 대신할 사회적 가족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uos

2. 1인 노인가구 주거의 특성

주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며, 가족의 공동생활과 지역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의 장소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노년기에는 주거 내에서의 생활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에게 주거는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환경은 직접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주거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가. 1인 노인가구의 주거유형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48.8%가 단독주택이고 아파트 35.1%, 연립·다세대주택 14.6%로 나타났다. 특히, 1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53.5%이고 아파트 32.1%의 비율로 1인 노인가구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표2-4>과 같다.

<표 2-4> 노인의 주거유형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계 (명)
노인전체	48.8	35.1	14.6	1.6	100.0 (10,299)
1인 노인	53.5	32.1	12.9	1.4	100.0 (2,426)
노인부부	51.6	33.9	13.2	1.4	100.0 (4,980)
자녀동거	39.0	40.6	18.3	2.0	100.0 (2,444)
기 타	45.8	33.7	18.5	2.0	100.0 (449)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단위: %, 명)

다음으로는 주거 위치를 살펴보면, 전체가 약 96%로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하 또는 반 지하 및 옥탑에 주목할 때, 노인부부보다 1인 노인가구가 높은 비율을 나타난다. (노인부부 - 지하 또는 반 지하 : 1.8%, 옥

Collection @ uos

탑 : 0.2% / 1인 노인가구 - 지하 또는 반 지하 : 6.6%, 옥탑 : 0.3%) 단독주택이 대표적인 유형일지라도, 대부분의 1인 노인가구는 임대료가 싼 주거 유형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70.9%가 자가에 살고 있는 비율로 높게 나타나지만(전체의 70.9%), 1인 노인가구의 경우 자가 비율은 50.2%로 훨씬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1인 노인가구의 월세비율(20.1%)과 무상비율(18.9%)은 노인부부의 월세비율(8.3%)과 무상비율(7.3%)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표 2-5>와 같다. 그래서 1인 노인가구에게 주거는 지속성과 안정성의 면에서 불안하며, 최소한의 공간이 주어진다고 하겠다. 게다가 1인 노인가구가 지출하는 비용 중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용은 월세(29.3%)와 주거관련 비용(23.0%)[8]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5> 노인의 거주형태

특성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명)
노인전체	70.9	7.3	12.3	9.5	100.0 (10,235)
1인 노인	50.2	10.8	20.1	18.9	100.0 (2,426)
노인부부	79.3	5.2	8.3	7.3	100.0 (4,980)
자녀동거	74.7	8.3	12.4	4.5	100.0 (2,444)
기 타	69.6	5.7	15.2	9.5	100.0 (384)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단위: %, 명)

나. 1인 노인가구의 향후 주거형태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와 사회적 생활이 적어짐으로써 복지관과 경로당 및 주거만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중요한 의미와 가치 있는 존재이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과 1인노인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80%)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전체의 경우

8) 정경희 외 10명,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450

Collection @ uos

그 이유는 아플 때 간호문제(19.05)와 경제적불안감(17.3%), 심리적불안감·외로움(10.3%)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1인 노인가구는 아플 때 간호문제(34.6%)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21.4%)로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표 2-6> 참조)

<표 2-6> 노인의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

특성	아플 때	일상생활 문제처리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노인전체	19.0	7.5	17.3	1.5	10.3
1인 노인	34.6	9.5	13.4	1.6	21.4
노인부부	11.2	6.5	19.2	1.4	4.8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단위: %, 명)

이와 같이 1인 노인가구는 일반 노인가구에 비해 외로움과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건강할 때 희망거주 형태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는 응답이 88.6%로 높았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의 희망거주 형태로는 대부분이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 중 1인 노인가구는 돌봄, 식사, 생활편의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의 비율(38.0%)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듯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거나, 몸이 건강할 때에는 살았던 집에서 살고 싶어 하며,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노인부부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으나, 1인 노인가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불안하기에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노인은 혼자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인 노인가구가 크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1인 노인 가구에게는 단독가구 생활이 아닌, 사회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의 노인 대안주거가 마련이 절실하다.

Collection @ uos

제 2절 노인 공유주택의 정의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노인 공유주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노인 공유주택과 유사 개념을 가진 용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노인 주택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노인 공유주택에 적합한 법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노인 공유주택의 개념 및 유사용어정리

우리나라보다 먼저 1인 노인가구의 급증을 경험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미국, 덴마크 등의 해외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노인 대안주거로 '그룹 홈', '코하우징', '콜렉티브하우스', '그룹 리빙' 등의 명칭을 가진 노인을 위한 공유주택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1인 노인 가구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생활을 유도하였다. 해외 공동체 유형은 노인세대만 있는 주거유형과 다양한 세대(청년+노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유형으로 구성된다. (<표 2-7> 참고)

<표 2-7> 해외 공유주택 유형

국가	주거형		보조 주거형	
	다양한 세대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미 국	셰어하우스 (주택공용알선센터)	셰어하우스 (주택공용알선센터) 노인집합주택, 생활지원주택	-	-
영 국	다인거주 주택 (HMO 주택)	보호주택[9] (Sheltered housing)	노인홈 보호주택	요양소 (nursing home)
덴마크	코하우징			
스웨덴	콜렉티브 하우스	콜렉티브 하우스, 그룹홈	서비스하우스	소규모 그룹 홈
일 본	룸 쉐어 콜렉티브 하우스	그룹 리빙 콜렉티브 하우스		

Collection @ uos

우리나라도 1인 노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에서는 시설공급과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는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령자주택유형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염혜실, 2014, 재인용) 최근에는 1인 노인가구의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공동체 생활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이진숙, 2015, 재인용) 그동안 노인 공동체주거와 관련된 주제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할 '노인 공유주택'으로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유사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표 2-8>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노인 공유주택'은 "두 세대 이상이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며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고 화장실, 욕실과 침실은 개별 사용 혹은 공동 사용하는 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8> 공유주택 유사용어정리

구 분	특 징
그룹 리빙	고령자 5-9인, 간병인 동거 하지 않음. 요리, 청소, 식사 등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는 형태
그룹 홈	스웨덴에서 개발,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6-8인, 개인마다 침실과 거실, 욕실, 수납공간 등으로 구성된 개인공간, 부엌이나 식당, 거실 같은 공동공간은 같이 사용하도록 구성된 형태
코하우징 (Co-Housing)	덴마크에서 시작, 30가구 이상, 비용이 비쌈, 마을이나 연립주택에서 공동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서로의 왕래를 이어가는 형태
공유주택	2인 이상의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고 주택을 공유, 개인 침실을 사용하고 출입구, 거실, 부엌, 세탁실과 같은 공동공간은 공동으로 사용, 욕실은 대개 각자 사용하나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같이 사용하는 형태
콜렉티브 하우스 (Collective House)	자녀양육과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주거형태. 침실, 욕실, 화장실, 작은 부엌은 각 세대의 전용 개인 공간별도, 부엌, 다이닝룸, 세탁실, 아이들 놀이방, 탁아시설 등은 공동으로 쓰는 형태
다인거주 주택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다수가 점유하는 주택, 여럿의 비 혈연가구가 부엌, 거실, 식당과 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형태

9) 보호주택 (Sheltered housing) : 영국의 공공임대형 보호주택, 노인들이 자립거주를 하면서 호출시 곧바로 도움을 주는 관리인이 상주해 있는 주택, 보호주택의 입주자는 노인부부, 독거노인, 응급서비스, 관리인, 간소/식사서비스 있음.

Collection @ uos

2. 노인 주택의 법규상 정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인 노인가구 증가와 1인 노인가구의 문제들로 인해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 공유주택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 공유주택의 주거유형은 1인 노인가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는 법규상 구체적인 주택유형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노인 공유주택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은 공유주택의 정의라고는 보기 어렵다. 앞으로도 사회변화로 인한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노인 공유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확대되어질 것이고, 노인 공유주택의 주거유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용도 분류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1인 가구(청년, 노인 등)를 위한 공동체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체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10]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제2조[11]에 따른 주택 및 준 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이라 말한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공동체공간이란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닛 내에서

10) 서울특별시조례 제6598호, 2017.7.13., 제정

1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Collection @ uos

같이 거주하여 실을 공유하는 거주형태, 즉 공유주택(셰어하우스)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용도분류도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노인 주거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노인복지법」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명시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으며,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9> 참고)

<표 2-9> 노인주거복지시설

구분	시설별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 :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그러나 기존의 노인 주거시설의 유형별을 살펴보면 거주가 아닌 입소의 개념이며 주택보다는 시설의 특성으로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노인복지법」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중, 노인복지주택[12]의 시설기준은 침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력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가 있고, 30세대 이상이다. 필요한 경우 재가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

12)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4장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Collection @ uos

다. 또한 1인 노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 떠오른 1인 노인가구를 위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등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존특성에 맞는 용도로는 구분하기에 어렵다. 그러므로 커뮤니티가 중심인 노인 공유주택은 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노인복지주택에서의 시설기준 일부와 방문요양서비스를 활용하고, 서울시 공동체주택 조례의 정의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노인 공유주택이 서울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에서 활용되려면 명확한 용도 분류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노인 공유주택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건축기준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주택법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uos

제 3절 국내·외 노인공유주택 공간분석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노인 공유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고, 국외에서 노인 공유주택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헌조사를 통한 국내 노인공유주택 분석

현재까지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대안주거로서 노인 공유주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유사한 개념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 공유주택의 계획 요소는 <표2-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염혜실(2014)은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에서 노인 공유주택에 거주의사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호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저렴형 유형과 고급형 유형으로 나누어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 공유주택의 거주의사와 선호에 대한 태도와 기대만 나타나 있을 뿐, 노인 공유주택에 관한 기본평면과 실내계획에 대한 자료는 한계가 있다. 주현진(2015)은 '일본의 시니어 쉐어하우스 공간배치 및 면적연구'에서 일본의 노인 공유주택을 분석하여 국내 노인공동생활 주택 공간계획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개인공간에는 침실, 욕실, 화장실, 발코니를 두고 거실, 식당, 주방, 세탁실을 필수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남희경(2013)은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 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제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본 개인공간구성에는 침실, 욕실, 화장실, 발코니로 구성하고 공유공간으로는 현관에 휠체어를 보관하는 장소를 두고 거실, 식당, 부엌, 세탁실, 다목적

Collection @ uos

실로 계획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주거를 공공 임대주택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다. 황지혜(2010)는 '건강을 도모하는 기숙사형 노인주거대안 연구'에서는 아파트를 기반으로 노인용 기숙형 주거의 공간을 제시하여, 개인공간에는 침대, 화장실로 구성하고 공유공간에는 거실, 식당, 복도, 화장실, 세탁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오찬욱(2005)은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 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 개념을 중심으로 두었다.

<표 2-10> 선행연구의 노인공유주택 계획요소

구분		계획분석			
		개인공간		공유공간	
		저렴	고급	저렴	고급
염혜실 (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침실	침실, 욕실, 화장실	침실, 화장실, 욕실, 거실, 부엌, 식당	거실, 부엌, 식당
주현진 (2015)	일본의 시니어 쉐어하우스 공간배치 및 면적 연구	침실, 욕실, 화장실, 발코니, 수납장		거실, 식당, 주방, 게스트룸, 입구, 세탁실, 스터디룸	
남희경 (2013)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제안	침실, 욕실, 화장실, 발코니		현관(휠체어보관), 거실, 식당, 부엌, 세탁실, 다목적실	
황지혜 (2010)	건강을 도모하는 기숙사형 노인주거대안 연구	침대, 화장실		큰(작은) 거실, 식당, 복도, 화장실, 세탁실, 발코니, 대피실	
오찬욱 (2008)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침실, 욕실, 거실, 수납공간		부엌, 식당, 거실, 욕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필수적으로 개인공간에는 침실과 화장실을 두고 공용공간에는 거실, 부엌, 식당을 두는 것을 공통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과 세탁실, 다목적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공히 노인 공유주택의 계획요소만 언급되며, 실제 거주자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요소에

Collection @ uos

맞는 노인 공유주택을 선정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주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국외 노인 공유주택 공간 문헌분석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서는 다양한 공동체형의 노인주거가 개발되어왔다. 그 중, 본 연구에서 지칭한 노인 공유주택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유사한 개념으로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 일본

일본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대안적인 주거가 발달되어 있었고, 그 중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1인 노인가구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공유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표2-11>참조)

<표 2-11> 일본 노인 공유주택 유형

유형	대상	구성원	주택유형별 특징
룸셰어	학생 및 액티브 시니어	10 - 30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닛의 비 혈연관계들이 거주하는 형태, 개인실, 공동 (거실, 다이닝, 부엌, 욕실, 화장실 등)
그룹리빙	액티브 시니어	5 - 30 명	독거노인들의 공동 거주 공간, 라운지, 부엌, 화장실, 욕실 등 공동
컬렉티브 하우스	학생 및 액티브 시니어	15 - 50명	거실, 부엌, 세탁실 공동. 계약형태 임대

자료 : 미래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주택건설 방안연구,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표2-11>를 살펴보면 룸셰어와 컬렉티브 하우스는 학생 및 액티브 시

13) 최지선, 2015, 공급자 관점에서 본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pp.57

Collection @ uos

니어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유형이고 그룹리빙은 액티비 시니어만 거주하는 주거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지칭한 노인 공유주택은 노인만 거주하는 주거로 유사한 주거유형은 그룹리빙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그룹리빙은 하나의 단위주거로 거실과 식당, 욕실과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하숙타입이다.(소갑수,2007) 그룹 리빙의 거주방식은 강제적인 가사와 협동생활로 구속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가의 형태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식사중심으로 하는 공동장소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14)]

나. 영국

영국의 노인용 공동생활주거는 공공임대형 보호주택이라고 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전용주택이다. (남희경, 2013) 보호주택은 서비스에 따라 1형, 2형, 2.5형으로 구분되며 1형은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계획주택으로 응급호출시스템만 설치되고, 2형은 아래 집합주택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응급호출시스템에 공유공간이 있고 관리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2.5형은 보호주택 2형과 요양원 중간에 속하는 유형으로 건강서비스가 부가되며 하루 2끼 이상의 식사가 제공된다.[15)] (<표 2-12>[16)] 참조)

<표 2-12> 영국 보호주택 특징

구분	공간구성		단지규모	서비스
	개별공간	공용공간		
1형	거실, 침실, 욕실, 부엌, 화장실	-	10-20호	응급서비스
2형	침실, 욕실, 부엌, 화장실	거실, 세탁실, 전화실	20-35호	응급서비스, 관리인
2.5형	침실, 욕실, 부엌, 화장실	거실, 세탁실, 전화실, 식당, 부엌, 개조욕실	20-35호	응급서비스, 간호/식사서비스

자료 : 남희경,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제안

14) 염혜실, 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pp.33
15) 유병선, 홍형옥, 2005,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pp.27-38

Collection @ uos

보호주택의 공간구성들을 살펴보면, 1형은 원룸형으로 보이며 공용공간이 없으므로 공동생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주거유형이라 인식 될 수 있다. 2형 및 2.5형은 개인실이 있고, 공용시설과 응급서비스를 두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적합한 주거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보호주택의 입주자는 1인 노인가구이거나 노인부부이고, 임차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노인의 소득이 임차료에 비해 부족하더라도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노인들은 좋은 위치, 친절한 이웃, 개인주호, 난방과 조명등의 설비, 경보장치와 공용공간 공동시설,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 좋은 관리인이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17]

다.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노인이 평범한 주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공동주택은 1970년대부터 지어진 노인전용 집합주택인 서비스하우스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소규모의 그룹홈이 노인용 주거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18] 노인 그 중 그룹 홈은 개발된 주거유형의 하나이며, 치매노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시작되었고 6-8인의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된 주택이다. 개인공간에는 침실, 거실, 욕실, 수납공간 등으로 계획되었고, 공동공간은 식당, 부엌, 거실로 계획된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간병과 간호를 해줄 직원이 있다.

---

16) 남희경, 2014,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 논문, pp.25
17) 이서현, 2018, 빈곤한 독거노인의 헌법상 주거권 실현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p.103, 재인용
18) 남희경, 2013,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pp.31

Collection @ uos

예전에 그룹 홈은 미니요양시설이라 할 수 있고, 점차 일반 노인들을 위한 주택부분에도 영향을 끼쳐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을 보급하였다. 다양하게 시도된 그룹 홈은 연령통합형(젊은 층+노인), 연령분리형(노인), 농가형, 낡은 주택을 개조한 형, 너싱홈(병원디자인 개념), 통합단지형(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등으로 구분된다.[19]

또한, 스웨덴의 콜렉브하우스는 여성을 위한 복합주택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한다. 그리고 각자의 생활 속에 유아 센터나 주방 등을 두면서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주거방식이다.[20] 특히, 고령자나 장애자 주거를 일반인들과 분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스웨덴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 노인 공유주택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표 2-13> 참조)

<표 2-13> 스웨덴 노인 공유주택 유형

구분	공간구성		특징
	개별공간	공용공간	
서비스하우스	거실, 침실, 부엌, 욕실	식당, 손님방, 미용실, 세탁실, 도서실 등	케어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그룹홈	거실, 침실, 부엌, 욕실	거실, 식당 및 부엌	치매나 정신장애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대상
콜렉티브하우스	거실, 침실, 부엌, 욕실, 수납공간, 세탁실	식당, 세탁실, 독서실, 다목적실, 게스트룸 등	여성을 위한 주택으로 시작

19) 오찬욱, 2008,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pp.59-70
20) 전명진, 2016, 생산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홀몸노인 콜렉티브 하우스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석사학위논문, pp.32

Collection @ uos

3. 국내·외 사례비교

국내의 공유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형태는 대부분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유주택의 대상은 대학생, 직장인, 여성전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은 거주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유주택의 경우는 임대형식으로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 청년, 사회소외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형 공유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대학생들에게 일정월세를 받고 룸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은 공유주택을 공급하고 있더라도 커뮤니티의 프로그램과 거주자들의 관리가 어려워 커뮤니티를 이루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공유주택의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국외의 사례와 선행연구의 노인 공유주택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국외사례는 노인전용 공유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이 함께 존재한다. 또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계획이 유사하나 국외의 사례에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경보장치 및 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관리인이나 직원이 있다는 차이가 드러났다. (<표 2-14> 참조)

Collection @ uos

<표 2-14> 국외사례의 노인공유주택 공간요소

구분	계획분석	
	개인공간	공유공간
일본	침실, 화장실	거실, 식당, 부엌, 욕실, 화장실, 세탁실 등
영국	침실, 욕실, 부엌, 화장실	거실, 식당, 부엌, 세탁실, 전화실, 개조욕실, 응급서비스, 간호·식사서비스 / 관리인
스웨덴	침실, 거실, 욕실, 수납공간	거실, 식당, 부엌 / 간병인 또는 직원

이처럼 공유주택은 민간과 공공과 국외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청년,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감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노인 공유주택은 노인들을 도와줄 요양사나 관리인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인 공유주택의 본질에 맞는 공동생활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게 프로그램과 거주자들을 관리하여 노인 공유주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uos

제 3장 국내 공공 노인 공유주택 조사대상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노인 공유주택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및 운영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 공유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의 노인공유주택 공간구성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본 연구가 택한 자료 분석의 틀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1절 국내 노인 공유주택

1. 국내 노인 공유주택 현황

저출산, 비혼, 고령화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눈에 띄는 변화로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1인 노인가구 수의 증가를 꼽을 수 있는 바,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인 노인가구를 위하여 주거수요를 충족시켰으나, 1인 노인가구의 외로움, 소외감, 고독사, 주거비 부담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으로 공공에서는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민간과 함께 공동체생활 주거가 대안적인 주거라고 인지하고 공동체 생활 주거 제공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대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여 왔다. 서울시에서 명칭한 '공동체주택'이란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서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Collection @ uos

있고, 공동체 주택 관리 규약이 마련된 주택으로 공유주택(Share House)과 코하우징(Co-housing)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21] 서울시에서 추진한 공동체 주택의 대상으로는 1인 가구형, 공동육아형, 세대혼합형, 어르신공동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르신공동체형의 주거보다는 1인 가구형, 공동육아형, 세대혼합형의 사례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50+세대재단'[22]을 설립하여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50세-64세의 중장년층 기준이기에 노인 공유주택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 50+의 공동체주거는 본 연구에서 지칭한 노인 공유주택은 아니지만 노인 공유주택과 유사한 코하우징의 주거유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공동생활의 주거 기준으로 일반적인 공유주택(Share House)으로 지원주택, 코하우징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포함하기에는 공동체주택의 개념이 광범위이기에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유주택의 주택유형 용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종류를 분류해야한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거는 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았을 때, 노인공유주택의 용도를 구분하고 종류를 별도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21) 서울시청주택정책과, 2017, 함께 살아 좋은 집 공동체주택 매뉴얼 북 자가소유형, 서울시, 용역 연구보고서

22) 2016년에 설립된 서울시 산화기관, 서울시 50+세대(만 50-64세, 베이비부머/신노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를 위한 든든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지원 기관

Collection @ uos

2. 국내 노인 공유주택의 지원 및 운영

서울시에서 '공동체주택'이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이다. 그 후 코하우징, 셰어하우스와 같이 입주자 간의 교류, 친밀성 등을 전제로 운영되는 주택을 '공동체주택'으로 명명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23] 또한, 다양한세대(1인 청년가구, 1인 노인가구 등)의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혈연 관계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생활을 하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주택 제공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체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주택 공급방식으로는 공급주체(공공, 민간)와 주택확보방법(건설/매입, 임차)으로 세분화했고, 가구 점유형태는 자가와 임차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공동체 주택은 자가소유형, 사회임대형, 공공임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3-1> 참조)[24]

<표 3-1> 서울시 공동체주택 유형별

유형	공급 및 운영	해당주택
자가 소유형	• 건설 후 가구별 구분소유 • 계획 및 건설단계부터 입주 예정자가 참여 • 가구별 주거공간 + 커뮤니티 공간	소행주, 구름정원사람들
사회 임대형	• 건설/매입/임차 후 임대 • 주로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 임대료가 시세대비 저렴 • 셰어하우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함께주택, 공가(共家), 달팽이 집, 통의동 집, 우주(WOOZOO)
공공 임대형	•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 조합이 참여 • 매입 후 셰어하우스로 운영(두레주택)	협동조합형공공임대주택 두레주택

23) 남원석 외, 2016, 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SH공사의 범용모델 개발 연구, SH공사

24) 남원석, 박은철, 2014,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 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 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pp.7-8

Collection @ uos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SH주택공사에서는 맞춤형 공동체주택[25]을 공급하였다. '맞춤형 공동체 주택'의 대상은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여성이며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본 연구의 노인 공유주택과 맞는 맞춤형 공동체주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어르신·약자 맞춤형 주택이 있고, 이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라 지칭한다. 그 중 노인 공유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은 '보린두레주택'이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을 분리하고 주방, 거실 등은 공유하여 공동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고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노인의 집 운영 지침'에 따라 전국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 집'은 공동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공간이다.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만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전국 지방(농촌)에 공급되며, 빈집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지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1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동거주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표 3-2>참조)

<표 3-2> 노인 공유주택 유형

	노인의 집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원룸형	공유주택	
지 역	서울	서울		지방(농촌)
입주자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지하, 반지하, 옥탑방등 에 거주한 독거노인		독거노인
시 행 날 짜	1995	2013		2007
공 급 주 체	LH, SH	SH		지방 자치단체
입 주 기 간	기본5년, 연장 1회 최장 8년 거주	기본2년, 연장 9회 최장 20년 거주		-
인원수	2 - 5명	10 - 16명	10명 (여-5/남-5명)	5 - 10명
구 조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리모델링
공 용 공 간	거실, 부엌, 화장실	다목적실, 옥상정원	거실, 부엌, 옥상, 경로당	거실, 부엌, 화장실

Collection @ uos

제 2절 국내 공공 노인 공유주택 조사대상 현황

1. 조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 혈연관계로 1인 노인가구가 두 세대 이상이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노인 공유주택'이라고 보고, 개인공간과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노인 공유주택을 선정하였고, 현재 공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노인공유주택 중, 접근이 가능한 대상으로 '노인의집', '보린두레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농촌)'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노인의 집'은 서울시 18개의 자치구에서 총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접근이 가능한 종로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총 7개소의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SH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주택' 중 노인 공유주택의 주거유형인 '보린두레주택'을 선정하였다.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두 사례와 비교하기 위하여 도시·외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시설로서 조사대상과 유사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선정하였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례로 공유주택의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농어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접근 가능한 공공 노인 공유주택은 총 12개의 주택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건축개요는 <표 3-3>으로 정리 할 수 있다.

---

25) 맞춤형 공동체 주택 : 가족 맞춤형, 청년·기업가 맞춤형, 어르신·약자 맞춤형, 대학생 맞춤형, 예술인 맞춤형

Collection @ uos

<표 3-3> 조사대상 사례 노인공유주택 건축 개요

구 분	노인의 집					맞춤형 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농촌)		
타 입	A, B, C	D	E	F	G	보린두레주택	울산 A	공주 B	공주 C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울주군 상북면	공주시 유구읍	공주시 정안면
용 도	다가구용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용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다세대)	노유자 시설	노인회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488.8m²	695m²	121.4m²	190.1m²	180.5m²	332.40m²	372m²	454m²	388m²
건 축 면 적	146.46m²	179.67m²	67.5m²	113.8m²	106.86m²	197.48m²	107.32m²	175.32m²	145.35m²
연면적	566.05m²	655.32m²	211.86m²	345.6m²	274.86m²	621.27m²	107.32m²	175.32m²	140.35m²
규 모	지상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3층 중 1층	지상 1층 -지상 4층 중 3층	지하 1층 -지상 2층 중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중 2층	지상 1층 - 지상 4층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세대수	9	3	3	3	3	10	8	9	8
주 체	LH	LH	SH	LH	LH	SH,금천구	지방자치단체		
주택확보방법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신축	신축	리모델링	신축

Collection @ uos

인터뷰는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로 한정하였으며, 노인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거주자들 중심으로 거주 후 평가(POE)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표 3-4>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3-4> 인터뷰 대상자

구 분		연령	거주기간	성별
노인의 집	A	80대	1년 6개월	여자
		80대	10년	
	B	80대	3개월	
		90대	5년	
	C	80대	10년	
	D	70대	7년	
		90대	10년	
	E	70대	7개월	
	F	70대	4년	
		80대	8개월	
	G	70대	8년	
보린두레주택	A (3층)	70대	3년	여자
		80대	2년 6개월	
		90대	3년	
	B (4층)	70대	3년	남자
		70대	2년 6개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A	80대	3년	여자
		80대	3년	
		80대	3년	
	B	80대	3년	여자
		80대	3년	
		80대	3년	
	C	80대	5년	여자
		80대	5년	
		80대	5년	

거주 후 평가연구는 건축물이 건축된 후, 실제 사용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정보를 도출하고, 보다 개선된 계획 및 설계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거주자의 평가에 관한 인터뷰 구성으로는 General(일반사항), Safety(안전), Amenity(편의성), Flexibility(가변성), Community(소통과 공유) Privacy(사생활)로 구분하였

Collection @ uos

다. Safety(안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 및 주거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소비자안전국'에 의하면, 사고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57.2%로 가장 많고, 가정 내에서는 방, 침실, 화장실, 욕실 순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의 주 활동 공간이 방을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노인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누구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구 및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27] 참조, 차재훈, 2013, 재인용) 그러므로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내에서의 Safety관련 질문을 구성하였다. Flexibility(가변성)의 경우, 노인들은 살아온 날만큼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스타일이 확고하므로,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이 고려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오찬옥(2008)의 연구결과, 동거에 반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함께 모여서 살 경우 개인생활이 제한되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28] 그리고 염혜실(2014)의 연구결과, '거주자들의 성격차이로 의견충돌이나 불화 문제', '공동생활로 인한 사생활 보장 미흡'[29]이 가장 높게 나왔다. 1인 노인가구에게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줌으로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공유주택 거주자들의 개인 Privacy(사생활)가 보장되고 있는지, 거주자 간의 Community(소통과 공유)가 활성화가 되어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공용사용 공간으로 주방, 거실, 화장실을 제외한 기타

26) 곽인숙, 2009, 노인의 주택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pp.55-66
27) 차재훈, 2013, 도심 속 노인 공동체 생활의 공간 계획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pp.5, 재인용
28) 주현진, 2014, 노인주거대안으로 시니어 쉐어하우스의 공간구성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67-172
29) 염혜실, 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uos

공간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Amenity(편의성)에 관한 질문도 구성하였다.

<표 3-5> 노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계획 시 고려사항

구분	변화	문제점	건축적
신체적 특성	- 성격의 변화	- 작업능력의 축소 - 운동 동작능력 감소	- 노인을 위한 공간규모
	- 골격, 감각 및 운동 기관 쇠퇴	- 안전사고의 발생 - 이동보조기구 이용 - 고립, 소외감발생	- 안전사고를 줄이는 계획 - 보행거리, 보조기구 - 피난훈련 및 공간계획 - 사회 공간의 고려
심리적 특성	- 환경적응력 - 가족구성원 상실	- 불안, 고독감 - 물리적 심적 환경의 영향	- 생활 중심인 거실의 고려(프라이버시 유지) - 공공 공간의 배려(영역성 확보)
	- 지적능력	- 지적 능력의 감퇴 - 질병환자 노인	- 노인을 위한 교육시설
사회적 특성	- 사회참여의 변화 -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 경제 능력	- 고독감, 허무감, 역할 상실감 - 소유욕구 발생(경제적 자력의 약화) - 열등감(여가시간의 증가)	- 지역사회의 개방 - 취미활동, 여가선용 장소계획 - 부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따른 시설확충

인터뷰 세부 질문내용은 크게 정리하면, 주거 내에서 커뮤니티의 활성화, 공동생활의 문제점, 프라이버시의 존중, 공간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6> 참조) 조사한 12개의 주택 공간구성 및 이용현황과 인터뷰 분석 내용과 그 밖의 질적 연구 특성상 정해지지 않은 질문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uos

<표 3-6> 인터뷰 구성 내용

구 분	질문내용
General (일반사항)	- 성별/연령
	- 노인 공유주택 거주기간
	- 공유주택에 거주하게 된 이유
Safety (안전)	- 어르신들을 위한 장치 필요 (현관 앞 간이의자, 화장실 의자, 신호장치 등)
	- 집에서의 불편한 점 및 사고, 병원이랑 연결된 비상벨 시스템여부
	- 화재 및 재난, 응급상황, 피난 방법 인식
	- 건물 내, 집 안이 보안문제
Amenity (편의성)	-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서비스
	-세탁공간이나 건조공간의 활용 및 부족, 따로 공동세탁실과 건조실여부
	- 디지털 방식의 의견
Flexibility (가변성)	- 개인 방의 규모
	- 개인용과 공용화장실의 이용현황
	- 가족, 친척, 친구 등 함께 거주 가능여부
	- 다른 세대와 함께 거주 가능여부
	- 자녀나 친척, 친구가 방문할 때, 이야기 장소, 손님방 필요
	- 침대 여부 및 필요
Community (소통과 공유)	- 경로당이용 및 건물 내 커뮤니티 시설의 필요
	- 공용 주방과 거실, 커뮤니티실(다목적실)이용 현황
	- 공동 주방, 거실 등 분담 및 청소
	-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텃밭, 정자 등 필요여부
	- 함께 거주하다 나간 사람 및 이유
	- 거주자끼리 집 내에서 커뮤니티활동
	- 함께 식사 준비 및 식사 경험
	- 다툰 경험
	- 공용공간 이용현황
	- 거주자간의 사이관계
	- 거주기간이 끝나면 공유주택 거주의향
privacy (사생활)	- 사생활보장
	- 거주자 간의 도난문제
	- 흡연문제
	- 취미생활, 원하는 공간
	- 다른 불만사항

Collection @ uos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공공 노인 공유주택으로 총 12개의 주택이고, 조사대상 분석으로는 '노인의 집', '보린두레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순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유주택의 공간 구성으로는 <표 3-7>과 같으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3-7> 국내 사례 노인공유주택 공간구성

	구분	현 거주인원	구 성	개인 공간	공용 공간
노인의 집	A	여 3명	방 3개	침실	주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
	B	여 2명	방 3개	침실	주방, 거실, 화장실
	C	여 3명	방 3개	침실, 화장실1	주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 창고
	D	여 2명	방 2개	침실, 화장실2	주방, 거실, 발코니, 다용도실
	E	여 1명	방 3개	침실	주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
	F	여 2명	방 3개	침실, 화장실1	주방, 거실, 화장실
	G	여 1명	방 3개	침실, 화장실1	주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
보린두레 주택	A	여 4명	방 5개	침실, 화장실, 미니주방	주방, 거실, 발코니, 세탁실, 옥상
	B	남 4명	방 5개	침실, 화장실, 미니주방	주방, 거실, 발코니, 세탁실, 옥상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농촌)	A	여 7명	방 2개	-	주방, 거실, 화장실,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B	여 7명	-	-	주방, 거실, 화장실
	C	여 8명	방 2개	-	주방, 거실, 화장실, 방 2, 창고

Collection @ uos

가. 노인의 집

공동생활주택 또는 그룹 홈으로 불리는 '노인의 집'은 2-3개의 방이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3-5명의 무의탁 홀몸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소규모 공동주택 프로그램이다.[30] 또한, 처음으로 1인 노인가구의 공동생활을 시도한 사업이며, 서울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노인의 집 운영지침」(1995.10.4.)으로 시작하여 '18년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계획'을 재운영하고 있다. 노인의 집은 저소득 1인 노인가구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도심의 일반주택 내에서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거주하면서 공동 난방 및 취사에 따른 생활비절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실질적인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주한 노인가구들은 주로 사회복지사나 구청 공무원 등을 통해 노인의 집을 추천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 대상으로 전세를 지원한다. 현재 노인의 집 운영현황은 총 45개소(2018.07. 기준)로 91명(남 19명, 여 72명)이 거주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일건물이 아닌 개별공유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노인의 집의 공간구성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방 3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조사가 가능했던 종로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의 각 노인의 집의 공간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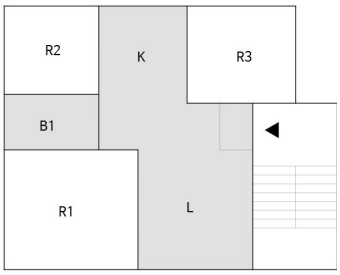
---

30) 김유진, 2016,「노인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도시지역 저소득 도거노인의 주거안정 개입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경북대학교, 보건사회연구, pp.190, 재인용

Collection @ uos

1) 노인의 집 A

<표 3-8>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A

노인의 집-A				
Plan	현 황			
	위치	종로구	규모	2층
	현 거주인원	여 84세		
		여 85세		
		여 (미상)		
	공용공간	K, L, B		
	개인공간	R1, R2, R3		
	참고 : L-거실, K-주방, B-화장실 및 욕실, R-개인방			
현 황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종로구에 위치한 노인의 집은 단일건물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개별공유주택으로 구성되어있다. 2층에 위치한 '노인의 집 A'는 개인공간 3개의 침실과 공용공간인 공용화장실 1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인원은 총 3명이다. 거주자들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개인공간에 침대와 냉장고, TV등을 배치한다. 그러나 각각 다른 방의 규모로 인해 개인공간에 원하는 시설(냉장고, 티비, 침대 등)을 배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건조공간과 세탁공간이 없기에, 3명의 거주자가 세탁을 한 후 건조할 경우에는 공용공간인 거실에 두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공용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또한, 공용공간인 화장실에서는 별도의 세탁실이 없어 화장실에 세탁기를 두고 있고, 거주자 3명이 화장실 1개를 사용함으로써 이용과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간의 이용상황은 인터뷰의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노인의 집 A'에 거주자 중 2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개인공간의 문제와 커뮤니티의 활성 문제, 공용공간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집 A'는 각자 개인침실에 냉장고와 침대, 옷장, 밥솥, TV 등 가구 및 시설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가구와 시설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개인용품을 개인공간에 보관 할 수 없어 방의 크기에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는 실버카나 지팡이를 사용해야 움직임이

Collection @ uos

수월하나, 개인침실이 협소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공간에 보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먼저 입주한 순서대로 방을 정하기 때문에 한번 방을 정하면 바꾸지 못하는 문제로 불만이 나타난다.

거주자들 중 신체,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도 함께 거주함으로서, 주방에서 가스사용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른 거주자들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케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후에 같이 살 거주자는 건강한 거주자를 원하고 있었다.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공용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있다. 주방과 거실의 이용을 살펴보면, 생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요리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 밥솥은 따로 개인공간에 보관하고 가스를 사용하거나 설거지를 할 경우에만 공용주방을 사용한다. 또한, 공동 식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같이 식사하고 싶지만, 다른 거주자가 거부하기에 할 수 없다는 점과, 생활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고, 같이 식사할 공간도 협소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드러낸 사실은, 개인적인 성향과 생활사에 대한 사전 조율 없는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한 입주로 인하여 신체적 조건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공용공간인 화장실이 있으나, 3명의 거주자가 1개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한 명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래서 외출준비를 하거나 급한 볼일을 볼 상황이 생기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나타났다. 또한, 세탁공간이 따

Collection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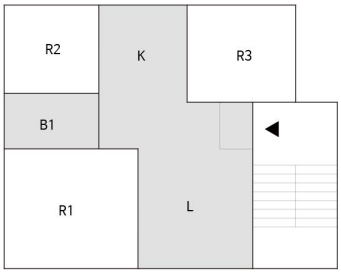
로 없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세탁기를 두어 세탁공간과 화장실 공간이 중첩된다.

커뮤니티 시설에 관련된 경로당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거주자들은 경로당보다는 식사를 해결해 주는 복지관을 더 선호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가지 못하는 상황과 노인세대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세대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노인들만 거주하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방안도 모르기 때문에 방문하여, 집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원한다.

Collection @ uos

2) 노인의 집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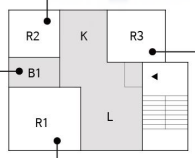
<표 3-9>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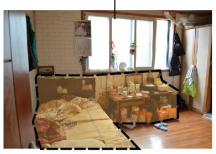
노인의 집-B				
Plan	현 황			
	위치	종로구	규모	3층
	현 거주인원	여 90세		
		여 87세		
		여 (미상)		
	공용공간	K, L, B1		
	개인공간	R1, R2, R3		
	참고 : L-거실, K-주방, B-화장실 및 욕실, R-개인방			

현 황

· 공용공간 대신 개인방 안에 빨래 건조
· 공용주방 대신, 개인방에서 해결 하려는 현황
· 개인적 성향에 따른 시설 배치

· 욕실과 세탁의 공간 중첩
·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거주자 간의 갈등





· 개인공간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공용주방 대신, 개인방에서 해결 하려는 현황

· 개인적 성향에 따른 시설 배치
· 개인공간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종로구의 3층에 위치한 '노인의 집 B'는 개인공간 3개의 침실과 공용공간으로 거실과 주방,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인원은 총 3명이다. 거주자들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개인공간에 침대와 냉장고, TV등을 배치한다. 그러나 각각 다른 방의 규모로 인해 개인공간에 침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용 주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공간에서 각자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두었다. 공용공간인 화장실에서는 별도의 세탁실이 없어 화장실에 세탁기를 두고 있다. 거주자 3명이 화장실 1개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따로 건조공간이 없어 공용공간인 거실에 하지 못하고 개인공간에 건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공간의 이용 상황은 인터뷰의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노인의 집 B'에 거주자 중 2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공용공간의 문제와 커뮤니티의 활성 문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공용공간이다. 주방과 거실의 이용을 살펴보면, 생활방식이 다르고 다툼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거주자들의 개인침실에는 주방대신 사용할 주방기구 등을 배치해놓았으며, 주방을 사용하고 싶어도 마주치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거주자 간의 다툼으로 공용공간인 거실에서 함께 생활 할 수 없어, 집에 들어오면 개인공간에서만 생활한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또한, 흡연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견되었다. 거주자 중 흡연자는 개인공간에서도 흡연을 하고,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에서도 흡연하기 때문에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현재 거주자들은 서로의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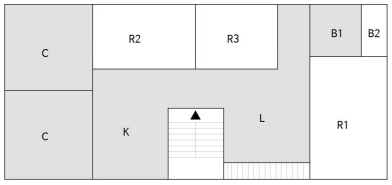
비 혈연관계의 공유생활이다 보니, 손님이 찾아오면, 개인공간이나 공용공간인 거실에서 만남이 있다. 그로인해 다른 거주자는 휴식과 거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주자가 아닌, 방문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용의 불편함이 나타났고, 소음으로도 불편을 호소하였다.

공용공간인 화장실은 3명의 거주자가 1개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므로 생활방식이 다른 거주자의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세탁공간과 화장실의 공간이 중첩되나 세탁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주자가 대다수이므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을 때 거주자들은 경로당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거주하는 곳에도 노인만 있고, 경로당까지 가서 같은 세대를 만나는 것보다는 다른 세대를 만나기를 원하였다.

Collection @ uos

3) 노인의 집 C

<표 3-10>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C

노인의 집-C				
Plan	현 황			
	위치	종로구	규모	4층
	현 거주인원	여 84세		
		여 (미상)		
		여 (미상)		
	공용공간	K, L, B1		
	개인공간	K, L, B2		
	참고 : L-거실, K-주방, B1-공용 화장실 및 욕실, B2-개인 화장실 및 욕실, C-창고, R-개인방			
현 황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종로구의 4층에 위치한 '노인의 집 C'는 개인침실3개와 개인화장실 1개와 공용공간으로는 주방, 거실,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인원은 총 3명이다. R1에는 개인 화장실이 따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개인화장실 B1의 크기는 샤워와 목욕하기에는 협소한 크기이고,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도 다른 거주자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공용화장실 B2는 R2와 R3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용한다. R2의 방은 천장이 대각선으로 되어있어 사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한다. 거주자들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개인공간에 침대와 냉장고, TV등을 배치한다. 그 중 투석을 하는 거주자가 있어, 개인용품인 투석용품을 공용거실에 두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탁하는 공간이 따로 없으므로 공용 주방에 배치하여 주방과 세탁공간이 중첩된다. 공간의 이용 상황을 인터뷰의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노인의 집 C'에 거주자 3명 중 R1에 거주하는 거주자 1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개인공간의 문제와 공용공간과 커뮤니티의 활성 문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집 C'의 개인공간으로는 침실이 구성되어있고, R1에는 B1의 개인화장실이 구성되어있다. R1에서 이용하는 개인화장실은 샤워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다. 그래서 공용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 밖에 없으나, 공용화장실을 사용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했다고 개인화장실과 공용화장실의 청소책임이 두 배로 생기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다른 공용공간의 이용에 관한 질문에서는 모든 거주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불편한 상황이라, 공용공간의 사용이 적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용공간의 관리도 조금 덜 불편한 거주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 어려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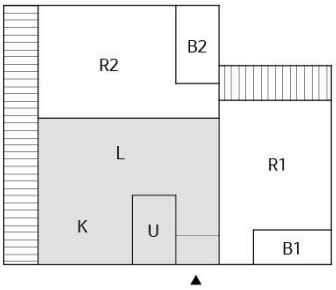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이 방문을 할 경우에는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방문자들이 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나 구청의 규율로 인하여 자고 갈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모든 거주자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식사 및 집수리 등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전에 거주자 중 한 분이 아들과 잠시 거주한 적이 있을 때, 전구가 나가거나 집수리 등 노인끼리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어서 편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끼리 있는 것 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젊은 세 대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였다.

모든 거주자들이 세탁기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세탁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주방에 세탁기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세탁공간과 주방공간의 중첩의 문제가 나타난다.

Collection @ uos

4) 노인의 집 D

<표 3-11>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D

노인의 집-D				
Plan	현 황			
	위치	종로구 홍지동	규모	1층
	현 거주인원	여 90세		
		여 79세		
	공용공간	K, L, U		
	개인공간	R1(B1), R2(B2)		
	참고 : L-거실, K-주방, B1.B2- 개인 화장실 및 욕실, R-개인방, U-다용도실			
현 황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홍지동에 위치한 '노인의 집 D'는 개인침실 2개와 개인 화장실 2개와 공용공간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거주인원은 총 2명이다. 다른 노인의 집과 다르게 각자의 개인침실과 개인화장실로 인하여 큰 불편함은 나타나진 않지만, 이전에는 한 방에 2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다용도실이 있어 세탁공간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주자들로 인해 세탁공간은 창고로 사용한다. 거주자들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개인공간에 침대와 냉장고, TV등을 배치한다. 서로의 생활패턴상 차이로 인하여 공용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간의 이용 상황은 인터뷰의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노인의 집 D'에서는 거주자 2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공간의 문제보다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커뮤니티의 활성 문제와 세탁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집 D'은 각자의 개인공간이 다른 노인의 집과 다르게 방의 크기가 넓기 때문에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거주자들은 개인화장실이라 이용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예전에는 한 방에 2명이 함께 거주하고, 공유하는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같은 방을 쓴 거주자는 치매를 앓고 있고, 변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같은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케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순서로만 입주하는 경우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Collection @ uos

또한, 세탁공간이 있으나, 손빨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한 이유는 거주자들은 세탁기의 사용여부를 몰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사용하고 싶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노인의 집은 거주자가 노인 대상이니 병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한 거주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남은 거주자는 혼자서 큰 집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규칙을 정하고 싶어도 정하는 어려움이 있어 거주자 간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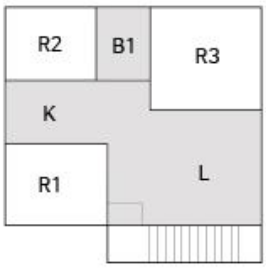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을 때, 집에 문제가 있으나, 거주자들은 해결할 방안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집수리를 해야 할 문제가 생길 때,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건 자기들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오는 집수리 서비스를 원한다고 하였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주자들 끼리 식사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서로의 생활방식이 혼자 먹는 습관으로 인하여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거주자의 몸 상태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보니 반찬을 직접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5) 노인의 집 E

<표 3-12>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E

노인의 집-E				
Plan	현 황			
	위치	구로구	규모	3층
	현 거주인원	여 76세		
	공용공간	K, L, B1		
	개인공간	R1, R2, R3		
	참고 : L-거실, K-주방, B-화장실 및 욕실, R-개인방			
현 황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구로구에 위치한 '노인의 집 E'는 개인침실 3개와 공용 화장실 1개, 거실과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거주인원은 총 1명이다. 다른 거주지원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위치의 문제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은 위치적으로 오기 힘든 곳은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배리어프리를 생각하지 않은 화장실의 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발생하고, 세탁공간과 욕실공간의 중첩된 상황이 나타난다. 공간의 이용 상황을 인터뷰의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노인의 집 E'의 거주자 대상으로 총 1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재 '노인의 집 E'는 혼자 거주하는 상황이다.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공용공간의 이용문제와 배리어프리, 커뮤니티 활성의 문제가 나타난다.

'노인의 집 E'의 거주자는 개인침실을 작은 방으로 선택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후에 오는 거주자와 방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후에 다른 거주자가 입주할 때, 무슨 걱정 되냐는 질문에는 도난사건과 다툼으로 걱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사전 조율 없는 입주의 문제로 성향과 개인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을 때 경로당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유는 각자의 경제적인 재산과 경로당에서 화투치고 노는 것이 싫다고 하였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집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할 의향도 있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공용공간의 화장실은 세탁공간과 중첩된다. 아직까지는 한명의 거주자만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의 불편한 사항은 없으나, 후에 들어올 거주자들과 1개의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은 개인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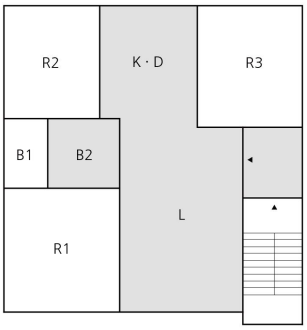
현재 노인의 집은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배리어프리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전 거주자는 화장실의 턱이 높아 발을 헛디뎌 변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또한, 같이 식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같은 노인세대보다는 다양한 세대를 만나거나 함께 거주하고 싶다고 하였다. 노인만 거주 할 경우, 서로가 도와주기에는 신체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툼의 문제를 걱정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세대와 거주하는 옵션이나 방문 서비스를 기대하였고 집수리, 말벗, 짐 들어주기 등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Collection @ uos

6) 노인의 집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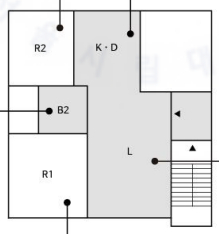
<표 3-13>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F

노인의 집-F				
Plan	현 황			
	위치	중랑구	규모	2층
	현 거주인원	여 74세		
		여 86세		
	공용공간	K, D, L, B2		
	개인공간	R1(B1), R2, R3		
	참고 : L-거실, D-식사공간, K-주방, B-화장실 및 욕실, R-개인방			
현 황				

· 냉장고, 옷장, 침대 등 시설의 공간필요

· 식사공간 협소

· 세탁기 소유문제



· 개인공간 부족으로 공용공간에 배치
· 공용공간 청소문제

· 개인공간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중랑구에 위치한 '노인의 집 F'는 개인침실 3개와 R1에서 사용하는 B1의 개인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있고, 공용공간으로는 공용화장실 1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거주인원은 2명이다.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인하여 개인침실에는 침실, 옷장, 냉장고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개인공간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용공간의 개인물품을 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세탁공간과 욕실공간의 중첩문제가 발생하고, 공용공간에 시설물을 두어도 소유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한다. 공간의 이용 상황은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노인의 집 F'은 거주자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공용 세탁의 이용과 커뮤니티의 활성 문제,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집 F'의 경우에는 개인공간으로는 침실이 구성되어 있고, R1에는 B1의 개인화장실로 구성되어있다. 개인공간은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구 및 시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개인공간의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같이 요리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다른 거주자와 반찬의 차이가 나는 것도 창피하고, 식사를 하면서 실수를 할까봐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로의 생활방식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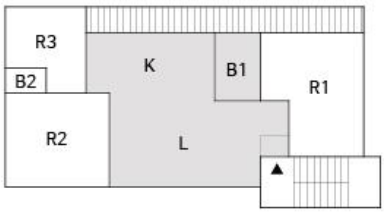
화장실 및 욕실의 사용문제로는 공용화장실과 개인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화장실 공간에 세탁기를 둠으로써 화장실과 세탁공간이 중첩되어 공간사용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공용화장실에 공용세탁을 배치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거주자는 세탁기가 공용화장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세탁사용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건조공간이 없으므로 개인공간에 건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햇볕이 잘 들고, 넓은 거실에 하고 싶지만 서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프라이버시로 인하여 개인공간에 건조를 하게되는 불편함을 드러났다.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을 때, 경로당 보다는 복지관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및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로당을 가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싫다고 하였다. 또한, 원하는 서비스의 질문에는 도와주는 사람과 집수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인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만남을 원한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7) 노인의 집 G

<표 3-14>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노인의 집 G

노인의 집-G				
Plan	현 황			
	위치	금천구	규모	2층
	현 거주인원	여 76세		
	공용공간	K, D, L, B2		
	개인공간	R1(B1), R2, R3		
	참고 : L-거실, D-식사공간, K-주방, B-화장실 및 욕실, R-개인방			
현 황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금천구에 위치한 '노인의 집 G'는 개인침실 3개와 개인 화장실 1개와 공용공간으로는 공용 거실과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거주인원은 총 1명이다. 거주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개인공간에 침대와 냉장고, TV등을 배치한다. R2에서 사용하는 B2의 개인화장실은 샤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샤워나 목욕하기 위해서는 공용화장실 B2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샤워보다는 목욕을 더 선호하는 노인들을 위해 B2공간처럼 간이 욕조를 두어 목욕을 할 수 있게 배치하였다. '노인의 집 G'도 따로 세탁공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욕실공간에 세탁공간을 중첩하여 사용한다. 공간의 이용 상황과 관련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노인의 집 G'에는 혼자거주하고 있으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공용공간과 커뮤니티의 활성 문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집 G'는 개인공간으로 침실이 구성되어 있고, R2에서 사용할 수 있는 B1의 개인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화장실에서는 샤워를 할 수 없는 크기이다. 그래서 공용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나, 다른 거주자가 입주할 때 화장실 사용의 문제로 걱정하였다. 그리고 샤워보다는 목욕을 더 선호하여, 공용화장실에 간이 욕조를 두었지만 후에 같이 써야 하는 상황으로 불편함을 나타냈다. 또한 예전에 같이 거주한 분은 치매가 있어 도난 사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같이 요리 및 식사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하였다. 처음 입주할 때,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다른 거주자와 생활시간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요양사가 있어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음에 입주하는 거주자는 건강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8) '노인의 집' 인터뷰 내용분석 및 공간문제 쟁점도출

'노인의 집'의 거주자 심층 인터뷰 후, 공통으로 발견된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크게 공간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누고 인터뷰 내용으로 공간구성상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노인의 집'의 개인공간으로는 침실을 제공하고, 때로는 1인 1실이 아닌 2인 1실의 경우가 있다. 화장실은 집의 구조에 따라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공간에서는 안전(Safety)과 가변성(Flexibility)의 관련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즉, 각자 다른 크기의 개인침실로 인한 문제와 개인 화장실의 유무로 인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공용공간으로는 거실과 부엌, 베란다와 3명이서 사용하는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따로 다용도실이 없기에 화장실 안에 세탁시설을 두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공용공간에서는 소통과 공유(Community)와 편의성(Amenity), 안전(Safety), 가변성(Flexibility)의 관련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즉, 공용 주방과 거실 및 식사공간에서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교류가 적고, 세탁공간의 부재로 화장실과 세탁공간의 중첩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입주자들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Collection @ uos

배리어프리를 생각하지 않아 화장실에서의 미끄러짐과 턱이 걸리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POE 질문 구성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5> 참조)

<표 3-15> '노인의 집'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POE 질문 \ 공간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침실	화장실 · 욕실	주방·식사 공간	거실	세탁 공간	화장실 · 욕실	노인 커뮤니티
종로구 A	Safety	○	-	○			○	-
	Amenity		-			○		-
	Flexibility	○	-	○			○	-
	Community		-	○	○			-
	Privacy	○	-					-
종로구 B	Safety	○	-					-
	Amenity		-			○		-
	Flexibility		-	○			○	-
	Community		-	○	○			-
	Privacy	○	-					-
종로구 C	Safety	○						-
	Amenity					○		-
	Flexibility		○	○				-
	Community			○	○			-
	Privacy							-
종로구 D	Safety	○	○				-	-
	Amenity					○	-	-
	Flexibility						-	-
	Community			○	○		-	-
	Privacy						-	-
구로구 E	Safety		-				○	-
	Amenity		-			○		-
	Flexibility		-				○	-
	Community		-	○	○			-
	Privacy		-					-
중랑구 F	Safety	○						-
	Amenity					○		-
	Flexibility	○						-
	Community			○	○			-
	Privacy							-
금천구 G	Safety							-
	Amenity					○		-
	Flexibility		○				○	-
	Community			○	○			-
	Privacy							-

○ : 문제 有, - : 공간 없음

Collection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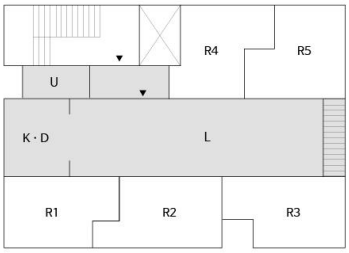
나. 보린두레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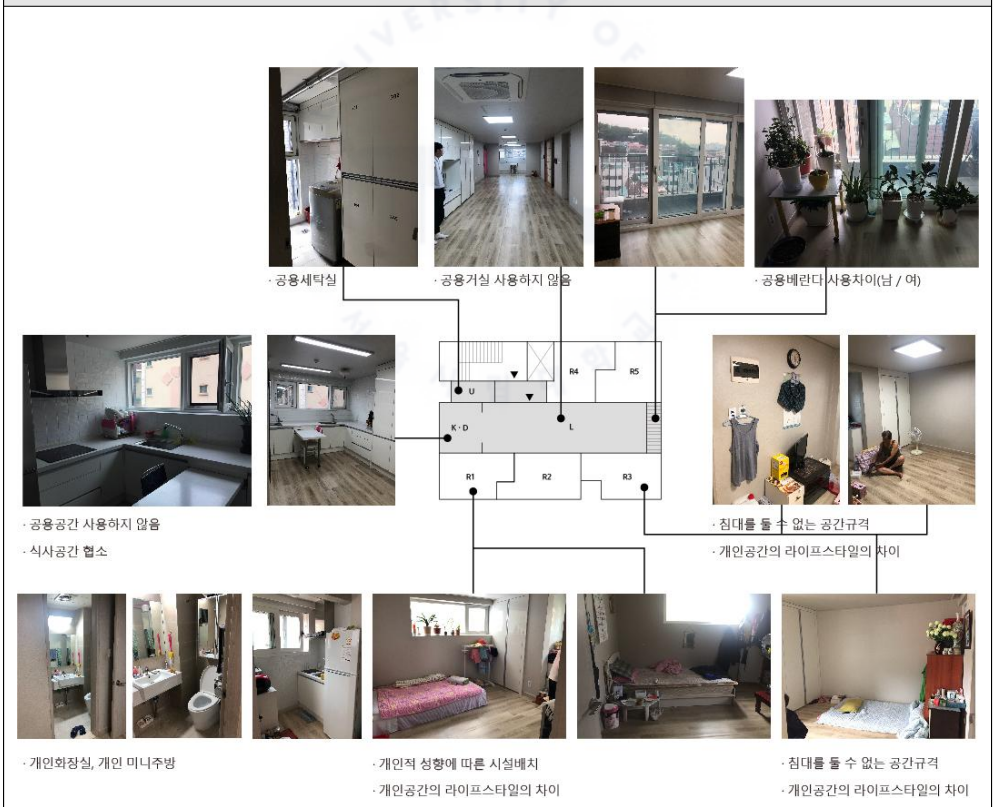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지하,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2013년도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금천구가 함께 추진하여 홀몸 어르신 맞춤형 보린주택 사업을 시행하였고, 보린주택은 홀몸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공공 원룸임대주택이다. 보린이란 어르신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일상을 공유하며 '이웃들끼리 서로 지킨다.'는 뜻을 가진다. 보린주택은 홀몸 어르신들이 소통하며 외로움을 해결하고 거주자들끼리 서로 돌보며 노노(老老)케어를 실현하고 있다. 보린주택은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주택으로 현재까지 금천구에는 총 4개의 주택이 있으며, 1호점 보린주택(16세대), 2호점 보린두레주택(10세대), 3호점 보린햇살(14세대), 4호점 보린함께(16세대) 총 56세대가 거주 할 수 있다. '보린(保隣)'의 개념에 맞게 1인 노인가구들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모든 주택에 계획하였다. 그리고 1호점, 3호점, 4호점은 맞춤형 원룸주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공용공간으로 다목적실, 옥상정원, 관리실이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호점 보린두레주택 같은 경우는 공유주택이고, 예전에 있던 금산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노인공유주택으로 바뀌었다. 지상 4층 규모로 1층 다목적실, 2층 경로당, 3층(여성)과 4층(남성)에는 어르신 공동생활 주거공간이다. 개인침실에는 미니주방과 화장실 등이 있고, 공용공간으로는 주방, 거실, 발코니, 세탁실, 옥상정원, 경로당,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 및 관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물주로서 통상의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입주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 자원 연계 및 복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업무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린두레주택의 공간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Collection @ uos

1) 보린두레주택

<표 3-16>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보린두레주택

보린두레주택				
Plan	현 황			
	위치	금천구	규모	2층
	현 거주인원	여 78세, 여 82세, 여 91세, 여		
		남 70대, 남 70, 남, 남		
	공용공간	K, D, L, B2		
	개인공간	R1(B1), R2, R3		
	참고 : L-거실, D-식사공간, K-주방, B-화장실 및 욕실, R-개인방			
현 황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금천구에 위치한 '보린두레주택'은 단일건물이 공유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다목적실, 2층에는 경로당, 3층과 4층에는 남자, 여자 공유주택이다. 3층과 4층의 유닛은 같다. 각자의 개인침실로 되어있고, 개인침실에는 미니주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있다. 공용공간으로는 거실, 주방, 세탁실, 베란다, 옥상정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인 주방이 있으므로 공용주방을 사용하는 횟수가 적고, 총 5명이 거주가 가능하나, 식사공간은 협소하다. 거실의 공간에는 운동기구와 충분한 크기이나, 거실에서는 함께 생활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옥상에는 텃밭이 있어,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거주자는 여성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화장실은 샤워만 할 수 있는 크기이고, 각각의 라이프스타일로 인하여 침대를 둘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 세탁실을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건조할 경우에는 개인침실에서 건조한다. 공간의 이용 상황과 관련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뷰 주요내용

'보린두레주택'의 경우에는 3층에 여자 4명과 4층에 남자 4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터뷰는 여자 3명, 남자 2명을 진행하였다. 거주자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개인공간의 문제와 커뮤니티의 시설 및 활성의 문제, 공용공간의 사용문제가 발견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린두레주택'의 개인공간은 면적은 거의 균일하다. 개인적 성향에 따른 가구 및 시설을 배치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붙박이장과 개인가구로 인하여 침대를 배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화장실의 크기의 불편함을 나타냈다. 노인들은 목욕을 더 선호하나, 보린두레주택의 개인 화장

Collection @ uos

실은 샤워만 할 수 있는 크기이므로 목욕하기에는 불편하다.

공용공간에서 거주자들과 같이 사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층의 거실에는 운동기구와 소파를 두고 있으며, 가끔 주방에서도 같이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남자 층의 거실에서는 서로가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안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는 다른 거주자와 자신의 반찬 차이로 창피하다는 것과 생활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반찬배달 서비스가 나오는데, 보린두레주택에서 관리자가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반찬배달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보린두레주택의 관리자의 역할은 공용공간의 청소와 거주자의 공과금 관리를 한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청소도 거실만 하지 베란다는 하지 않는다는 점과 장을 보거나, 짐을 들어줄 일이 생기면 관리자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거주자들 중 할아버지가 할머니들 장을 봐오면 직접 들어다 주고, 할머니가 반찬을 하면 도와준 할아버지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는 상황이었다.

세탁관련 질문에는 공용세탁실이 있어도 하나의 공간을 여러 거주자가 사용하다보니 불만이 나타나고, 소유의 문제로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건조공간은 거실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공간에 건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 관련된 질문에는 경로당을 가는 경우는 90세

Collection @ uos

이상의 어르신만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른 거주자들이 가지 않는 이유로, 경로당의 할머니들과 부딪히는 게 불편하고 경로당을 가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집에서 거주자들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였다. 예전에 할아버지 본인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었지만, 여자들만 있어 눈치가 보이고 이상하다고 하여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2) '보린두레주택' 인터뷰 내용분석 및 공간문제 쟁점도출

'보린두레주택'의 거주자 심층 인터뷰 후, 공통으로 발견된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크게 공간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누고 인터뷰 내용으로 공간구성상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보린두레주택'의 개인공간은 1인가구의 최소면적이고, 침실과 미니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 개인공간에서는 가변성(Flexibility)과 사생활(Privacy)의 관련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즉, 모든 거주자의 개인 침실의 크기는 비슷하나, 개인성향과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 및 시설 배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 화장실 및 욕실이 협소하여 샤워나 목욕하기에는 불편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공용공간으로는 거실, 주방, 세탁실, 베란다, 옥상으로 구성되어있고, 커뮤니티 시설인 경로당이 있다. 그러므로 공용공간에서는 소통과 공유(Community)와 편의성(Amenity)의 관련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즉, 공

Collection @ uos

용 주방과 거실 및 식사공간에서는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교류가 적다. 그리고 여자 거주자들은 조금이나마 커뮤니티가 있지만, 남자 거주자들은 술, 담배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들 간의 커뮤니티 교류가 부족하다. 공용 세탁공간이 있어도 세탁기의 사용문제와 소유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경로당)이 있어도, '보린두레주택'의 거주자들은 연세가 많은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POE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7> 참조)

<표 3-17> '보린두레주택'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POE 질문 \ 공간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침실	화장실 · 욕실	미니 주방	주방·식사 공간	거실	세탁 공간	노인 커뮤니티
A	Safety							
	Amenity						○	
	Flexibility	○	○					
	Community				○	○		○
	Privacy							
B	Safety							
	Amenity						○	
	Flexibility	○	○					
	Community				○	○		○
	Privacy	○						

○ : 문제 有, - : 공간 없음

Collection @ uos

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농촌)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설치목적을 지닌다.[31] 현재 농촌에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노인 공동생활의 소규모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독거노인끼리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주거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로 독거노인 공동생활 거주제,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경로홈 등으로 불리며,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라 지칭한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취지는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을 공동생활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작하였고,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1인 노인들에게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지자체에서 시설 개조 및 보조금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빈집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거주지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경로당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본 연구에서 지칭한 노인 공유주택과는 다른 차이를 나타낸다. 건물의 유형은 단층으로 되어있고, 개인공간이 1인 1실이 아닌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으로 구분되고, 때로는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공용공간으로는 화장실, 주방, 거실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용공간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에서 거주하는 1인 노인가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전부 사용가능하다. 농촌 노인들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생활문화가 남아 있어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보다 공동생활이 잘 유지된다.[32]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공간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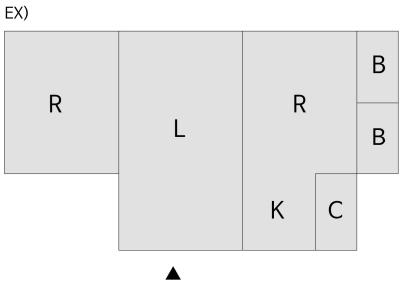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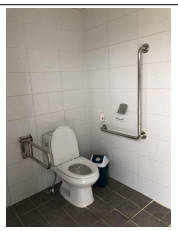
31) 노인복지법 제31조, 2011년 12월 8일 개정기준
32) 염혜실, 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쉐어하우스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pp.49

Collection @ uos

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농촌)

<표 3-18> 조사대상 공유주택 사례 :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Plan	현 황			
	위치	농촌	규모	1층
	현 거주인원	독거노인 8명		
	공용공간	K, D, L, R, B		
	개인공간	-		
	참고 : L-거실,K-주방, B-화장실 및 욕실, R-방, C-창고			

현 황					
구분	거실	주방	방	화장실	창고
A					
B					-
C					

Collection @ uos

(가) 공간구성

농촌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단일건물이고, 단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나, 개인공간은 없고 공용공간으로만 구성되어있다. 공용공간으로는 거실, 주방, 화장실, 방 1개이거나 방 2개로 되어있으며, 경로당을 사용하는 노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인침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8명이서 같이 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조를 정해서 자거나, 자고 싶은 사람만 잔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8명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밖에 있거나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나) 인터뷰 주요내용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에 거주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공용공간의 문제는 적었으나, 침대의 사용과 화장실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개인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낮에는 경로당 사람들과 다 같이 이용하지만, 밤에는 독거노인이 잠을 잘 때 사용한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어, 침대를 사용하고 싶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침대를 둘 수 없다는 불편함이 나타났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8명이서 같이 잠자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잠자는 순서를 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공간으로 침실을 따로 두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혼자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지만, 개인공간이 있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또한, 공용공간인 주방과 식사에 대한 질문에는 서로 번갈아 가며 식사를 준비하고, 당번을 정하여 청소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용공간의 사용문제나 거주자간의 친밀성관련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 경로당 사용자와 공간사용상 마차찰이 드러났다. 공용공간의 화장실 사용 질문에서는 불편함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과 같이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샤워 및 목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간의 규모도 작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다용도실의 공간이 있어 세탁기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경로당을 사용하는 분들과 같이 써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탁기 및 세탁공간 사용이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서 운영하기에 노인세대만 만난다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와서 도움을 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지만, 프로그램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다.

2)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인터뷰 내용분석 및 공간문제 쟁점도출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거주자 심층 인터뷰 후, 공통으로 발견된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공간이 없고 공용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 내용으로 공간구성상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개인공간이 없어, 거주자들은 개인침실도 원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공동생활시설을 사용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침대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공용공

Collection @ uos

간으로는 주방, 식사공간, 거실, 방, 화장실 및 욕실,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용공간에서는 사생활(Privacy)과 가변성(Flexibility), 소통과 공유(Community), 편의성(Amenity)의 관련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즉, 다른 공유주택과는 다르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의 문제는 없었으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들과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경로당 및 거주자 모두가 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함으로 화장실의 크기의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모든 공간이 공용공간임으로 개인적인 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POE 질문 구성으로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9> 참조)

<표 3-19>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POE 구성 \ 공간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침실	화장실 · 욕실	주방·식사 공간	거실	방	화장실 · 욕실	노인 커뮤니티
A	Safety	-	-					
	Amenity	-	-					
	Flexibility	-	-			○	○	
	Community	-	-	○	○			○
	Privacy	-	-		○	○		
B	Safety	-	-					
	Amenity	-	-				○	
	Flexibility	-	-			○	○	
	Community	-	-					
	Privacy	-	-		○	○		
C	Safety	-	-				○	
	Amenity	-	-				○	
	Flexibility	-	-			○	○	
	Community	-	-		○			
	Privacy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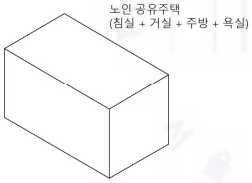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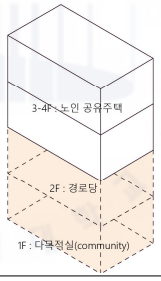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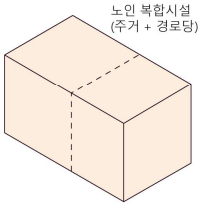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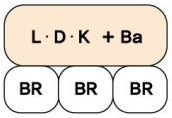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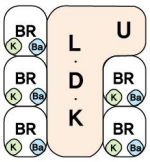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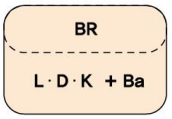
○ : 문제 有, - : 공간 없음

Collection @ uos

3. 공공 노인 공유주택 사례 종합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집’과 ‘두레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주거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집’은 단일 건물이 아닌, 개별공유주택으로 구성되어있다. ‘두레주택’은 단일 건물로 1층부터 4층까지 공유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2층은 커뮤니티 시설, 3층~4층은 거주공간이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경로당과 주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다. (<표 3-20> 참조)

<표 3-20> 국내 공유주택 사례

공공 노인 공유주택 사례 종합			
구 분	노인의 집	보린두레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현 황			
평 면 다이어그램			
거주인원	한 세대에 2-3명	10명	5-10명

또한, 국내 공유주택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노인의 집’, ‘보린두레주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공간문제를 종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표 3-21> 참조)

Collection @ uos

가. 개인공간

‘노인의 집’의 개인공간은 침실을 제공하나, 때로는 1인 1실이 아닌 2인 1실의 경우가 있다. 화장실은 집의 구조에 따라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개인공간에 개인성향의 라이프스타일로 가구 및 시설을 배치하나 개인공간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린두레주택’의 개인공간은 1인가구의 최소면적이고, 침실과 미니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있다. 개인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아 특별한 불편함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인화장실의 크기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개인공간이 없어, 개인공간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두 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공통으로 발견된 것은 개인침실과 개인 화장실의 관련된 가변성(Flexibility)의 문제이고, 개인성향의 라이프스타일 차이로 인한 개인공간의 불편함과 화장실의 이용 문제가 나타난다.

나. 공용공간

‘노인의 집’의 공용공간으로는 거실과 부엌, 베란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따로 다용도실이 없기에 화장실 안에 세탁시설을 두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공용화장실은 3명에서 1개의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나타난다. 또한, 주방을 공유하지만 서로의 생활방식 차이 및 다툼으로 인하여 공용주방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린두레주택’의 공용공간으로는 거실, 주방, 세탁실, 베란다, 옥상으로

Collection @ uos

구성되어있고, 커뮤니티 시설인 경로당이 있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개인공간에 미니주방이 있으므로 공용공간인 거실과 주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탁공간에서는 거주자 5명이 한 대의 세탁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다. 건조공간을 따로 있지는 않지만, 공용공간에서 이용하기에는 프라이버시로 인하여 개인공간에서 건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개인공간이 없고, 모든 생활을 공용공간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8명의 인원수가 한 곳에서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잠자리의 불편함과 화장실의 사용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편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과 달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의 활성은 잘 되어 있으나, 단순히 경로당만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들과는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두 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공통으로 발견된 것은 공용공간의 이용과 소통과 공유(Community)와 세탁공간의 가변성(Amenity)의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 즉, 공용공간에서의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 의식 부재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노인 공유주택의 주된 목적은 1인 노인가구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서로 소통하고, 거주비용을 해결하여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에서는 커뮤니티 교류가 부족한 현실을 볼 수 있었고, 커뮤니티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용공간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거주자 간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공간계획 및 유인요소가 부족하다.

Collection @ uos

또한, ‘보린두레주택’에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시설을 두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주자는 극소수이고, 인식도 좋지 않았다. ‘노인의 집’의 거주자도 경로당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간 사용현황과 인터뷰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문제는 첫 번째, 화장실과 욕실의 문제, 두 번째 거실과 주방, 식사공간의 문제, 세 번째로 세탁실의 문제, 네 번째로는 경로당 및 커뮤니티시설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21> 공공 국내 공유주택 사례 거주자 인터뷰 상 공간문제

POE 구성 \ 공간구성		개인공간		공용공간				
		침실	화장실 · 욕실	주방·식사 공간	거실	세탁 공간	화장실 · 욕실	노인 커뮤니티
노인의 집	Safety	●	●	●			●	–
	Amenity					●		–
	Flexibility	●	●	●			●	–
	Community			●	●			–
	Privacy	●						–
보린두레 주택	Safety						–	●
	Amenity					●	–	
	Flexibility	●	●				–	
	Community			●	●		–	●
	Privacy	●					–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	Safety	–	–					
	Amenity	–	–				●	
	Flexibility	–	–			●	●	
	Community	–	–					●
	Privacy	–	–		●	●		

● : 문제 有, – : 공간 없음

Collection @ uos

제 4장 국내 공공 노인 공유주택 사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앞의 장에서는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공간구성과 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공간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인터뷰를 통해 많이 언급된 노인 공유주택의 공간상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제 1절 화장실 및 욕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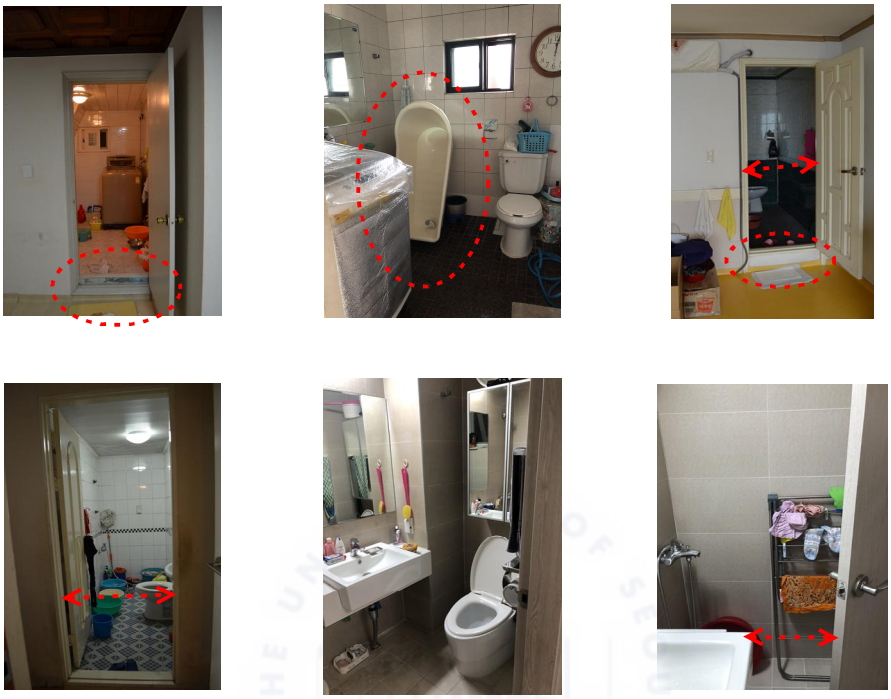
화장실 및 욕실공간은 거주환경에서 필수적인 공간이자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이다. 특히 개인이 아닌 공유형의 화장실 및 욕실공간은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함으로 쾌적한 환경과 면적 및 공간구성에 따른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거주자 심층인터뷰 결과, 화장실 및 욕실공간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그림 4-1> 참고) 방 3개, 화장실 1개의 일반적인 가족단위 주택을 노인 공유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함 발생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 간의 갈등 발생한다.

"아이고 왜 안 불편해. 이 양반이 들어가면 몇 시간 있어, 그래서 우린 죽겠는 거야."

"혼자 쓰면 좋지만...어쩔 수 없잖아. ····· 불편해도 살아야 돼."

Collection @ uos

<그림 4-1> 조사대상 화장실 사용현황



현재 노인공유주택은 배리어프리 계획이 되지 않은 주택이기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주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였다.

"먼저 살던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뇌진탕 돼서 죽었어. (턱이 높아서요?) 응. 여기가 좀 불편해. 높아서. ·····그래가지고 죽은거야. 그래서 나는 조심조심 하는 거지 발을 헛딛었어."

노인들은 샤워보다는 목욕을 더 선호하나, 현 공유주택에서는 목욕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라, 집에서는 목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주자가 대다수이다.

"좁지. 나 샤워를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 목욕탕에서. 거기가면 편안하잖아."

Collection @ uos

“화장실 좁지. 공동화장실 할 수 있나?”

노인들 대부분은 욕조 필요성 강조하고 없을 시에는 휴대용 욕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욕조 사용으로 인한 공간 활용의 문제점과 휴대용 욕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예상된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기에 화장실을 겸한 욕실의 구성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목욕을 하는 여건조성이 불가능하다.

“불편하지. 좁지. ... 난 내 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안 사용하지. 거실에 있는 거 사용하면, 난리치지. 샤워할 때 같이 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난 안가. 그럼 내가 청소 다 해야 해.”

“공용으로 있으면 거북하지. 그런거 청소 일부러 누가 해.”

또한, 공유주택에서 공용 화장실과 욕조의 유지관리를 개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유주택의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안 되거나 이에 대한 책임 문제로 거주자 간의 갈등 발생한다.

화장실 및 욕실공간의 개선방향으로는 개별 방마다 화장실을 설치하여, 청소 및 관리로 인한 거주자 간의 문제를 피하고 독립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거주자나 좁은 화장실에서 샤워할 수 없는 거주 노인들을 위한 공용목욕탕은 노인공유주택의 공동체 필수시설이다. 공동목욕탕을 계획하여 노인들의 휴식 및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동목욕탕에서 함께 목욕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이 유도되도록 해야 한다.

Collection @ uos

제 2절 주방 및 식사공간

노인 공유주택에서 거실과 주방, 식사공간은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형성에 필요한 공간요소이다. 거주인원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일상생활 및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환경이 중요하다. 또한, 주방은 공동으로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규모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주인원에 맞추어 적절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거주자 심층인터뷰 결과, 거실, 주방, 식사공간의 사용문제와 커뮤니티의식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림 4-2> 참조) 국내 노인 공유주택의 경우에는 개인적 성향과 생활사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한 입주로 인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나 신체적 조건, 생활사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 발생한다. 또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식사를 같이하며 '식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의 차이로 인하여 같이 식사 및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일부 노인공유주택에서는 방마다 개인 주방이 설치되어 있어 커뮤니티 형성의 걸림돌로 작동한다.

"혼자 해먹지. 각자 해먹지. 그 사람이 반찬 잘해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하면 부담스럽고 그렇잖아"

"처음에 같이 살라고 가라고 했을 때… 나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어울려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저 양반은 간병인이라 먹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들 아픈 사람으로 해달라고 했어. 들 아픈 사람이 와야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잖아."

Collection @ uos

“혼자 해먹지…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 나 혼자 여기서 먹는 거지 뭐. 쓸쓸해도 할 수 없지”

“내가 밥을 먹으면 흘려…(다른 할머니가)같이 먹자고 했는데.. 내가 반찬도 없고 뭐도 없어서 혼자 먹지.”

<그림 4-2> 조사대상 주방 사용현황

일부 공유주택에서는 방마다 개인 주방을 마련함으로써, 공용 주방공간과 식사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공간배분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공간과 식사공간이 협소해지는 공간 효율의 문제를 초래한다. 주방 및 식사공간의 개선을 위해, 개인 방마다 미니 주방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함께 조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용 주방과 공용 식사공간(Common Dining)의 설치가 필요하다. 공용주방과 공용식당 공간을 통해 거주하는 노인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개별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안별 보관소를 설치해야한다.

Collection @ uos

제 3절 세탁공간

노인 공유주택의 특성상 모든 거주자가 이용하는 세탁실은 소음문제와 사용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해야한다. 또한, 거주자의 사용을 위해 세탁공간은 따로 확보해야하고, 세탁시설의 충분한 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집'과 '보린두레주택'의 거주자 심층인터뷰 결과, 세탁공간의 사용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림 4-3> 참조) 현재 노인 공유주택에서는 별도의 공간부재로 세탁기 설치 공간과 욕실 및 다용도실 공간이 중첩됨으로써 공간사용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세탁시설의 개수부족으로 인하여 거주자들 간의 불편함이 나타났다.

"세탁실이 있거든. 불편하지 하나 가지고 여러 집이 다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누가 하고 있으면 못하거든…"

"부족하지요. 그니까 교대로 하고,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

<그림 4-3> 조사대상 세탁공간 사용현황

Collection @ uos

또한, 세탁시설의 개인소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세탁기 사용의 문제로 일상 생활상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리고 세탁기가 공동소유가 아니 개인 소유로 커뮤니티 내의 갈등이 발생한다.

"혼자니까 손빨래 하고 널지 뭐…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남 주기 싫은 놈이 저기다 가져다 놔서 세탁기를 다 같이 써야 한단 말이야. 주인놈이 지저분하게 쓰면 뭐라고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치우라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야 "

"(세탁기 있음)저 양반꺼여. 난 손으로 빨고 딸이 와서 빨아주고 해. 저 사람꺼니까 내가 손 안대..하라고 하지만 안 해. 저 할머니가 자기꺼래."

건조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개인침실에 빨래를 건조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개인공간 사용상의 불편함이 나타났다. 세탁공간의 개선을 위해 모든 거주자가 함께 쓸 수 있는 충분한 세탁기 개수가 필요하다. 공간의 효율성과 여러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 가능한 공동세탁장 운영이(Common laundry)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세탁공간에서도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잠시 앉아서 기다리거나 빨래를 정리하는 테이블, 의자 등 다양한 시설을 구성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해야한다.

Collection @ uos

제 4절 노인 커뮤니티 공간

노인 커뮤니티 공간인 경로당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계획하여 현재 공유주택 저층에 설치되었으나, 경로당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많은 노인이 비선호 공간으로 여기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고령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경로당 회비비용 문제로 빈곤노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그리고 소수인 남성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내가 가입은 해놓고, 경로당을 한 번도 안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노인정 할머니들 골머리 아프고 싫고, 처음에는 몇 번 나갔는데, 1년 넘게 안 나갔어."

"나는 경로당이 싫어요. 내가 늙은 것도 죽겄는데 또 가서 노인들만 보는 게 싫어요."

"복지관은 가지. 경로당은 안가. 내가 못살아서… 내가 어렸을 땐 잘 컸는데, 이렇게 못사니깐….자존심 있어가지고 경로당 가기 싫어"

또한,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경로당은 커뮤니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경로당을 가지 않는 많은 노인은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프로그램 위주의 수업을 하는 복지관을 선호한다.

"경로당 안가 평일 날은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하고 시간 보내고

Collection @ uos

오지. 경로당 사람들이 거기는 동네에서 좀 돈이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모여 사는 게 경로당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싫어해. 돈 안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몇 십 만원 씩 내.”

“여기 남자들은 동사무소에서 그런거 와서 내려오라고 하면 이것들이 안 내려가, 나는 맨날 나 혼자만 내려 가는거야. 여자들이랑만 어울리다 보니깐 나도 이상해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안 내려가. 뭐 오면 여자들이랑 하려니까 뭔가 이상하고 하니까…”

모든 노인들은 노인 위주의 공간보다는 다양한 세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담소와 배움, 경험을 얻고 싶다고 하였다. 노인 커뮤니티 공간의 개선방향으로는 기존 경로당이 노인을 위한 공간이라 계획하였지만, 기존의 아무런 기능적 고려 없이 노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경로당 대신, 다목적실이 필요하다. 즉, ‘생일파티’, ‘종교모임’, ‘가족모임’, ‘취미활동’, ‘소일거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소규모 인원을 위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계획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거주자와 다른 세대의 만남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Collection @ uos

제 5장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사회와 가족의 해체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1인 노인가구 수의 증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 노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령자 맞춤형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1인 노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의 주거유형을 공급하고 있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에서는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형 노인주택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노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유형으로도 정의 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보린두레주택, 노인의 집, 그리고 노인공동생활시설(농촌) 등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고, 공동생활하는 1인 노인가구의 공유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주택에서 거주자의 거주경험을 조사하여 노인 공유주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거주자들의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현장 서베이 형식의 거주 후 평가(POE)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입주 전 거주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생활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원하는 거주형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 공유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인 개인생활방식이나 신체적 수준에 대한 사전조율 없이 순차적 입주가 진행되었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공간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입주 전 거주자들의 성향과 생활방식 등의 사전조사를 하여

Collection @ uos

입주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실, 식당 겸 주방, 화장실 2개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개인 공간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용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거주 후 평가(POE) 결과, 공통적으로 Safety(안전), Flexibility (가변성), Amenity(편의성), Community(소통과 공유)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공간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개인공간에서는 안전(Safety)과 가변성(Flexibility)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간에서는 소통과 공유(Community)와 편의성(Amenity)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주거 내에서의 거주자 안전을 위한 계획이 필수적이고, 라이프스타일과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의 구성과 거실과 주방, 세탁공간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모든 거주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공유주택은 비 혈연관계가 모인 주거이므로 공동생활이 잘 유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서로 간의 커뮤니티가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 활성을 위해 공유주택에서의 커뮤니티 의식을 유도할 프로그램 및 규칙이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 공유주택에서의 거주자간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수 커뮤니티 시설의 방향을 제안하여,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 공유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용공간의 화장실 및 욕실공간, 주방 및 식사공간, 세탁공간의 커뮤니티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방마다 화장실을 설치하여 거주자 간의 마찰을 피하고, 독립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공용욕실을 둠으로써 함께 목욕하고

Collection @ uos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거주자끼리 함께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Common Dining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세탁장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필수 커뮤니티시설의 설치를 제안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주자 간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공동생활 거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인 공유주택에서의 거주자들은 같은 세대보다, 다양한 세대의 만남을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 공유주택 저층에 설치된 경로당은 거주자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과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지만,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경로당은 커뮤니티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노인 위주의 공간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수업과 다양한 세대를 만날 수 있는 복지관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대신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의 설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공유주택의 이론적인 계획에 따른 현재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부합여부와 공간의 사용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거주자 대상 인터뷰 분석 후,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공유주택에서 필수적인 커뮤니티시설의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현재 공공에서 확산하고 있는 노인 공유주택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 이

Collection @ uos

러한 연구결과는 노인 공유주택을 계획하는데 있어, 기존의 이론적인 자료를 넘어 거주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간의 설치와 이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공공 노인 공유주택과는 다른 맥락에서 노인을 위한 민간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용실태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양한 해외의 노인 공유주택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인 공유주택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1인 노인가구의 공유주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들어 선 우리나라 노인주택 전반에 적용가능한 방향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대안적 노인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Collection @ uos

참고문헌

학위논문 및 학술지

- 염혜실, 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개발을 위한 탐색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주현진 외 1, 2015, 일본의 시니어 쉐어하우스 공간배치 및 면적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2)
- 나성은, 2017, 사회적 약자를 위한 테마형 쉐어하우스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희경, 2013,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외 2, 2013,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주거 도입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2015,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아세아연구, 58(3)
- 최지선, 2015, 공급자 관점에서 본 시니어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찬욱, 2008,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 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3), pp.59-70
- 황지혜, 2010 건강을 도모하는 기숙사형 노인주거대안연구,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0(2), pp.317-322
- 유병선 외 1, 2005,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pp.27-38

Collection @ uos

- 이서현, 2018, 빈곤한 독거노인의 헌법상 주거권 실현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명진, 2016, 생산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홀몸노인 콜렉티브 하우스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석사학위논문
- 차재훈, 2013, 도심 속 노인 공동체 생활의 공간 계획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6,「노인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 본 도시지역 저소득 도거노인의 주거안정 개입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경북대학교, 보건사회연구, 36(4), pp.187-220
- 곽인숙, 2009, 노인의 주택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pp.55-66
- 주현진, 2014, 노인주거대안으로 시니어 쉐어하우스의 공간구성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67-172

연구보고서

- 정경희 외 10,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정유승 외 11, 2017, 함께 살아 좋은 집 공동체주택 매뉴얼 북 자가소유형, 서울시,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용역연구보고서,
- 남원석 외 1, 2014,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 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 주택 활성화,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 남원석 외 1, 2016, 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SH공사의 범용모델 개발연구, SH공사
- 이재훈 외 6, 2008, 미래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주택건설 방안연구, 국토해양부 한국주거학회, 용역연구보고서

Collection @ uos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Collection @ uos

부 록

A - '노인의 집' 거주자 인터뷰

1) 노인의 집 A

(가) 노인 1

- *여/ 84*
- *한 10년 됐어요.*
- *예, 저게 원래는 구청에서 준 집에서 살았어요. 전세방 있는거 빼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 썼어요. 다리수술하고, 많은 돈을 다 쓰고 그만 복지관에서 병원에 있으니깐 갈 때 없다니깐 복지관에서 방 준다니까 가있으라고 했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이 또 구청에서 집 주인이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 노인들을 줄 수가 없으니깐 나가라고 하니깐 보낼 때가 없으니깐 이리로 이사 왔어요. 두 번 이사했어요.*
- *예 해줬어요. 저기 내방에 (빨간 의자 목욕탕의자)*
- *필요한게.. 방이 너무 겨울이 되면 차가워요. 불이 들어 가는게 선찮아요. 또 이 방은 너무 뜨거워서 난리 났고 내방은 너무 추운게 겨울에는 그래요.*
- *이 집에서는 안 다쳤죠. 저, 119를 부르면 병원으로 데려다줘요.*
- *모르지 뭐,*
- *(문고리) 저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스르르 열렸다 스르르 닫혀, 새로 바꿔야해.*
- *옛날엔 몰랐지만, 이제는 두사람 성격도 알고 다알아요.*
- *그거는 저기서 구청에다 전화해 이야기를 해, 민원을 넣어, 뭐가 망가졌다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그래서 와요.*
- *부족하지요, (셋 다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 그니까 교대 교대로 하고,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한집에 세탁실과 건조실이 있으*

Collection @ uos

면 좋겠어요?) - 그러면 좋죠.

- 디지털로 하는 게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키가 좋죠. 우리 둘은 아는데 여기는 몰라, 123을 모르니까., 평지로 이사가고 싶은데..

- 적어, 넓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하냐?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저긴 좁아서 안돼. 냉장고를 방에 넣었으면 좋겠어. - 아니요 다 개인거야. 다 자기 방에다가 넣었어. 방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혹시라도 없어지는 게 있어, 별난 음식이 있으면 가져다가 먹지 사람들이, 이집이 가져다 먹어. 정신이 없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 아이고 왜 안 불편해요. 이 양반이 들어가면 몇 시간이 있어, 그래서 우린 죽겠는 거야.

- 아이고 물론이죠. 근데, 같이 사니깐 냉장고만은 자기 방으로 들어 가야해. 밖에 내놓으니깐 내가 이 사람들 안 먹는거 먹을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손을 댈 수 있다고.

- 가족이 없으니깐 나갈 때도 없고, 난 그래요.

-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왜요?) 와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깐 .. 도와주면 좋죠. 친구가 없어요. 혼자니까요.

- 혜화동 , 동대문 쪽에 있어요. (가까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 몇이나 된다고. 점심은 해결해주고, (식사를 해결해주는 시설이 집 근처면 좋겠다는 거예요?) - 아 물론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예전에 자주 갔는데 다리가 다쳐서 못가요. 이 양반은 눈만 뜨면 나가요. 나같은 사람은 차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어요. (교회나 성당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 성당 가요, 차가 와요.

- 나간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가요?) - 보호자가 있으니깐, 나가라고 했어요. 딸이 잘먹고 잘살던지, 할머니 보양할만한 자식이 있으면 나가죠. 그런 사람들은 나가야해요

- 안오고 안가요. (교류를 안 한다는거예요?) - 잘 안해요

- 식사 같은거 준다면 내려오지 꼭 안내려와요.

- 난 티비보고 책이나 가끔씩 보고 그래요.

Collection @ uos

- 음, 그런거는 병원에 입원하고 , 2달 있다 보니깐 방안에 쌀이 없어졌더라고. 가루비누 없어졌더라고 저 방 여자야. 그래서 딴 데로 돌려, 난 봤어요. 가져가는거, 내놓으라니깐 안내놔 . 이렇게 많이 아픈사람은 도우미가 와요 3시간, 월화수목토요일까지 와요, 일요일에만 안와요.

- 빨래 하는거 도와주고, 국 끓여주고, 파출부예요 그거예요. 그사람이 치매가 있으니 그 사람이 와요.

- 이부자리가 다 해졌어. 다 얇아져서,,, 가서 만져보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줘야하고, 색깔이 똑같이 줘야해요. 이게 이쁜데, 왜 다르게 줬냐 해요.

- 같이 티비보고 떠들고 해요.

- 뭐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거냐면, 나는 온지가 10년이나 되었는데, 방이 조그맣고, 내 몸에는 당치가 않아. 이 집은 얼마나 더워 죽겠어. 나는 불이 안 들어와서 차가워 죽겠어. 다툴 수가 없어. 나만 속이 상하고, 안 바꿔줘요. 큰 거 쓴 사람이 안 바꿔줘요. 안줘요. 나는 이방으로 이사 올 때 들어가려고 했어 90먹은 할머니하고 이사왔는데 90할머니가 '야 나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안에 죽을 테니까 이 방에서 살래' 그러니깐 난 알겠다고 하고 이 작은방으로 갔지.

- 이 양반은 85, 난 84, 81 다 고령이야. 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 그때 처음 만들었어, 그런데 이 집이 아마 주인이 팔았나봐, 구청에서 샀어, 구청에서 사서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노인들한테 집을 줬어.

- 쓰레기를 자꾸 주워와. (침대 옆 손잡이) 난 이런 장치가 되어있어, 그래서 난 이거잡고 일어나.

- 나는 아주 운동장처럼 쓰는 사람이잖아. 이게 돈의 차이가 있어야 하잖아. 모든 게 다 똑같아. 우리가 전기세 물세 가스비 다 나눠서 해. 난방 안 돼요.

- 저녁에는 여기(거실) 나와서 앉아있어. 따뜻해서. 내방은 너무 추워요.

Collection @ uos

(나) 노인 2

- 여/ 85이야.

- 1년 반 됐어요. 온지 얼마 안됐어.

- 이게 남의 집 살면, 전세도 올리라고 그러고 돈이 없지, 구청으로 댕기면서 힘들게 왔어.

(할머니가 직접 알아보고 오신거예요?) - 그럼요. 성당에 댕기는 우리 대모가 3층에 살았어, 돌아가셨는데 여기오면 괜찮다고 돈도 안 가져와도 되고, 자식도 없고.. 그 방이 비어있어서 들어왔지.

- 괜찮아. 의자도 필요치 않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의자 있어. 그 사람들은 앉아서 세수 하더라고 (빨간의자)

- 집에서 다친 적 없는데, (화장실 안미끄러워요?) 여기 안 미끄럽게 뭐 했어. 그래서 좋아 - 피하기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던가 해야지 뭐. 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문간방에 있는 사람은 큰일이야 맨날 문을 잠그고 있어. 금방 들어왔다가 그래서 잠그더라고

- 그걸 왜 잠거? 상관없어. (개인 방) 밤에는 잘 잠그지만, 낮에는 잘 안 잠거

- 집 수리 해주는거 있으면 좋지. 말벗도 해주면 좋지. 근데 여기 뭐 불편한거 없어. 근데 뭐 고장나서 이런거 와서 해주면 좋지. (밥 차려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필요없어. 직접 하는게 좋아.

- 세탁기가 하지. 안 좁아요. 베란다에 하면 해가 잘 들어서 저 집이하면 그다음은 내가하고, 빨래하는 거에 불편하진 않아요. 넓게 해도 넓혀질 수가 없잖아. 돌아가면서 하니까 빨래 잘 말라요 여기.

- 방에 해주면 좋지. 열쇠는 잃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저기다가 걸어놓지만,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비싸잖아 그거. (임대아파트 할머니들은 불편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번호 누르는게..)그렇지. 그걸 써놓고 댕겨야되. 지갑에 넣고 댕겨야해.

- 괜찮아. 이거 하나면 됐지 뭐. 여긴 겨울에도 따뜻해요.

-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쓰면 좋지만. 어쩔 수 없잖아. 4층엔 2개야 근데

Collection @ uos

여기는 할 수가 없어. 불편해도 살아야되.. 더 할 수가 없잖아.
- 같이 살면 안 되지. 여기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왔지. 둘이 있는다고 하면 못오지.
- 그게 더 좋다. 좋지. 좋은데 집을 또 어떻게 옮겨. 요기 어디 있으면 나간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듣는 것도 많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야기해주고, 그게 좋지. 노인네보다 낫지. 이야기도 해주고, 텔레비 봐도 뭔지 이야기 해주고, 글씨도 읽어주고. 근데 어렵지? 근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랑 있기 싫어할 텐데..?
- 지도 힘들고 해서 안와, 잠시 왔다 가는 건 되지. 나쁘지 않지. 좋지. 근데 딸은 안와. 지들도 바빠서.
- 사람들이 없는데 한 건물 내에 있으면 누가 오겠어. (가깝게 있으면요?) 그럼 좋지. 근데 난 차가 와. 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못가지 차가 와서 고맙지. 복지관에 있는게 제일 편해. 거기서 놀고 점심에 밥먹고 집에 오는게 싫어.
- 도우미가 와서 해. 저 방에는 화장실 청소하고, 문간방에는 마루청소하고, 둘이 매일 오거든. 응 없어. 나는 내방만 하면 되
- 여기 있어 (뒤에) 4층 할머니가 조금 주더라고 심어 먹으라고. 여름에 상추도 심어놨어. 여기 텃밭 작어. 그래도 거기서 4집에서 해 컸으면 좋지만.. 마당이 넓지, 마당이 넓어도 텃밭이 그럴 순 없지. 정자같은거 있으면 좋아.
- 여기서 들어와서 살다가 나간사람? 좋은데 왜나가 돈이 있어야 나가지. 아니 여기서 사는게 좋아. 나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있다는게 괜찮지. 혼자살면 좀 외롭잖아. 사람이 있으면 아 집안에 사람이 있잖아.
- 드러눕다가, 저녁때 되면 밥해먹고 빨래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고,
- 혼자 해먹지, 저기는 저기대로 먹고 나는 나대로 먹고. 싫은가보더라고, 처음에 이사 왔을 적에 우리 같이 밥해먹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 전기밥솥은 하나씩 있으니까.. 찌개 끓여서 나혼자 여기서 먹는거지 뭐. 쓸쓸

Collection @ uos

해도 할 수 없지 뭐. 없는데..

- 간섭하는거 없고, 자기는 자기대로 지는 지는대로.

- 낮에 잘 잠그고 다니니깐 그런 적 없어. 한집에서 그러면 못살아.

- 안 펴. 3층은 펴서 오늘아침에도 싸웠어. 와장창 다했어. 나는 왜 그러나 했어. 근데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 원인은 담배 때문에 그런건데. 오늘아침은 굉장했어. 둘이 같이 쓰면 안되겠던데. 위층 할머니가 귀가 먹었어 그래서 티비소리가 너무커 그래서 저번에 올라가서 말했어 어르신 소리가 너무커 그 뒤로는 소리가 줄었어. 근데 그 집이 담배를 그렇게 펴 현관에 갔는데 담배냄새가 너무 나. 담배냄새 너무나요 담배좀 그만 펴. 라고 말했어.

- 불편하지. 서로 맞지 않아도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지. 부모자식간도 안 맞으면 다투잖아. 별거 아닌거 가지고 이쪽 할머니가 그랬어. 한 참 있다가 화해했어. 지금은 잘지내요.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성당을 다니거든, 소파를 내가 얻어 온 건데. 그때는 의자도 놓고 지저분했어. '신부님 오니깐 어르신 가루비누 한쪽에 두고, 깨끗하게 해요 신부님 오니깐' 그랬더니 터진거야. 화내는거야 왜 내물건을 이리놔라 저리놔라 하느냐고 하는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랬지 오늘 하루만 신부님 오면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신부님들도 노인네들이 깨끗하게 사는구나 할거아니야' 우리가 성당을 못가니깐 방문으로 오는거야. 그거가지고 이리놔라 저리놔라 하는거야 난 그런 줄도 몰랐어. 화난 줄 몰랐어.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말했는데, 화가났나봐. 나중엔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나중엔 남남끼리 사는 거니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했어. 물 주전자를 방문 앞에 가져다 놓은거야. 밤에 화장실 가려니깐 큰 주전자가 있는거야. 화장실에 갔다오니깐 또 없고, 복지관을 갔다 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주전자 때문에 넘어질까봐 자기가 치웠다고. 그래서 내가 보라고 한집에 살면 좋게 살면 되는데 왜그러냐고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니 그러고 나선 잘 지내. 주전자를 방문 앞에 두면 어떻게 되는거야. 심통이 사나와서 그런거야. 그게 텃세야.

Collection @ uos

근데 문간방에 있는 할매는 안그래. 근데 자꾸 내가 뭐 주니깐 잘 지내. 요새 같으면 괜찮아.

- 저쪽방은 나랑 같이 보는데 문간방 사람은 밤에 혼자 나와서봐 . 낮에도 같이 나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나와. 문앞에 가져다 줘야지만 먹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 9시 돼서 들어가면 문간방 사람 그때 돼서 나와. tv를 봐. 산이 좋아나 전쟁 싸움 봐. 막 싸움하고 총질하고 그런걸 좋아해. 우리같이 연속극이나 노래부르는거 보는데 이리나와 같이보게 이러면 안나와.

- 문간방 사람은 안나와. 다 앉아서 같이 놀면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들어가버려. 사람이랑 대화하는게 싫은가봐. 뭐 주면 갖고 얼릉 들어가. 다들 아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 거실 티비가 원래 저 할머니껀데 방에 놓지말고 거실에 두라고 해서, 여기다 뒀어. 방에 기도해야하는데 기도 못한다고. 아무튼 밤에 나와서 혼자봐. 뭐 주워가지고 들어와. 치매지?

- 같이 해먹는거? 그런거 좋지. 근데 바쁜데 누가 와서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어딨어. 각자 각자해. 각자 들어가서 먹고. 저할머니는 밤에 혼자 가스불 키고 해. 자기는 누가 있을 때 하는걸 싫어하는거야. 우리 없을 때 하는거야.

- 글쎄 그니까, 다른 할머니랑 성당에 갔었어. 근데 계란을 대피다가 계란을 삶았는데 연기가 났데. 그래서 4층에서 놀래서 내려왔는데 그 할머니는 태평해. 혼자 연기가 났는데 문도 안 열어놨데. 불날 뻔했어. 큰일날 뻔했지. 우리가 쓰지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가스불은 밤에만 써 우리가 있는 낮에는 안 써. 도우미아줌마가 와도 그 사람이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어. 방도 냄새가 나서 못들어가. 도우미가 오면 그 방도 청소해줘야하잖아. 근데 그 아줌마도 청소를 안해줘. 내가 깨끗하게 하라고 말을 못하잖아. 내 방이 아니니까. 말도 못하게 더러워. 냄새나 냄새. 내가 머리 감겨준다고 해도 안한데.

- 여기는 시장이 없어. 배달시켜서 와요. 야채차가 한번씩 이쪽으로와

임대아파트는 한사람씩 들어가서 살잖아. 근데 그건 안돼. 남편이 없던가 마누라가 없던가. 자식만 데리고 사는거.. 모녀가정. 그런 가족들이 임대아

Collection @ uos

파트 우선권으로 되는데, 나는 혼자기 때문에 안 된데. 그거는 인제 방 하나, 8평짜리 혼자 사는게 편하지.

(LH 행복주택있잖아요?) -그건 다 멀어. 지역이 멀어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딴데가면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낯선데 가면 사람 사귀기도 힘들고 외롭다는 거야. 여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가 다 아는 사람이고. 성당에 가는 것도 가깝고, 될 수있으면 여기 있으려고 노력하지.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 멀어서 댕기기도 힘들고 외롭데. 사람들이 접촉을 안하니까, 오래 살았으면 텃세도 하는 가봐. 그러니깐 임대아파트에 살기 어려워 . 종로는 그런게 없어. 85세가 얼마나 산다고, 외로워서 못산다고 그러니깐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건 안되지! 남자있으면 안돼.

- 저 방 할머니가 키가 크니까 와서 꺼내 달라해. 3층 할머니는 가스비가 밀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했데. 안내고 때를 쓴거야. 밀려도 나중에는 해주겠지 하고 한건데. 30만원을 냈데.

2) 노인의 집 B

(가) 노인 1

- 여자/90살이요 29년생
- 5년째요
- 도시락 가져오는 복지관 소장님이 여기 관리자니깐, 여기를 잘 아니깐 우리 소장님이 방 하나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3명이 사시는 거죠?) 방이 안비면 못 왔죠. 마침 방이 비어 왔죠. 내가 갈 때 올 때가 없다니깐, 온거예요.
- 나머지 두분은 이방에 살던 이가 죽었어요. 저 방에 살던 이도 죽고. 지금은 새로 들어온 여자 있죠. 안에 있어요.
- 이봐요 하나도 안보여요 이 쪽 눈만 약간 보이는데. 이 눈도 안보이면 계단으로 가면 꼬부라 죽잖아요. 내가 그래서 약국에서 준비해놨어요. 여

Collection @ uos

기도 안보이면 내가 살아봤자.. 그러믄요. 내이야기 들어봐요. 여기 안보이면 나가 죽지도 못해요. 방에서 똥이나 오줌이나 싸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아무도 몰래.. 아침에 죽어있으면 가져다 버리기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래 준비해놨어요. 양로원에 가도 못살아요. 앞을 안보이면 못살아요. 넘어져가지고요. 화장실에 가려고 오줌누려고 가다가요. 탁 넘어져서 뼈가 어떻게 됐는지.. 병원에 갔는데 5개월 걸렸어요.

- 아니요(바닥)이 미끄러워져서. 아는 이가 할머니 미끄러져서 못 걸어다니니까 신발사다줬어요. 어떻게 고맙던지 내가 이거 신고 안넘어졌어.

- 그 엄마가 해줘요. 우리는 (세탁기) 돌릴 줄 몰라요. 그건 뭐 아무 때나 널면 되지만 세탁기는 버튼 .. 글을 알아야 하잖아요. 나는 그거는 할 줄 몰라요.

- 열쇠를 열고 다니는 걸 갖고 댕겨요.

- 오줌조금 하는데, 뭐.. 예 뭐 안불편해요. 아무것도 안불편해요. 저기 할머니가 사람을.. 내가 화나서 속이, 날보고 나쁘다고 하고, 담배 핀다고 뭐라하고, 내가 얼마나 속이상하면 담배하나 피우겠어. 담배피우면 속이 가라앉아요. (문열어놓고 피세요?)네. 그래도 지랄하고 염병해요. (개인화장실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건 과분하죠.

- 좋죠. 서로서로 불쌍한, 우리 인간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서로서로 도와주고 닦아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엊그제 이사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고 손님들 있는데.. 미안해서 혼났어요. 제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 90살 먹으면서 처음봤어요.

- (가족이나 친척 분 계세요?) 아니요, 나 혼자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 (텃밭이나 화분 키우세요?) 그런 걸 할 힘도 없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경로당 못가요. 경로당 갈 힘이 있다면, 내가 10원이라도 벌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거실이랑 주방만 따로 있고 원룸처럼 되어있으면?) 내방 문만 딱 닫고 상대를 안하면 되요. 같이 말 안하면 되요.

- 잃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나 쫓아내면요.. 나 못살아요, 내가 돈이

Collection @ uos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5년동안에 다 없어졌어요. 돈도 없는데 누가 집을 줘요. 그러니깐 이거 먹고 자살하는게 낫지. (문 잠그고 나가세요?) 이거 가져갈라고 하면 다 가져가라고 해요. 돈만 없으면 됐지. 나는 밖에 문만 잠궈요.

- 아이고 나 저 할머니가 온지 몇 일 안 됐는데 날 죽이려고 들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왜요?) 몰라요. 아까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다섯 사람이 왔어. 예배드렸는데, 아이고 몰상식하게 막 싸우자고 덤벼들고 이래 손님들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게 어딨어요. 아무리 못배워도... (할머니 그럼 방에서 기도를 하신거잖아요. 방말고 따로 방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어요? 옆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던데...) 그건 둘째 문제고요 그걸 하던지 못하던지 둘째 문제고, 나 여기서요. 나 쫓아내면요. 나 여기서 못 나가요. 나 이 집에와서 5년됐잖아요. 나 그때 돈 5천만원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에 와서 5년동안, 나, 전기세 8만원씩, 관리비, 물 값, 중화제, 뭐 별거 다 나가요. 그러니, 여기 버스가 없잖아요. 여기 나가긴 나가는데 .. 택시를 타야 여기까지 와요. 다리는 아파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5년동안 돈 다 없어졌어요. 나 여기 쫓겨나면 어떻게 어디서 살아요.

- (주방 거실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같이 써도 느그들 맘대로해라. 하고 저는 문 딱 잠그고 있어요.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잖아요. 저 여자가 6일에 이사와가지고, 텔레비전도 못보게 해요. 싸우면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 딱 닫고 누워만 있어요. 교회에 손님들이 오셨어요. 손님이 있으면 있다 간 다음에 싸우자 그러지, 손님들이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주방안하고 방에서 만드는거예요? 왜요?)싸우잖아요. 같이 하면, (그럼 주방은 누가써요?) 저 여자만 한사람은 몇 일 후에 온데요.

(나) 노인 2

- 여자/87세
- 그런 거는 없단 말도 못하겠고, 있단 말도 못하겠어요. 안했다고 하면

Collection @ uos

그렇게 된데요. (옆 할머니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데요.) 그래서요 제가요. 접때 화장실에서 나오기만 하면, 화장실 앞에 꼭 물이 흘러져 있어요. 화장지로 내가 다 닦아놓으면 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 앉았던 자리도 다 닦아요.

- 내가 있던 양로원에 그게 제일 의심 되요. 당번이라고 노인네들 수발이라고 드는 여자를 선생이라고 해요. 그걸 공무원이래요. 한사람 당번이 하루저녁을 지키고 있는데 70명 할머니를 1명이 담당하는데, 난 비밀 통로가 어딘지도 몰라요. 남자도 하나도 없어. 힘없는 노인네들밖에 없어.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누르면 119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무서워 저녁때만 되면, 여기서도 걱정이예요. 나는 문 열려고 해도 못 열어요. 어쩔 땐 안 열려요. (무거워서?) 무거워서 그런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려도 안 열려요. 내가 문을 아직도 잘 못 열어요.

- 세탁은 세탁기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돌려요. 건조대 하나 있었는데, 도우미한테 건조대 사오라고 했는데...

- 적어도 그만 안적어도 그만, 저는 불만이 없어요. 내 운명이라고 받아드려요. 적으면 적은대로 살아요.

- 좁은데..아직 한번도 안해봤죠. 아직. 목욕도 못갔어요. 20일동안, 다리가 아파서 못가고요 난방이 안되서 못하고, 커피 물 데워서 하죠. 돈 갚아서 이제 나오겠죠. 아직은 안 나와요.

- 글쎄요.. 젊은 사람이 노인들을 좋아할까요? 나는 허락해요. 배우기도하고, 난 87세 노인네지만 현식대로 살지 옛날 풍습대로 안 살아요. 현실대로 살고싶지.

- 난 친구 많이 안사귀어요. 나는 이혼을 해서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남편의 아들이지. (친구는 찾아오신 적 있어요?) 개는 바빠서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난 없어요.

- 나는 경로당이 싫어요.

- 주방에서 감자 국, 커피 하죠.

- 내가 해요. 요새. 할머니한테 쓰레기 버리라고하고,

Collection @ uos

- 나는 경로당이 싫어요. 내가 늙은 것도 죽겄는데 또 가서 노인들만 보는 게 싫어요. (텃밭?) 난 그런거 못할 것 같아. 아프고 지금 이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도우미한테 내 쓰레기 봉투좀 가져가 하는데.. 다음 달에 도우미가 와요. 그래야 운동도 하고 목욕탕도 가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 안펴요. 난 담배 술 안해요. 펴서 질식을 해서 쓰러진 다니깐요. 내가 정말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아침에 화장실을 가면 담배연기 때문에..아주.. 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냄새 다 나요. 다시 안 핀다고 약속했는데 또 펴요. 할머니한테 내가 전기세 바가지 씌우겠냐고. 난 6일에 들어왔는데 나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나온데. 그 양반은 전기 스토브 쓰는데 그게 더 나와요.
- 오늘 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누가 똑똑한지, 누가 전기를 다쓰는지, 누가 바가지를 씌운다는 둥 욕을 막하고, 냉장고를 두 개나 써요. 내가 냉장고 하나만 쓰라고 전기세 더나온다고 했는데,
여긴 난방이 안 들어와요 2달치를 막 써서 30만원을 안내서, 여기 할머니는 20만원이고 저기할머니는 짐만 가져다 논거라 10만원만 낸 거예요. 글쎄 한방에 하나씩 미터기를 두는게 어떠냐고 하는거예요.
- 나는 전신 다 수술했어요. 갑상선, 허리 양 쪽 다 수술해가지고요. 아주 견디지를 못해 아파. 아주 힘들어요.
양로원에 있다가 오니깐 이게 더 좋음. 노인들만 있는게 싫다. 화투치고 하는 것 보단 평화시장 돌아 다니는 게 더 좋다.

3) 노인의 집 C

(가) 노인 1

- 여자/84
- 10년 됐지. 아픈지 6년 됐어. 장애인 2급이야.
- 수급자..
- 있으면 좋지. 나는 지팡이 샀어. 난 투석한지 오래되서 다리 힘이 없어. 난 아프면 119 부르지.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Collection @ uos

- (손잡이) 내가 한번 넘어졌어. 화장실에서, (투석)들고 가다가..무거워서 미끄러워서 다쳤지. 복지관에서 해줬어. 도와주지 않고 내 스스로 병원갔지. 척추가 삐뚤어졌데. 내가 병원에서 3달 입원했는데 다른 할머니가 내 문 따고 들어왔지.

- 나는 119 부르지. 직접 못 내려가지. 누가 도와줘야지. 우리는 119 밖에 모르지

- 청소해주는 사람은 오잖아. 일주일에 3번, 구청 돌봄 센터. 마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 할머니는 장기 요양와 그래서 밥도 해주잖아. 근데 나도 허리 아픈데 아직 남 시키기 싫어.

- 그건 괜찮아. 뒤에 하면되. 세탁기가 망가졌어. 세탁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따로따로 하지

- 번호 누르는 키가 더 좋겠다. 근데 누가 해주겠나. 번호 적어가지고 댕기면 되지.

- 난 이게 좋아.

- 불편하지. 좁지. 겨울에 추워서, 창이 있어서..내가 막아놨지.

- 난 내 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안사용하지 거실에 있는거 사용하면, 난리치지. 근데 샤워할 때 같이 하라고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난 안가. 그럼 내가 청소 다 해야해. 저 사람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사람이야.

- 누구랑 살면 나가라고 하지.

- 아이고 좋지. 도움이 되지. 난 내가 이렇게 아파도 저 두 사람들 내가 관리해야해. 우리아들 있을 때 뭐 망가지면 다 해줬거든 좋던데.

- 나 없어. 중국에서 왔잖아. 여기 호적이 있었어. 여기 온지는 22년 되. 강원도 속초에 아버지랑 살다가 중국갔었어 난리 날 때 우리아버지 거기서 만주로 또 간거야. 만주에서 난 학교 다녔어. (혼자 22년을 사신거예요?) 그럼, 자식이 중국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내 이리 아프니깐 아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약을 줬지. 아들이 자고가면 좋겠는데 못자게 하더라고. 동에서 그러더라고, 자면 좋겠는데. 난 밤에 아프잖아. 아들자고 가라하니깐

Collection @ uos

그냥 가더라고. 원래 6개월은 여기 있었어. 근데 동에서 말하더라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들이 나갔어.

- 딴 건 몰라도 정자 같은 거나 해줬으면 좋겠어.

- 도우미가 하잖아. 다 해주지. 도우미가 근데 난 내맘에 안들어서 내방은 내가 다시하지.

- 동에서 뒤에다가 노인들 놀게 해주겠다 했는데 말이 없어. 뒷마당에 노인들 놀게 정자해주면 좋지. 우리 뒤에 있어 (텃밭) 조금씩 있어. 나는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줘.

- 그래. 자식 있다고 사람들 나갔어. 둘이나 나갔어.

- 투석주사 새벽에 하고 11시30분에 하고 5시반에 하고 저녁에도 해 그래서 어디 못가. 하루에 4번한다고 어디를 못가. 심심하지. 사람 오는게 좋아. 이야기하고, 사람이 오면 좋지.

- 아니, 누가 같이 해주겠어. 지 밥도 지가 하기 힘든데. (냉장고는요?) 다 제각기 써요. 에이 안가져가지. 누가 가져가.

- 그게 더 좋지. 근데 그렇게 되나? 이거 마다하고 어딜 가겠어. 난 이것도 만족해. 내 얼마나 산다고

- 그런거는 없어. 근데 다른 할머니는 자꾸 뭐 잃어버렸데. 왠지 치매온 것 같아.

- 없어. 만족해.

- 에이고 몇 번 다퉜다가 이젠 말도 안하고 살아. 말하면 자꾸 한말 100번도 더한다고 그래서 나도 말 안하고 살아. 말하면 힘들어 계속 말해.

- 있지.

- 다 알지 친구야. 나는 복지관 얼마나 오래 댕겼다고, 여기 멀어도 교통이 얼마나 좋은데 하루에 2번씩 차오는데.

- 나는 중국에 있을 때 병원에 있었어 간호사같이 있었어. 그래서 처치도 내 혼자 한다고.

- 우리 월급에서 5만원씩 빼가는 것 같더라고.

- 저기도 내만 쓴다고. 내 관할이야.

Collection @ uos

- 침대 있었으면 좋겠어.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는데 나는 없어. 있었으면 좋겠어. 다리도 아프고, 일어나면 힘들어. 어지럽지. 나 빈혈주사 맨날 맞아.

4) 노인의 집 D

(가) 노인 1

- 여자/79살
- 오래 됐어. 2011년에 왔어. 7년
-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구청에서 방하나 얻은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아. 애기도 하나도 안 낳았어. 없어. 나 아프면 누가 신경 써 줄 사람이 없잖아.
- 만들어줬어 (손잡이). 밖에 의자 같은거 있으면 좋겠어.
- 방에서 넘어져 버렸어. 방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버렸어. 다리가 뿌러져버렸어. (혼자 신고하셨어요?) 몰라. 누가했나 내가했나 누가해줬나.
- 몰라. 나는 성당에 다니고 일요일 금요일,
- 여기 화장실에서 해. 쬐깐한 건조대 있어. 안좁아. 나 혼자 해. 저기 할머니는 넓어..
- (버튼) 그런 거 있으면 좋지. 그런 것 좀 해줘.
- 우리는 혼자씩 써. 우린 두 개 할머니 방에 하나 있어.
-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아야해. 학생들 어디서와. 아니야.
- 나 혼자 있으니까 와 (친구) 친구들 오면 우린 안자. 밤에 놀다가 가. 와도 밥도 못해주지 다리 아프니까
- 좋지. 그러면 좋지. 다리아파서 못 가는데
-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 일주일에 2번 와. 우리 모두에서 나와.
- 나는 못가지. 투석 다니느라. 투석안하는 날에만 가지. 나 병원에 있을 때 밥을 못 먹어서 말라버렸어. 근데 지금은 아파서 못해.
- 냄새나서 못살아 오줌이랑 똥을 구별 못해.

Collection @ uos

- 다리 아프니깐 어디 못가.. 심심해서 맨날 티비봐. 소일거리 뭐? 나 봐바. 화목토 병원을 가 이틀에 한번씩 병원가 그래서 뭐 할 수도 없어. 보일러 고장났어. 겨울에 할머니가 물을 안틀었나봐. 보일러 전화번호 가서 가져와. 보일러는 돌아가는데 뜨거운물이 안나와. (통화내용) 나는 동사무소에서 말하면 해줄 줄 알았지.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런걸)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일주일에 한번씩 고쳐주는 사람이 오면 좋겠죠?) 에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좋지. (통화 : 그럼 할머니들은 활동보조인한테 물어봐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모를 것 같은데요)
- 우리는 밥을 따로 먹어. 냉장고 따로따로 있어. 일본 할매라 철두철미해. 한국말 잘해서 한국사람 같아.
- 없어. 나는 안 잠그고 다녀.
- 없어. 마당에 미끄러우니깐 겨울에 눈 오면 못나가. 나는 차 불러서 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쩌라고. 여기는 시장도 없고 장보는데도 없어. 학생들 분식만 있어. 콩나물 두부 살 때 가 없어. 목욕탕이나 약국이나 아무거도 없어.
- 사이좋지. 그전에는 할머니랑 싸웠어. 내가 6개월간 집에 없었어. 병원에 있었어. 그 할머니가 나없으면 못산데. 내가 생각하니깐 반찬 같은거 해서 할머니 주잖아.
- 응. 혼자사는 것보다 좋지.
- 내가 오늘 투석하니깐 오늘 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왔어. 지가 오고싶을 때 와. 내가 병원 갔다 와서
- 할미 불쌍해 아가. 누가 물 하나 떠 다줄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이나 바꿔주면 안될까? 오래됐어. 근데 이것이 언제갈지 몰라 늙어서.

(나) 노인 2

- 여자/90
- 9년도에 왔거든요. 10년 가까이 되죠.

Collection @ uos

- 구청의 지시로..(소개)
- (간이의자 필요없으세요?) 아니예요 필요없어요.
- 넘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 내 생활이 아침에..5시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 20분까지 하림각에 도착해야지 차 탈수 있어요. 차타고 가서 물리 치료받고 있다가 오면 12시 20분차가있어요 귀가하는차. 그거 타고 오면 신금호회? 나한테 후견인인데 딸같이 잘해주는 애가 있어요. 가서 노는게 낙이예요. 신금호까지가는데 한시간이나 걸려요. 거기서 오후에 여섯시에 떠나도 여기오면 7시에서 8시가 되요. 하루일과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
- 있어요. 사용법을 몰라서요. 그러고 저분은 환자니까 세탁을 많이 부탁하는데 나는 연락처도 모르고, 그저 우리모두에는 1년에 한번 부탁을 하고 작은건 내가 하고있어요. 저는 저 혼자 하겠다고 한 거였고.. 나혼자 특별하게 하는건 .. 힘든데 이게 운동이라 생각하고 청소하죠. 그것도 있지만 집에만 있으면, 먹고자고먹고자고 밖에 안해서 몸이 굳어요. 게을러지고,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 관계라는게 어렵고 내가 하고 말죠. 힘들어도, 부딪히는 것도 싫고 신세 끼치는 것도 싫어요. 다들 도우미 있지만.. 피곤하기도 하지만 재미로 하죠. 말하자면 부딪히기 싫어요. 좋은 일도 있을 거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거잖아요. (너는 곳은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 혼자인데
- 괜찮아요.
- 저 할머니도 개인 화장실이잖아요.
- 젊은 사람이 노인하고 못살아요. 내가 90이 되도록, 원래 여기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치매에다가 요실금 있고, 말도 못하는 고통으로 살아서 혼자사는게 좋아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 가족이 없어요..한명도. 저양반은 친구가 많아요. 나는 별로 없어요. 시끄러워도 어쩌요 어쩔 수 없지. 방만들면 .. 나는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밖에 있어서.
- 저는 다녔던 곳이 정이 들었어요. 옆에 있으면 좋죠. 가까운데 있으면 좋

Collection @ uos

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 나는 운동 삼아 살살 해요. 저분이 6개월 병원에 있을 때 나 혼자 다했죠. 없어요. 저 양반은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시간되면 내가 하는게 나아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근데 요새는 90살이라 힘들어요. 거기는 도우미가 있어요. 나는 내방하고 베란다만 치워요. 도우미가 주로 해요. 베란다는 주로 내가해요.

- 저는 이화복지관가요 하림각까지 차가와요. 걸어가요. 지팡이.. 마음먹기 달렸어요. 우리는 운동안하면 몸이 굳어요. 집에서는 뭘 할 수 없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깐 하면 안돼요. 저양반은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고스톱을 해서 친구분들이 많고. 나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조용한게 좋아요. (텃밭 하는거 어때요?)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요. 복지관에 다니고 신금호 들러서 올려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나면 빨래하고 방청소도 해야해요. 에이 나는 바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필기도 해야하고 바빠요.

- 반찬은 우리 모두에서 가져다줘요. 한주에 두 번씩.. 밥만 하면 되요. 각자 따로 먹어요. (왜?) 시간도 맞지않고 혼자먹던 습관 때문에. 외부나가서는 먹었지만 집에서는 없어요. 저사람은 투석을 하기 때문에 가리는 음식이 많아요.

- 보장이 안된다 생각해요. 서로가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해야하는데

- 나는 안 잠그고 다녀요. 저 사람은 잠그고 다녀요. 외부에서, 구청에서 오니깐 난 외출이 많아서 그냥 안잠궈요. 비밀번호같은 것도 없고. 대문은 안 잠그고 다녀요.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요?) 괜찮아요.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런게 없어서요. 우리는 둘이 사는데 안 잠그고 다녀요. 없어요.

- 아니요 안 피워요.

- 나는 이동시간이 많아 여유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 더러 있죠. 있는데 신앙이 있으니까.. (왜요?) 사람이 살다보면 맞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다 사람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죠. 상대를..주로 그건데.. 내마음을 달래야죠.. 주로 공과금 때문에 그러는데, 저

Collection @ uos

게 뭐야..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런거죠.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마음도 이해해야 빨리 화해하죠.

- 더 바랄게 뭐 있어요. 근데 한가지 걱정이 뭐냐면.. 병원에 가서 6개월 저양반이 있었잖아요. 공과금이 잔뜩 밀렸어요. 그것 때문에 환자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깐 이양반이 10월에 갔는데 그 한달치.. 6-7개월이 밀렸는데 환자하고 타협이 될까 걱정이예요. 환잔데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하는데.. 한가지 위로가 된게 뭐냐면, 본인이 걱정하더라고요 계산했으면 자기한테 달라고.. 우리 가스요금이 말일에 나오기 때문에...내고왔는데.. 저쪽하고 타협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속상하지 않게 타협을 할 수 있을까 예요. 근데 10월은 둘이 내야하는데 나머지는 나혼자 썼죠..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요금으로 다 내는 거라고 하는데..그래서 구청에 오신다 해서 이 문제에 해결하고 싶었어요. (겨울에) 보일러 안 넣으면 터져서 안되죠. 확실한 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무작정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 상할까봐 걱정이예요. 겨울에는.. 난방비를 떼울 수밖에 없거든요...이야기 해주면 .. 좋겠는데..공평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적어놓는데..꼼꼼한 편인데 피곤해요. 근데 피해주기 싫으니까, 이게 10년 일기예요(공과금 써논 공책)

-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간단한게 나아요.

- 과분하죠. 이런 것도 과분해요. 감사하기만 해요. 만족해요. 이화복지관은 물리치료실도 있고요 욕실도 있고, 배울 일도 많고 시설도 잘되어있어요.

5) 노인의 집 E

(가) 노인 1

- 76 / 여자

- 1월6일 날 입주했거든, 근데 발령 받은 거는 12월에 받았어.

- 없어. 근데 사람이 하나 오기로 했어. 저기 두 사람. 여기가 물이 넘쳤었

Collection @ uos

어. 보일러가 망가져서 방이 전부 섞었어. 그걸 와서 두달 동안 보일러를 막 틀었지 문열어놓고, 보건복지부 구로노인 거기서 터진 거 수리해줬어. 거기서 다 수리해줬어. 그래서 보일러를 말렸어. 섞은거를 냄새가 지독하게 났지. 가스가 말도 못하게, 일라이트 가루사다가 밑바닥에 싹 깔고 장판 해준거야.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안나. 깨끗해졌지. 그러니깐 누가와 여기다 사람을 누가 드릴 수 있어 나니깐 왔지 오도가도 못하니까.

- 먼저 살던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뇌진탕 되서 죽었어. (턱이 높아서요?) 응 여기가 좀 불편해. 높아서. 그래가지고 죽은거야. 그래서 나는 조심조심 하는거지. 발을 헛딛었어.

- 아니 없지. 다 조심조심하니까. 이제 우리나이가 되면 힘이 없지. 언덕 빼기가 힘들고 그래도 여기가 집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여기 올라오는데 한 시간은 걸려.

- 우리 딸.안와. 이제 온다고 했어. / 응급 상황 때 몰라. 난 달았어. 움직이지 않고 하면 와. 그렇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 젊어서

- 이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오겠어 뭐겠어. 공포심은 없어 누가 뭐라 하겠어? 돈이 없으니까

- (규칙) 나는 간섭받기 싫어. 일종의 간섭이잖아. 좋지. 여기 하수도가 다 터져가지고 내가 신청해서 복지사들이 다 고쳐줬지. 물도 안세. 이 집이 낡아가지고 밖에서 보면 귀신나오는 집 같아서 칠해달라고 하니깐 이뻐진 거야. 사진 찍어갔어 마당, 시멘트 잘해달라고....

- 좋지. 근데 젊은사람들이 우리랑 말벗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바빠가지고.. 차 한잔하고 좋지. 누가 찾아오면 좋지. 복지관사람들이 가끔 오긴해.

- 세탁기로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말리지. (옥상에는요?)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게 너무 힘들어. 혼자라서 충분한거지. 사람이 하나 오면 그렇게는 못하지... 근데 경험해 봐야지..

- 응. 나는 적은 방을 택했어. 새로운 사람이 좋은 방 써야지, 늦게온 상으로 큰방, 안방 쓰라고 해야지. 얼마나 냄새나고 물이 질컹질컹하고 했는데.

- 없어요. 턱만 내가 조심하지. 개인용이 좋긴 하지. 근데 우리가 정부에

Collection @ uos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지. 목욕탕과 화장실은 개인이 써야되. 침대는.. 이제 라꾸라꾸 싼걸로 샀지. 여름에는 침대 써야되. 바닥이 차니깐,

- 좋지.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게 좋지. 우리나이사람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잖아. 고집이 세고, 우기고, 말이 안통하고 싸우자고만 들잖아. 그러니까 노인네들끼리는... 내가 복지사한에 이야기를 하기를,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가난에 지쳐서 쪄들어가지고 말하면 빗나가고, 또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도 없고 어깃장으로 하면 어떻게... 그런사람이 들어오면 어떻하냐고.... 나보고 고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골라..

- 손님 방 같이 해주면 좋지. 그러면 좋지.

- 아니 안가. 잘 안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지, 나 독서좋아하고, 클래식 좋아하고, 그런사람이 어떻게 거기가서 어울려. 안어울려.. 화투치고 랄랄라 하는거 난 안맞아. 장구같은 거는 배워야지. 아이 최고로 좋지. 그럼 좋지. 독서실이 있고 책도 많고. 그럼 너무 좋지. 최고야. 에이 싫어 그런건. 그냥 수업하고 이런게 좋지. 그럴거면 그냥 한시간 걸려서 복지관 가는게 좋지.

- 내가 다 청소하지. 그럼 내가 하지. 한 달에 한번 오나 그럴걸.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해. 문 좀 열어봐 내가 된장 담구고,

- 텃 밭 있으면 좋지. 여기 옥상에 텃밭을 만들면 되지. 빨래 널고,

- 아침에 아르바이트 하고 끝나면, 11시에 끝나 병원에 가서 침맞고 마사지 받아. 집에 오면 1시나 2시야. 몸을 단련을 시켜야되. 꿋꿋하게 사는 날까지 살아야지. 책읽고 음악듣고 그냥 누워있고..

- 오면 같이 해야지. 나는 반찬을 해주고, 돌봐주는 편이야. 연세가 더 많은 분이 들어오면 내가 해주고 그래야지. 밥도 같이 해서 먹고, 한사람 하는 밥이나 두사람하는 밥도 똑같이 힘들지 뭐. (반찬 같은거 배달 안하세요?) 내가 신청해야하는데, 신청 안하는데 그대신 뭘 가져오냐면 통조림 가져와. 참기름 가져오고 깨소금, 통조림, 고기 팩에 들어오는거 ... 신청안했는데도 지들이 가져와 한달에 한번씩, 그거 잘못하면 더러워서 안돼. 직

Collection @ uos

접하는게 더 좋아.

- 아직은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어오면 방문은 잠그고 다녀야지. 노인네들이랑 생활 해 보니까 노인들이 괴상망측해. 내가 이쁜거 가지고 있으면 훔쳐가고, 그리고 지갑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훔쳐가고, 이쁜 신발있으면 그냥 훔쳐가고, 피곤해. 그런게 값 나가는게 아니지만 그러지 말아야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되게 여든 살이 넘어간 할머니들이 그래. 서운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

- 가끔. 밖에서 흡연해. 나는 공중도덕은 잘 지켜. 일주일 안피다가 울화통터질 때 좀 피고, 열흘이라도 끊었다가 피고 그래. 계속 피는게 아니야.

- 없어 난. 취미생활. 난 악기다루지도 않고 시끄럽지 않은게 좋아. 장구를 배워야지.

- 걱정이야. 무서워 그래서 여자들.. 노인네들 무서워.. 치매같은거 있으면. 질투가 많아가지고, 나는 여편네들에게 질투의 대상이거든. 괜히 피죽피죽거리고 ... 싸울려고 들고, 스트레스받아. 다들 재미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진짜 싫거든. 그러면 문닫고 나가야지. 이상한 노인네가 끼면 싸우게 돼.

- 혼자 사는건 낭비야. 공동으로 생활하는게 더 낫지. (공과금) 걱정되지.. 서로 의논해서 정해야지 그러면.

- 어, 문열어 놓고 보일러를 키니깐 36만원이 나왔어. 연료가 많이 들어갔지. 이거 말리느라고.. 복지관에서 15만원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냈지. 다달이 5만원을 넣어주는거지. sh 거기서 복지하니까.

- 냉장고는 여기 있었어, 김치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다있는데 보온밥통이 없었어. 그래서 밥솥사달라고해서 복지관에서 사줬어. 그래야지 뭐. 같이 써야지. 우리는 같이 써야되. 목욕탕도 화장실도 냉장고 혼자쓰는게 더 좋지.

- 난 처음이야. 난 원래는 스님이였어. 단체 생활했었지. 스님들은 돈이 안 생기고, 돈도 없지. 결국 이렇게 됐지. 30살부터 절에 있었어. 나이가 먹으니깐 머리 기르고 여기 왔지. 스님들은 원래 혼자 살았으니깐 혼자 생활하

Collection @ uos

는게 익숙해. 시끄러운거 싫어하고,

- 수급비가 나오잖아. 한달에 50만원. 그거가지고 야금야금 쓰는거지. 시장이 없어도 잘 안사지 내가. 되게 귀찮으니깐 사먹고, 집에서 해봐야 맛없고, 많이 하면 버리기만 하고 조금씩 해먹다가 버리기만해.

6) 노인의 집 F

(가) 노인 1

- 여 / 74세
- 5년째인가 4년째정도예요.
- 집이 없었어요. 그때, 시골, 지방에 있다가 돈이 없어서 아는 분 집에 있다가 동사무소 통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 글쎄요, 저는 아직 내 나이로 쳐서 건강해가지고 그런거를 불편한 걸 못 느꼈어요. 느꼈다면, 오며가며 버린 것들 주워서 신발장이나 이런거다.. 가져다 놨으니까,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런게 필요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불편한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분 말고, 전에 분은 일어나는게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거는 있죠. 잠결에 나오다 보면, 현대는 얕잖아요. 없죠.. 잠결에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가족들도 없고하니까, 혹시 쓰러지거나 하면 집 안에 아무도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20일, 한 달 후에 죽은 후에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스스로 느끼죠. (손잡이) 그런게 있으면 좋죠. 그건 누구나 필요한거니까요.
- 저는 없어요. 아직까지 전에 있던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미끄러워서... 저는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벨이 있으면 좋죠.
- 글쎄요.. 그럴 때 겁이 나요. 이럴 때, 불이 나면.....생각해보고 준비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되면, 당하겠죠..
- 저는 아직은.. 짐같은 건 내가 할 건 하지만, 못하면은 지나가는 분들 젊은 청년들한테 부탁하죠. 일주일에 3번 와요. 그냥 와서 얼굴보고 말벗이

Collection @ uos

나 해요. 그분들 인식에는, 저한테 오는 분들은 청소같은거 아니고 이야기만 하고 가요.

- 어우 이정도면 잘 되어있죠. 우리는 그냥 나라에서 해주신 것 갖고 사는 거니깐 말할 수 없이 좋죠.

-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겨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2월에 신청한 것이 (5월말)이번에 왔어요.. 하면 좋죠. 그치만 그게... 도시가스에서 아마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청소해주는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 제가 세탁기로 해요. 건조는 거실에 널어요.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기 싫으니까요... 제거는 제가 하고 그분은 그분이 하고 해요. 각자 다 하니까... 뭐 우리는 빨래도 이런게 많지 않으니까.. 알아서.. (공동으로 하는 공간) 좋죠.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넓으니까.

- 비밀번호 이런게 좋죠. 간단하고 열쇠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열쇠로 사용하니까,

- 네... 개인베란다는.. 혼자사니까 만족하고 해요.

- 없어요... 우리는 식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쪽에도 화장실 있어요. 그분은 방에 있는거 써요.

- 글쎄요... 그건.. 여기는 혼자 살아야 하니까..

- 좋죠. 같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도 많이받고, 젊은 사람들이 우릴 불편해하죠. 우리가 맞춰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손녀들도 우리 .. 노인 냄새나잖아요..

- 방에서 하고, 아니면 부엌에서도 하고... (눈치 보이시지는 않은지..) 그런거는 없어요. 저희언니도 동네가 가까우니까 왔다갔다 해요. (손님방은?)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되죠.

- 다른분들은 많이 가는데요. 저는 경로당 보다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경로당 같은데 안가고.. 교회를 많이 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분들은 좋겠지만.. 저는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보다도, 교회가 좋기 때문에.. 뭐 점심은 먹으러 가지만,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보단 교회 가서 교인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에 있어도 저는 이렇게

Collection @ uos

생활 할 것 같아요.

- 그런건 많죠.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잘 잤느냐 안부를 물어보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

- 제가 하죠. 옆방 할머니는 나보다 연세가 높으세요. 이사오신지가 작년에 왔는데도,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깨끗하게는 못해요. 하긴 하는데 많이 아파하시니까.. 몸을 잘 가누지 못하기에..허리도 아프다고 하니까,오긴 하지만, 그런거는 안해요.

- 화분키우는데.. 자꾸 죽어요.. 더 넓으면 좋죠. 누구는 그런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별로... 저는 교회에서 하는거는 참석은 안하는데..

- 날짜가 돼서도 나가기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랑 마음이 안맞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나가기도 하겠죠.

- 음식은 제가 조리해서 먹고, 일주일에 3번 왔었는데 작년까지는.. 금년에는 2번 와요. 복지관에서 점심먹고요, 저는 교회가기도 하고.. 얼굴은 마주보더라도 같이 밥 먹을 시간은 없어요. 복지관에서 먹어서. 저분 따님이 아파서 애기들 때문에 거기 가셔요.. 금년에는 별로 없어요.

- 저는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 그런거는 없어요. 네. 잘 잠그고 다녀요.

- 여기는 없어요. 담배, 술 이런건 없어요. / 글쎄.. 그런건아직..

- 나는... 기독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만을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해요.

- 그런거 없습니다. 다툰거 없어요. 그런건 아직 없어요. 각 사람 통장마다 8만4천원씩 입금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각자 카드로 한 카드에 넣어서... 싸울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내니까.. 뭐든 덜 내고, 많이 내고 그런게 없어요. 병원가기 전까지만 내요.. 그분이 생활 할 때까지.. 있는 기간까지만 받고..

- 이야기하고..차있으면 차도 먹고

- 이야기가 하기 어렵네요... 제 이야기를 하면, 이 분이 이사오셨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깐 전도하려고 잘해드렸거든요. 뭐든 가져다주고,

Collection @ uos

가구있으면 놔드리고.. 이쪽(다른방 할머니)가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훔쳐간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는거예요. 다 나보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있는거예요. 막...서로이간질하고..

- 다른동네에서 2-3년 살다가 이사 왔어요. 저는 임대아파트보다 여기가 좋아요. 첫째는 복지관도 가깝고, 이 주위가 시장도 가깝고. 전철역도 가깝고, 집이 아담스럽고 탁 트였잖아요. 다른데는 좁고 답답하잖아아요.
- 시장에서 봐요. 임대아파트보다 여기가 좋아요.
- 네 침대. 일어나기 쉽고, 날마다 이불 정리 안해도 되니까요.

(나) 노인 2

- 여 / 86
- 작년 10월초에 왔어. 여기오는게 그렇게 좋아. (전에 살던집) 바퀴벌레도 많고, 수도도 안 고쳐주고 이랬지.
- 일어날 수 있게 손잡이 있으면 좋지. 그냥 여기 있어도 좋아.
- 여기와서 너무 좋아. 손자들이랑 떨어져 있는게 눈물만 나와..키울 때 뿐이야..
- 난 저 양반밖에 없어. 저양반이 하라는데로 하지. (다리가 불편) 근데 가끔가다 한번씩 돌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자 막 뭐라 하더라고. 문도 고장나서 안돼. 복지사가 와서 고쳐줘야 하는데. 저양반한테 물어봐야지.. 내맘대로 못해.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깐 저사람한테 물어봐야지.
- 말벗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내가 목이 안좋으니까.. 내가 숨이 차니까 못하지... 많지만 말할 수 있겠어?.. 내가 염치없잖아. 우선 빨래는.. 딸이 해주는데.. 속옷같은건 내가 손으로 하지. 복지관에서 세탁기 줬는데, 딸이 가져가버렸어. 거긴 식구가 많으니까.. 텔레비도 받고싶지. 전화도 안놔줬어. 내가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못돌아 댕겨. 밥도 하루 한끼, 두끼도 못먹어. 손자들 키울려고 내가 나라에서 돈나오면 지들 먹이고,

Collection @ uos

넘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려고... 내가 과자하나를 못사먹었어. 내가 처음으로 과자를 사먹었어. 애들보기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복지사가 나보고 부지런히 복지관에 나와서 신청해서 받으래. 사람이 염치가 있는데.. 냉장고를 가져다 줬는데 어떻게그래.

- 딸이 갔다가 빨아주고 하지. 여기 세탁기도 없어. 저 양반꺼여. 난 손으로 빨고 딸이 와서 빨아주고 해. 세탁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저사람꺼니까 내가 손 안대.. 하라고 하지만 안해. 저 할머니가 자기꺼래. 복지관에서 안줬어. 여기다가 널지.. 거실은 아직은.. 건조대를 사야하는데.. 돈이없어서.

- 근데 그것도 그렇더라고.. 나이먹어가지고 문잠그는 것도 안좋자나. 얼른 나가야지 좋은 거잖아. 뭔일이 있으면 팍 나가야 하는데 못나가잖아 그거는. 여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불뿐이야. 열어놓고 사는 것 뿐이지. 가져갈게 없어.

- 엄청 좁은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만족하고 좋아. 텔레비나 하나 가져다 놨으면 괜찮겠다 해. 심심하기도 해.

- 화장실도.. 좋고 전에 살던데는 화장실이 밖에 있고 하니까, 설거지도 방에서 못해. 고장나가지고 밖에서 했어. 아직은 없어. 내가 조심하니까, 그래서 불을 키지.

- 이 동네 안와. 근데 내가 아프면 보고가고 왔다갔다 하긴해. 지 새끼들 있는데 뭘 자.. 손자들도 여기서 자라고 하고 싶은데 저 양반이 남자들 끌어드는거 싫어하더라고, 손자들이 잘 수도 있는데 저 양반은 남자를 싫어해. 남자오는 걸 싫어해. 저 사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무서워. 저녁에 잠그고자. 그냥은 못자. 정신 없는 사람같아. 내가 그래서 하자는대로 해.

-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와줘.. 더 아프고 하면 몰라도, 내가 아직도 내가 할만해. 뭐 한번 쓸고 닦고 하는데 누가 손대...

- 나는 한번이라도 자고 가라하고 싶은데, 저 양반한테 미안해서... 근데 할머니 아프면 와서 잘 수도있지.

- 복지관은 가지. 경로당은 안가. 내가 못살아서... 내가 어렸을 땐 잘 컸는

Collection @ uos

데, 이렇게 못사니깐... 자존심있어가지고 경로당 가기싫어.

- 저양반이 하다가 내가 하다가 밀고 댕겨. 저양반이 많이 하지. 아무리해도.. 저 양반은 건강혀.

- 그전에는 텃밭이나 꽃도 좋아했는데, 아프니까 다 소용없어. 여기 오니까 다 사먹고, 사람이 바보가 되버려. 다 사먹으려니까 돈도 없고, 여기 뭐할 때가 어딨어. 방 하나줘서 하면 좋지. 그런거 좋아해. 그런데 아프니까 귀찮아.

- 잠만자고 나가서 놀다와. 저녁때.

- 그 양반은 내가 이가 없어서, 밥을 먹으면 흘려, 여기서 혼자 먹고 그양반은 늦게 일어나서 먹고 나는 나가려고 일찍 먹고 복지관 가서 놀다 밥얻어먹고 하니까.. 시간대가 안맞아. 같이 먹자고는 했는데,, 내가 반찬도 없고 뭐도 없어서 혼자 먹지.

- 없어. 가져갈 것도 없어.

- 없어.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 높아서. 올라와서 살기는 좋긴한데 아래가 좋지. 올라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아래층에 살아도 괜찮아.

- 내가 왠만하면 안싸워 싸우면 못혀..

- 시장은 중부시장가서 보지. 구루마로 하지. 계단 올라올 때는 한 칸 한 칸 놓고 올라오지. 아직 안바래... 이것(냉장고)도 줘서 가져왔어. 여기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살면서 다 고장 나가지고 , 다 없애버렸어. 우리 딸도 다 없어. 돈이없으니깐 못사니까...

- 난 먹지를 못하니까 신청을 안했어. 난 사다먹었어. 누가 반찬을 안주니까. 요새 반찬도 없고

- 필요하지만 뭐.. 근데 텔레비 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 내가 여기서 혼자 감기가 들렸었어. 못먹으니까 죽겠더라고... 기운이 없었어. 근데 저 아줌마가 딸한테 전화해줬어.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가지고.. 뭐 그런거까지는 생각안해. 딸이 있으니까, 손자도 있고,

Collection @ uos

5) 노인의 집 G

(가) 노인 1

- *여자/76*
- *내가 확실하게...8년 정도..*
- *집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지하에서 살았는데. 아프고, 공기도 나쁘고, 내가 임대아파트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혼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더라고, 손자라도 데리고 살아야 임대아파트가 되지. 혼자 있는 사람은 위험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있는 사람들은 생전 돈도 없고 지하에서 살아야 되냐고, 혼자있는 다른사람, 혼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들어가서 산다고 하니깐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내가 동사무소를 쫓아다니다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연락해가지고, 한번은 청담복지관에서 문의가 왔어. 집을 주면 이사갈수가 있느냐고.. 복지관에서 집을 마련해주면 이사하겠냐고.. 그때 와서 거실에서 봤는데 위치도 괜찮고 해서, 했지. 근데 나이먹은 사람들한테 방 주려면 밑에 층이 좋은데 내가 한 대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단있으면 계단 오르다가 넘어지면 다치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지.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지하보다는 나으니까 왔지.*
- *글쎄 아직까지는.. 저쪽방에도 사람이 있었고 저쪽에도 있었는데, 저기는 간병인이 있었으니깐, 나는 아파도 .. 혈관이 없어서 숨이 차서 그렇지, 겉몸은 멀쩡하잖아. 조금 걸으면은 숨이 차서 빨리도 못걷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별로 .. 사람이라는게 몸살 날때도 있고 하잖아. 이번에는 장염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못먹으니까 보지관에다가 죽을 끓여 먹을려고 가져오지 말라고했어. 이 주째 안 가져왔어. 밥하고 반찬 가져다 주는데 도시락 하나니까 그걸로 .. 하루에 한번오는데 도시락 하나가지고 두끼를 먹어 조금씩 먹으니까, 내가 다 못 먹으면 세끼 먹을 때도 있고... 밥도 때로 해먹기도 하고. 침대 옆에 손잡이 같은거 있으면 좋지. 근데 아직까지는 .. 숨이 차서 그런거지 다른 것은 뭐 .. 다리도 아프긴 아프지만*

Collection @ uos

- 아직까지는 그런건 없어요.
- 내가 몸 아프면 내 핸드폰 1번을 누르면 119가 와.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옆에다 놓고 살아. 119가 오니까 그닥....
- 고칠 일 있으면 복지관에 말하면, 복지관에서 해주니까, 내가 고치는 것은 별로 없어...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스나, 수도 같은 것도 와서 점검해주면 좋지. 글쎄..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해주면 괜찮지.
- 세탁기 하나 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했어. 건조는 저방 사람은 아침에 해가 딱 들어오니까 방에다 말리고, 나는 건조대에다가 밖에 할 때도 있고 거실에다가 할 때도 있고, 셋이 살았어도 다 그렇게 사니까 불편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 처음부터 원룸씩으로 쓰면 좋잖아. 근데 여기서는 내맘대로 쓸 수 없는데. 뭘...
- 근데 그 번호를 잊어버리기 쉬울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가 좋아.
- 현재로는 이게 만족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되지..
- 난 방에 있으니까.. 거실에는 저쪽 두사람이 쓰는거지. 왜요. 지금은 혼자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쓰지. 다같이 있으면 개인이 없으면 불편하겠지.
- 좋죠. 젊은 사람이 와서 사는게 더 좋지. 그럼 같이 .. 나이잡순 양반보다 .. 아니 나이 잡순 사람 끼리끼리 노는 것도 좋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배울 것도 있고 그런건 좋지. 근데 젊은 사람이 이런데 와서 살 수 있어..
- 글쎄.. 여기는 나이먹은 사람들이라 올라오기 힘들어가지고 잘 안와. 계단이 있으니까,,, 다 다리가 아프니까, 아까 온 양반들은 여기 청소해주는 양반들이야. 복지관에서 청소해주러 오시는 사람들.
- 그런건 없지. 옛날에는 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1층에 있으면 좋죠. 그러면 좋긴 한데 아래층은 다 막혀있으니깐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이층이 더 좋긴 해.
- A양반은 간병인이랑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B양반은 나이가 많이 드

Collection @ uos

셨으니까, 그때 만났을 때만 해도 난 일흔이었으니까, 그 양반은 83이였어.
- 복지관에서 다 해줬지. 저쪽 화장실은 간병인이 더러우면 치우고 그랬을 거야. 이양반도 맨날 나가니까.. 나는 여기 쓰니까 난 혼자 치우지.
- 근데 나이먹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실에서 같이 놀아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 몸이 불편해서 어디 못가니까. 내가 하는거야. 취미야 이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 같이 쓰면 좋지. 뺏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하겠지, 새로운 사람도 화초 키우는게 좋다고 하면, 같이 하면 되지. 베란다가 있어서 거기다가 하면 좋지.
- 아침에 티비 안보면 화초같은거 보고 뭐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여기 거실이 넓으니까 여기서 뱅뱅 돌고,
- 복지관에서 밥이 오니까... 근데 이제 한끼씩은 해먹을 수 있지, 전기밥솥에 쌀만 씻어서 하면 되잖아. 같이 먹은 적은 없어. 내가 처음에 같이 살라고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나 혼자 밥먹기 싫어서.. 어울려서 같이 밥먹으려고 했는데..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그래서 내가 원했는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더라고, 혼자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내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밥 같이 잡수자고 했는데 밥맛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새벽에 먹거나 밤에 먹더라고,.. 저 양반은 간병인이랑 먹고, 내가 이양반들 나가고, 복지관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어. 젊은 사람이나 들 아픈 사람으로 해달라고 했어. 들 아픈 사람이 와야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잖아.
- 서로 간섭도 안하고 그랬어, 좁지도 않고, 서로 피해도 안주니까
- 네, 도난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사니까 서로 주의를 하는게 .. 첫째는 내가 주의를 해야해. 내가 잃어버리고, 누구한테 없어졌다고 하면 상대방도 불편하고, 내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거야. 내가 주의를 해야지 잃어버린다음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상대방이 안가져갔지만 기분이 나쁜거야. 의심하니까, 나도 저방 사람이 내가 맨처음에 왔거든 나혼자 살다가 이 양반이(B) 둘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청년들이 왔다갔다 했나봐. 지금 꽁짜로 주는 집이 어디있냐 사기가 아니냐. 라고 했나봐 그래서 이 양반(B)이 무섭다고 이사를 안 온데. 사기 당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줌마가 돈

Collection @ uos

이 많아서 사기치는게 아니야. 이건 사기치는게 아니고 집을 준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우리 세금을 조금 빼갈지도 모르지만 했지, 그래서 나 혼자 와서 살았지. 두 세달만에 그 양반이 왔어. 조카가 와서 보고 괜찮다고해서, 다른양반이 왔어. (A) 내가 그때 운동삼아 1시나 2시쯤에 안양천에 가서 운동을 하러 갔어. 5시쯤에 돌아오니깐 이사했더라고, 방을 쓸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사했어요? 하니까 (A)가 예 이 집 주인이여요. 주인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집은 손 거친 사람없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황당했지, 노인네가 그 소리 하니까, 그러고 방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빨리 비누가 없어졌다고 뭐라했어. 또 오리털 이불도 ... 말 들어보니깐 주인아줌마랑도 엄청 싸웠데, 뭐 가져갔다고, 약간 치매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복지관이 이 양반을 여기로 옮겼어. 그 양반은 찾아보지도 않고 의심을 해. 얼굴보자마자 자꾸 없어졌데. 그래서 딸한테 통화해서 와보라고 하고, 하는데 의심병 치매가 있데. 결국 간병인 불러서 같이 있다가 .. 간병인 힘들게 해가지고,, 간병인이 포기한다음에.. 요양병원에 모셨지.

- 난 안피는데 저 양반이 담배를 폈는데,,, 싱크대 태워먹었어. 담배피고 거기다가 뒀나봐. 그래서 태워먹었어. 내가 아줌마 담배 집에서 피우지마요 하니깐 그뒤로 안 폈어. 집에서 담배피니깐 싫었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담배피지말라했지. 나가서 피라고 했어. 그래도 불만 안하고 말 들어줬으니까 다행이지.

-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방충망 같은거 해줘야 하는데 내가 모기장을 떠다가 쫄대로 붙이는데 키가 안다니까, 위에는 떴어. 안다가지고..키가 안돼. 그런 방충망 같은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지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말만하고 안해줘.

- 없어요. 그런적 없어.

- 우린 거실에서 뭘 안해. 나 혼자만 운동하고 그래. 화초같은거 같이 보지. 그래서 옆방할머니가 화초보고 꽃 이쁘게 폈네요. 해.

- 계속 해야지.. 근데 원룸이 있으면 원룸으로 가겠어. 위험한일 있으면

Collection @ uos

119로 불러야지 뭐.. 나이 더 먹으면 같이 사는게 좋을란가?. 외롭게 생각하는거면 이렇게 사는게 더 좋을 수도..

- 나는 그냥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익숙한 데가 더 좋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익숙한 곳이 좋아.

- 마트가서 하지. 내가 걷지를 못하니까.. 내가 옛날엔 다녔지. 근데 지금은 못가지. 인제는 어쩔 수 없어 멀리는 못가니까, 마트가서 사지.

- 솔직히 혼자사는게 편하긴 하지. 모든게 .. 수도세나 전기세나 내가 아낄 수 있을텐데.. 같이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거 가지고 트러블이 생긴다더라고 하던데. 젊은 사람들은 수도세 가지고 이해타산을 하겠지만, 나이먹은 사람들은 옛날에 아끼던 습관이 있어서.. 아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막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막 쓰는 사람이 오면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 끼리끼리 만나야 좋은데.. 하나는 아끼고 하나는 풍부하게 쓰면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혼자 살면 그런건 없잖아. 풍부하게 쓰고 싶으면 쓰고 아끼고 싶으면 아끼니까..

- 그렇죠. 여럿이 사는 사람들은.

B - '보린두레주택' 거주자 인터뷰

1) 보린두레주택

(가) 노인 1 - 여자

- 여자 / 91세

- 3년 됐어.

- 이제 자식들도 지 살기도 힘들고, 용케 여기로 들어왔어.

- 근데 여기는 불편한 거는 별로 없어. (신발신기 편하게 의자같은 거 있는 건요?) 그런거 있으면 편한데. 그런거 해준데? 의자 있어도 ....

Collection @ uos

- 다치지. 나 방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 미끄러졌어. 테이프 같은거 밟아가지고, 삐끗했어. 넘어졌어. 잡을 수도 없고... 중심을 못잡아서 넘어지지. 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이런데 가다가 어디를 잡아. (누구에게 따로 연락하셨어요?) 여기 관리자가 있어. 토요일 일요일만 안 오고 날마다 출근해. 우리가 아프면 병원데리고 가고, 뭔일 있으면 119부르고 보살펴 주고, 아침에 와서 잘 주무셨냐고 해. 하여튼 우리를 보살펴줘. 청소 다 하고, 자기한테 연락하래. 이렇게 사는게, 한사람이 잘못되면 옆 사람이 불러. 다 써서 붙여놨어. 아파트는 딱 들어가면 끝나는데, 여기는 공동생활이니까. (비상벨) 필요없어. 다 여기서 서로 하는데.

모르지. 여기서 짜그라지면 죽을 것이고, 안다치면 살 것이고. 일단은 위급한 일이 있으면, 늙은 것이 어서 죽었으면 해도 다 나가. 다 튀어나가. 엘리베이터 타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그것부터 고장나서 전기가 멈추는데. 밑으로 내려가야지.

글쎄, 저번날 빈방이 있는데. 빈방에 관리자가 가방을 두고 갔는가봐. 여기 막 모르는 사람이 드나댕기는데, 아무도 없으니깐 문열고 살짝와서 돈 10만원 빼갔어. 저 방도 나가고, 이 방도 나가고, 나도 나갔는데 가져갔더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 사람인지 나이많은지 모른다고. 관리자가 이 문을 열고 댕겨. 관리자가 4층이 남자방인데 4층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하니깐 이 문을 열어 놓고 금방 갔다 온다고 열어 놓고가다가 어떤 놈이 들어온거야. 그래서 나도 문 잘 잠그고 다녀. (할머니들 끼리는요 도난없어요?) 그런건 없어. 한 집 식구인데 그런거 하면 못써. 여기는 그런 거는 없어. 여기 냉장고 우리 방에도 냉장고 있어. 방마다 다 있는데, 모자라면 (거실)냉장고에 넣어두는데 생전 남 것 가져가서 먹은 적이 없어.

- (젊은 사람이 말벗) 좋지. 도와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전에는 그랬어.

세탁기 있어요. 공동세탁기. 암 내가 하지. 여기 공동 세탁기가 있는디, 자기가 하고싶으면 하지. 관리자가 있어서. (베란다에서 건조 하나요?)아니 옥상에다가 이불도 널지. 옥상에다 구청에 다 해줬어. 옥상에 의자 같은거 다 해줬어. (옥상에 정자 같은거 있으면요?) 있으면 좋지만, 텐트 같은거

Collection @ uos

의자 같은거 다 해줬어. 그런데 누가 할 사람이 없어. 이 아줌마랑 나만해. 하는 사람만 해.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다 왔으니, 아삭이 고추같은거 심고, 상추도 심고, 얼마나 좋아.

- 안 까먹어. 전혀 안 까먹어. 머리에 입력이 되어서. (홈시스템) 뭐 리모콘으로 하면되지 뭘. 텔레비전 나온지가 언제냐. 수십년인데, 뉴스나오고 이런거 리모콘으로 하면 되지.

안 작아. 적당해. 나혼자 자기 딱 좋아.

- 화장실 좁지. 공동 화장실 할 수 있나? 화장실이 있으면, 공동화장실 있어도 아니여. 각자 방에 있어야되. 화장실은 , 따수운 물이 나오고 하니깐 웬만한 사람은 목욕탕에 갈 일이 별로 없어. 맘대로 푹 할 수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샤워 하기엔 좁잖아요?) 좁아. 근데 면적이 이렇게 됐으니깐 됐겠지.. (손잡이 이런건요?) 좁으니까 필요없어.

이야기하기 적당해. 자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안해봤어. 저기 아들이 왔어. 자고간데. 누가 뭐라해. 안하던데. 문 딱 닫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뭘.. 여기는 들어올 일이 아니여. 어매들이 부모들을 부양을 안하고.. 여기 수급자 아니여. 여기 아들이 와서 잔다는 건 말이 안돼 . 불법이여. 오면 안돼. 원래 오면 안돼. 그럴거면 부모하고 살지 왜와. 손님 방을 어디다가 만들어. 기자들도 와서 이런 집 또 만든다고 어떠냐고, 살기가 좋냐고, 분위기는 어쩌냐 이런거 물어보거든, 지을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불편한게 없는데. 한가지 불편한게 뭐냐면, 전기세 가스세 공동으로 나오거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쓰고 어떤 사람은 팡팡써, 그러면은 가스같은거 얼마 안쓰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쓴사람은 자기가 많이 썼으니 자기가 내고 안 쓴 사람은 조금만 내고, 각자 계량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 그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지. 처음에는 내가 관리자하고 싸웠어. 원래 옛날에 옛날부터 너무나 많이 지키고 살아서, 아끼는게 얼마나 많다고. 그 속에서 호황스럽게 산 사람도 있어. 그런사람은 우리하고 천지차이여. 그래서 나는 불안해. 많이쓰면, 저 방 여자는 어제도 빨래했는데 오늘도 빨래했어. 세탁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여. 그러면,

Collection @ uos

전기세 많이쓰면 많이 나오겠지. 4층에 남자들 우리보다 겁내 틀었어. 우리가 20만원 나오면 거기는 30만원이 나와.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내. 그래서 한 여름엔 첫 회는 7만원이 나왔어. 혼자 세상에 7만원이 나오냐. 그래서 내가 막 지랄했어. 관리자가 전기가 가스가 있고 하니까, 할매가 이정도 내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마치 밖에서 계량기에서 조절을 해야하는데, 맘대로 올리니깐 방구석에 불나게 해놓고 나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사람은 이렇게 해야 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런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계량기를 달아야 한다. 그걸로 많이 불평이 난다. 어쨌든 SH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조절을 했으니깐 할머니도 애끼지말고 맘대로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제는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상관을 안해. 말도 못하고 말하면 싸우기만 하고.

- 고관절 때문에 침대 들여놓은거야.

- 아래 경로당 좋지. 가까운게 좋아. 여 양반들은 경로당 안가. 난 교회를 안다니니까, 바빠 다들. 젤 많아.(나이) 불편한 점은 없어. 잘 안와. 뭣하러 와. 경로당이 큰데.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뭘.

- 소파있고 큰 텔레비가 있어. 틀어 놓고. 더우면 여기서 많이 있어. 추우면 안나와도.

- 여기 사람들도 경로당 가입을 해야해. 한달에 2천원. (점심은 거기서 드세요?) 응. 저녁은 4시40분되면 각자 집에 가. 낮에는 점심먹고 놀다가. 그런데 할매들이 안할라고 그러더라고, 여기도 프로그램 있었는데, 다 싫다해. 나도 안하고 잡어. 노인정에서 월요일 맷돌체조하지 화요일 음악하지 안마쟁이가 와서 안마해주지. 지하실 거기에 의자 잘 놔서 노래 해주지. 많이 해. 4번인가해. 하고 싶지도 않아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할매가 늙어, 교회 댕기는게 멀다고 교회 옆으로 갔어. 여기 올라오는게 힘들어 은근히. 힘들어서 못댕기겄다고 갔어.

- 내 혼자 해먹지. 각자 해먹지. 방에 인텍스 있잖아. 다 방에서 먹지. 그 사람이 반찬 잘해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하면 부담스럽고 그렇잖아. 미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시간에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기

Collection @ uos

싫은 사람도 있고, 낮에 한 숟가락 먹는 사람도 있잖아. 지들이 같이 밥 안 먹는거지. 혹시 어쩔 때 관리자가 싹 다 해서 먹자고 하면, 하겠지. 다 싫어해

- 여기는 담배피는 사람 없어. (할아버지는?) 저기는 담배냄새 많이나. 그래서 난 안가봤어.

- 아무 취미생활이 없어. 나이가 90인데 취미가 뭐가 있겠냐. 죽길 바라는 거지. 머리아프고 밥도 먹기 싫고 하는데, 뭐가 있겠어. 그래서 아무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은 있을 수도 있을텐데 난 없어.

- 전기세 이런거 관리자가 다 알아서해. 다 받아가지고 한 집이 5만원씩 관리자가 받아서 내. 얼만큼 나왔다고 말해. 똑같이 오만원씩 내. 방도 따숩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천장에 에어컨도 있잖아. 방만 있으면 죽으나 사나 방에만 있을 거 아니야. 나오니깐 거실로 나오니깐 좋지. (9만2천원에서 9만4천원)

- 사이는 좋을 수는 없어. 다툴때도 있고,,,(왜요?)묻지 않은 소리하고 막, 사람이 일생을 살다보면, 사연 껴있는 사람이 있잖아.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말도 안하고 그러잖아.

- 더 좋지. 훨씬. 깨끗하고 옆에서 지켜주고, 또 내 방이 있긴 하지만 공동거실이긴 하지만, 나오면 훤하잖아. 2년마다 재계약이여. 나는 죽는 날까지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는 내가 살기 싫으면 나갈지 몰라도 나가란 소리를 안해. 여기서 내가 밥도 못먹고 그러면 요양원을 보내지. 혼자 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 여기가 좋지. 우리동네야 말로 좋지. 동네도 좋고, 다 아는 사람이고, 노인네가.. 내가 20년이 넘었어 이 금방에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지.

-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밀고 댕기는게 있어 그거 가지고 마트가서 사. 절대 관리자한테 안시켜. 밀고 댕기는 걸로 짐을 두고 오면 아무렇지도 않아. (관리자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싫어해. 나는 이것만 하고 할머니 병원데려가고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심부름 시키지 말라해. 그래 봉사자들.

Collection @ uos

그런데 관리자 때문에 안와. 그러니 여기는 노인들이 죽어도 다 아니깐, 관리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없더라도, 문 닫혀있으면 궁금해. 서로가. 그래서 죽은지 산지 알아. 그러니깐 다른데서 살 때는 반찬도 복지에서 가져오고, 요구르트도 주고 다른것도 주고 봉사자들도 와서 다 들여다보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서 다 끊겼어. 관리자가 있다고 보살피는 사람이 있다고 끊어져 버렸어. 좋지. 관리자는 일단 우리가 아프면 병원데리고 가고 여기 청소하고 그것 뿐이여. 뭘 해줘. 시키는 것도 못해.

- 절대 안돼. 아가씨도 같이 살아봐.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러운데 그걸 어떻게 해. 첫 회는 기자들이 날마다 들어왔어, 사진 찍어가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그만 오라고 했어. 말도 못해. 그 사람들은 오는데,, 날마다 오다시피하니깐 세상 귀찮아. 이제는 한 3년이 됐으니 그렇게까지는 안와. 1-2년 됐을 때는 늘 온다고. 구청사람들도 같이 온다고.

(나) 노인 2 - 여자

- 여자 / 82세
- 15년 12월 10일날 왔어요.
- 내가 수급자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홀로니까 그래서 여기 오게됐어요.
- 잘 되어있잖아. 혼자 밥해먹고 화장실도 있고,
- 옛날에 많이 다쳐가지고, 옛날에 계단에 내려가다가 잘못 헛딛어서 넘어졌고, 장애자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있어 가지고, 그사람 밀어주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다쳤어. 나 장애4급이거든,,, 일요일에는 내가 교회를 가야하니까 아침에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 보통 때는 12-1시까지 티비봐요. 내가 예전에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대회도 나가고 해서 최우수상도 타고 대상도 타봤거든. 잔잔한 동네 음악회 나가서 선풍기, 김치냉장고 이런거 다 탄 사람인데 이 모양 됐어. 새 집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 (비상벨) 없어. 있으면 좋지. 나는 병원 다니거든, 여러 가지 병이 있으니

Collection @ uos

까. 난 다리가 아파서 많이 걸으면 아파.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프거든. 근데 수술해도 도와줄 간병인이 하나도 없잖아. 해도 아프고 안해도 아프니까 안했어

- 몰라. 뭐 식탁 밑으로 가라고 했는데, 식탁도 없고 숨을 때도 없고, 밖으로 나가야지.

- 그렇다고 생각해. 열쇠 다 있어.

- 근데는 새 집이라서 하자가 없고 하니까..

- 세탁실이 있거든. 불편하지. 하나가지고 여러 집이 다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누가 하고 있으면 못하거든. 나는 방에다 하고 내가 일하는게 없으니까 집에만 있잖아. 여기다 둬도 잘 말라.

- 내가 익히고 있으면 .. 근데 치매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 혼자 사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개인 베란다) 있으면 좋지. 빨래도 거기다 널고 하면 되는데,

- 불편한 건 없지. 좁지. 난 샤워를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 목욕탕에서. 거기가면 편안하잖아. 다리가 힘이 들어도 내려가서 토요일마다 대중목욕탕 가서 해.

- 자식들은 살기 바빠서, 이름 있는 날이나 와서 보고, 용돈 조금씩 주고 그 뿐이야. 다들 그리 살아

-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나는 밥 해먹기가 싫어. 나는 반찬하는게 힘들어가지고..내가 어디 방 하나 얻어살면, 나라 주민센터에서 돌봄이를 하나 해준단 말야. 여기는 관리자가 있단 말이야. 노인들 하나하나, 근데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어. 인사만 해. 우리 한달에 한번씩 관리비 내거든, 지가 받아가지고 돈 내고, 구청 같은 데에서 전화오면, 그냥 관리 하고 개인 하나하나 관리는 해주는 거 없어.

- 딸은 3일동안 왔었어. 반찬 주고 뭐 와서 확인하고 했지. 자고 간적은 없어. 저 앞방은 자고 가더라.

- 침대 놓을 자리가 없어. 침대 있으면 좋지. 일어나기 편하고. 앉기도 편

Collection @ uos

해. 아무리 봐도 놓을 때가 없어.

- 내가 가입은 해놓고, 회비를 냈는데, 안내놓고 우기는 할머니도 있고 내가 내기는 냈는데, 경로당을 한 번도 안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노인정 할머니들 골머리 아프고 싫고, 처음에는 몇 번 나갔는데, 1년 넘게 안나갔어. 회비는 내가 꼭 냈지. 나중에 내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돈을 내야 떳떳하게 갈 수 있잖아. 불편한 거는 없어. 가끔 운동하는 사람이 와서 운동도 알려주고 노래도 알려주고 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 (공동주방)그거는 별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논건지 모르겠어. 관리자 오면은 거기서 밥도 묵을 수도 있고 간혹 손님이 오면 씻어서 과일 대접하고. 나는 한 번도 안 써봤어. 청소는, 거실 닦는 건 관리자가. 개인은 우리가 하고 거실은 관리자가.

- 작년에는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없어. 작년에는 했었어. 한 번씩 간혹 했었는데. 근데 귀찮아서 잘 안나와. 텃밭은 저 아줌마가 다해. 난 안해. 원래 방 하나씩 통을 줬는데, 난 안 쓰고. 1층에 노래 교실있어. 그런건 없고. 시간도 안 맞아.

- 있어. 한 사람. 그쪽도 노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오고 가고 하는 모양인데. 이 언덕이 올라오는게 힘들다고 자기는 못살겠다고 교회 가까운데서 산다고 나갔어.

- 티비보고 누워있지 - (식사) 없어.

- 응 / 간섭안해.

- 몇 일전에 한번 있었어. 빈 방이 하나있잖아. 관리자가 물건을 뒀나봐. 뒀는데, 우린 그때 아무도 없었어. 이방(302호) 할머니 혼자 있었어. 누가 숭 오고 숭 나가더래. 한번씩 검사한다고 남자들이 들락거릴때가 있어. 관리자가 4층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진 걸 몰랐어. 빈방에 관리자가 화장실을 써, 근데 누가 화장실에 똥을 두고 물을 내리지 않고, 지갑이 열려있었데, 지갑 10만원하고 잔돈 몇 푼을 가져갔데. 몇일전에. 한번 딱 그런 적 있어. 그래서 문을 닫고 살아야하는데 활짝 열어놓고 갔나봐. 응 그런건 없어. 여 할머니들은 아무도 그럴사람 없어.

Collection @ uos

- 없어. 술먹은 사람도 없고, 그거 하나는 좋아.
- 안해. 아무것도 안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요가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별거 다해. 근데 하고 싶어야 하잖아. 근데 하고 싶지가 않아. 다리가 안 아프면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안해. 점심은 꽁짜로 줘. 아니 멀어. 환승 갈아타야 복지관을 가. 그냥 이대로가 좋아.
-없어. 그런것도 없어. 한달에 5만원만 내면 가스비랑 다 나가니까.
- 그런 것도 없고. 다툰적도 없고. 너무 어떤 날은 아무 소리가 안나. 다 그렇게 살아. 나와가지고 놀면 좋은데, 생활이 다 다르잖아. 저 할머니는 경로당가고 저 할머니는 성격이 괴팍하고, 그리고 저 할머니도 별로 그런거 안 좋아해.
- 소파가 있고 티비가 큰게 있어도 아무도 나와서 같이 없어.
- 또 재계약하고, 성격이 고약스러운 사람이 없으면 좋지. 어디는 싸우기도 한다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어서 좋지. 재계약 하고 계속 살아야지.
- 뭐 전에는 너무 불편하게 살아서 지금은 만족하지. 예전 집에 살 때는 폐지를 주웠어. 근데 여기 오면 폐지 주우면 안된데.

(다) 노인 3 - 여자

- 여자 / 78세
- 2년째 지나고 3년째 계약했거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왔으니까
- 시흥4동 2층에 살았는데, 2층이라고.. 4동에는 지하방이 많아. 이런 집을 지었다고 독거노인들을 보내는 거는 지하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거야. 나는 2층에 산다고, 안된다고 하다가 .. 난 목사님 따라 온거거든 여기.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돈 마련해서 나 방 해줬었거든, 근데 그 집이 재개발 들어간다고, 나가라 했는데 내가 갈때가 없었거든. 그런데 어른들이 말하더라고 수급자들 신청하면,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집이 다나가고 없데. 그리고 2층에 산다고 우선

Collection @ uos

이 안된다했어. 그래서 난 갈 때가 없다고, 아무 것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시흥3동까지 왔어. 시흥 3동은 4동보다 부자가 많데. 근데 거기나 여기나 신청은 다똑같데. 구청에서 해주는 거라.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전화가 왔어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그래서 빨리가서 신청했지. 글서 들어왔다.

- 지금은 내한테는 모르겠는데, 어른들한테는 그런게 있으면 좋지. 내가 허리를 다쳐서 시술을 했거든, 근데 아들한테 말하니까 침대를 하나 주더라고, 그때는 침대 없어서 못살았어. 땅바닥에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어. 침대는 바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들한테 침대를 하나 얻었지. 일어나기 쉽고 눕기 쉽잖아.

- 그런건 없어. 저쪽 언니도 넘어져가지고 혼자 앓고 있더라고, 나는 그때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에 발견해서 내가 전화해줬지. 내가 어리니깐 다 관리하지. (비상벨) 근데 어른들을 뭐 그런거 잘 모르잖아. 내가 전화해야지.

- 피난 방법은 어쩔수 없잖아. 텔레비에서 많이 보여주잖아. 대피할 때 머리에 올려가지고 머리 가리고 내려가라고 하잖아. 우리는 텔레비 많이 보니깐 텔레비에서 배우지.

- 방문 잠그고 댕겨. 방문은 왜 잠그냐면, 사람이 내가 첫 번째 왔을 때 1호점 소장이 한번씩 와. 우리보고 하는 말이 내가 대구거든 내가 대구가면 20일씩 있다가 올 때도 있어, 아들도 대구에 있고, 그래서 소장이 하는 말이 어디 갈 적에 열쇠를 갖고 다니라고 하더라고, 왜냐고 물어봤는데. 내 열쇠를 갖고 다녀야지 내꺼를 잃어버리면 괜히 남을 의심하게 된다고 넘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내 소지품을 내가 소중히 생각해야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넘을 의심하지 않을려면 내가 내껄 소중히 해야하더라고.

- 젊은사람이 말벗 해주고 그런거 있으면 좋지.

- 세탁기는 남자들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 기부해줬어 우리한테. 원래는 여기서 준다고 했는데 안주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줬어.

- 방 안 좁아요. 혼자있으면 충분하지 뭐. 이정도면 충분하지. 필요없어. 괜찮아. 여기 베란다에 화분 키우거든, 옥상에는 텃밭도해. 여기 남자들 안

Collection @ uos

해서 내가 다해.

- 안좁아요. 충분해. 혼자살기 충분해. 공용으로 있으면 거북하지. 그런거 청소 일부로 누가 해. 관리자가 청소도 안 하려고해, 우리 청소하려고 온 사람 아니라해. 거실 청소 하는데, 베란다도 청소하라하면, 우리보고 청소하라 하지 말라고 한다. 청소하러 온 사람 아니라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한다.

- 여기서 안 살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지들끼리 알아서 사요. 친구는 없잖아. 내가 대구사람이니까.

- 그게 더 좋지. 불편한 어른들은 불편한거 많잖아. 근데 도움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낫지. 말벗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도와주면 좋지.

- 아들 안온다. 직장에 떨어져서 운전하거든. 그래서 지도 바쁘니까 안온다. 한 번씩 온다. 좁아도 목사님이 침대 앉거나 하면 되지. 뭐 밥 잡수는거 그런건 없어. 여기는 크게 손님오고 그런거 없으니까. 한 번씩 오고 왔다가고 하는 것 밖에 없어. 뭐 개인별로 손님 찾아오고 그런건 많이 없어.

- 경로당 안가요. 우리나이는 경로당가서 앉아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가는데 없으면 몰라도.. 전도할 때 오라고 하면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가기 싫어. 우리한테 불편한 건 없어요. 가는 사람만 회비내고 아닌사람은 안내니까.

- 감독하는 사람이 해요. 관리자가

- 작년에 의자하고 위에 텐트 이런거 해놨는데, 404호가 방에 물이 새가지고 관리 올해 해가지고 방을 고쳐서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까, 거길 막 뜯어놨어. 따로 의자대로 분리해놨어. 근데 옥상에도 올라가서 노는 사람이 드물어. 내는 올라가서 일광욕도 하고 그래. 할아버지는 경로당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저 복지관가서 점심 먹고 해. 낮에는 거의 다 나가. (집 안 프로그램) 근데 그거 작년, 재작년에 해봤거든. 해봤는데 다 모이지도 않고, 다 일있어서 나가고 운동도 좀 하고 했는데, 잘 안모이더라고. 그게 잘 안돼.

Collection @ uos

- 집에 하루종일 있으면 새벽기도 갔다가, 한숨 자고 노인 복지관에 밥먹으러 가고 그래요 수급자들은. 갈 적에는 머니까 타고, 올 적에는 슬슬 걸어가지.
- 같이 식사할 때도 더러 있어. 어제도 전에 소장 한 사람이 왔거든. 내가 텃밭하잖아. 거기 뜯어서 밥해가지고 비벼서 같이 나눠먹었어. 응 같이 먹어. 5호 할머니는 경로당가서 3호 할머니랑 소장이랑 먹었지. (없어요. 303호가 몸이 불편해서 밥을 못 먹거든, 그래서 된장하면 조금씩 갔다주고 그래. 많이 힘든 사람은 도와줘. 저번에는 반찬배달 해줬는데, 여기 되고는 반찬배달이 안 되는 거야. 305호 할머니가 딴데 있을때는 반찬배달 해줬다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반찬배달 안된다 카더라. 그래서 지금 반찬배달 못 받고 있잖아. 뭐 여기서 반찬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반찬배달 준비 안 된다 하더라. 관리자는 (장)이런거까지 가져다 주지 않으려고 해요. 뭐 서로 있으니까 같이 들고 오고 할 때가 있죠. 뭐 무거운거 많이 들고 댕기는 거 없잖아. 김치가 주민센터에서 자주자주 줘요.
- 그런거는 없어.
- 사는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공동생활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자기방도 다 있고, 방에서도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떨때는 운동하러 밖에 나가니까, 뭐 방에서 밥해먹고 티비보고 하니까, 불편한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불만을 갖을 수도 있지만, 난 없어요. 나같은 경우는 고생하고 와서 다 좋아요. / 그거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공동으로 많이쓰나 적게쓰나. 관리비가 한달에 5만원씩 나와. 첫 회는 겨울에 가스비가 너무많이 나와가지고 7만원씩 냈어. 2-3달 냈어. 이제는 관리비 5만원씩 나가.
- 사람이 같이 살다보면 내맘 같은 사람이 없잖아 나이가 많으면 나잇값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가 바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여서 사니까.
- 티비 볼 때도 있고, 자기 방에 다 티비 있으니까, 어쩌다가 나와서 보지. 잘 안나와.
- 혼자사는게 낫지. 요새 가족도 나이가 들면 따로 살려고 하잖아. 넘넘이

Collection @ uos

잖아. 같이 사는건 불편하지.

- 난 안갈거야. 여기가 더 좋아. 여기도 어른들이 올라오기 힘들지만, 아직까지 우리들한테는 다니기 힘드니까. 또 산밑이라 공기도 좋고. 그리고 이래 해주는게 드물다고.

- 시장 보러는 사려고 하면, 나가서 돌아다닐 때 장보고 그래.

- 그런거 있으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여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첫번째 온 사람은 정말 다 해주고 그랬거든 우리 돌봐주고 병원도 가주고 청소도 해주고, 찬도 돌봐주고 했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 처음에는 좋았는데, 바뀌다 보니 사람이 틀리더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맘에 안들고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자나. 자기 건강생각하고 아프다 아프다 하고....

(라) 노인 4 - 남자

- 402호 / 남 / 70세

- 3년

- 구청에서 여기로 이사하라고 했어. 여기는 독거노인들이 살잖아. 와보니까, 외롭지 않다고 해서 왔는데. 여자들은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 남자들은 뜻이 안 맞아서 못 지내. 못살어. 그런 단점이 있어.

- 그런게 필요할 정도는 아니여.

- 관리인 여자가 잘해. 가끔 와서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하고 갑자기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침에 문 두드리고 와서 인사해. 집에서 다친 적은 없어. 내가 지금 다친건 가끔 넘어져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왔어. 다 필요없어. 요즘 119 부르면 되는데 뭘. 구급차 부르면 되잖아.

- 내려가야지 뭐. 원래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사용하는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겄지.

- 그치. (도난) 난 한번은 있지만, 지갑하고 돈이지 뭐. 가끔 그런게 있어.

Collection @ uos

- 다용도실에 여럿이 쓰는데 있어. (순서 정해서 써요?) 아니 뭐 하고 싶을 때하지,
- 몰라. 나는 잠그고 다니는데 다들 안 잠그고 다니데?.
- 좁지. 다 좁아. 혼자 이러고 사는 거지.
- 못쓰는거야. 젊은 사람이랑 사는게 쉽겠니. 그게 성격 나름이지만, 잘 하겠지. 근데 나는 안그럴 것 같아. 혼자 사는게 제일 편해. 저 앞에는 맨날 문열어놔서 내가 (천)이거 해놓은 거잖아. 옷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옷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못 쓰는 거거든,
- 관리인이 해. (거실) 누가 쓴다고
- 경로당은 안가지. 복지관 가서 밥 먹고,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이 와서 말벗) 그런거 있으면 좋지. 집에 누가 있어야 하지 다 나가잖아.
- 살기 싫다고 나갔어. 그런데 물이 세.
- 통해야 하지.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뭘. 따로따로 지내지뭐. 혼자 해먹지 뭐. 뭐 김치 같은거 주고, 쌀 주지.
-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한 대씩 해. 한 갑가지고 4일, 다들 있지. 뭐 올라가서 피든가, (거실)여기서는 못 피지. 창문열고 방에서 피겠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돼.
- 뭐 다 그런거지 뭐.
- 서로 통해야지내지 뭐. 여기 그런 사람 없어. 이야기도 안해. 뭐 상관도 안하지. 뜻이 맞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런데 안해.
- 난 모르겠어. 나는 불편해. 진짜 성격 나름이야. 나이 먹으면 공동생활이든 뭐든 나빼고 다 싫어해.
- 아니 하긴 하지, 근데 남자들은 집에 잘 없으니깐 잘 안 어울린다는 거지.

(마) 노인 5 - 남자

- 403호 / 남 / 70대

Collection @ uos

- 2년 6개월

- 그때는 여기 남의 월세 살 때,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구청에서 뽑아가지고 몇 사람 들어오게 했어요.

- 나이가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지.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건 없는데.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자전거타고 댕기지.

- (반찬배달) 그 전에는 적십자에서 가져다 줬는데 요즘에는 안먹어. 요 밑에 할망구들이 다른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반찬은 챙겨다줘. 뭐 심부름 해다주고 하니깐 먹는게 있으면 갔다줘.

- 혼자하니까 손빨래하지.. 여기다 널지.사용안해. 하나가지고 여러사람이 사용하는데 서로들 약아서 안해 나는.. 만약에 누가 세탁기.. 놓을 자리가 한군데 밖에 없거랑... 남주기 싫은사람이 저기다가 두니깐 다 같이 써야한단말야. 주인놈이 저 사람이 (다른사람)지저분하게 쓴다고 뭐라고 하니깐 세탁기 때문에 싸움들해.

- 안 좁아. 혼자 살기에는... 개인물품이 많은 사람은 불편하다고해. 냉장고도 이런거 ..... 다 같이써, 냉장고에 몇호 몇호 쓰라고 붙여놨어 두칸씩..

- 조금해도.. 혼자쓰기 좋아. 샤워 여기서 하지. (목욕탕) 그건 가끔마다 가지. 여기는 샤워만 해야지. 목욕은 잘 안돼. 뜨거운 물 나와도 불리지를 못하니깐 안하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할망구가 같이 가자고 했지.

- 여기는 공동이라 잠깐 왔다 가고 그래. 손님방? 손님이 잘 수가 없지. 안자지.. 여기서 어떻게 자.

- 안가. 평일날은 복지관가서 프로그램하고 시간보내다 오지. 경로당 사람들이 거기는 동네에서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게 경로당이야. 그래서 우리같은 사람들을 싫어해. 돈내지 않으면 싫어해.. 그거 없는 사람은 싫어해. 복지관가서 밥먹지 반찬도 잘나와.

- (공동주방) 우리는 안써. 할머니들은 써. 청소? 여기 관리소장이 일주일에 한,두번 치워. 애들이 흘린거 치워야 하는데 애들이 안 그래.... 뭘 가져와서 흘렸잖아. 그러면 안 그래. 남자애들은...

- 프로그램? 여기 남자들은 동사무소에서 그런거 와서 내려오라고 하면

Collection @ uos

이것들이 안내려가. 맨날 나 혼자만 내려가는거야. 그래서 여자들이랑만 어울리다보니까 괜히 나도 이상해... 그래서 나도 매년 다니다가... 이제 나도 안내려가려고. 오면은 여자들이 하려고 하는거 하니까 이상하고 그래... 애들은 그런거 어울리지를 안 해. (텃밭) 거기는 내꺼는 다 할머니들 거야.

- 내가 심부름해주니까, 모종심으라고 하면 심어주고 그래.

- 물이새서 나갔어.

- 다 같이 안하고.. 복지관에서 먹고, 저녁에 조금 먹을 것만 해. 어울리지 않아. 여기는 안해. 왜냐면 여기 이사 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전부다 남자들은 술들 먹잖아. 밤새 떠들고 다투고 그래. 서로 잘났다고 싸워. 시끄럽고 서로들 그래. 여기 집이 잘못되서 옆에가 물이 새서 이사가고, 402호 놈이 의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한테 10만원 가져갔다고.... 401호랑 술먹는 사람들이랑 의심하는거야 가져갔다고.. 경찰도 부르고 해서 의가 상해버렸지. 나는 아예 안어울렸지. 왜그러냐면 밤새 떠들고 그러면 난 이야기도 안해. 술먹고 막 돌아댕기고, 밤새 시끄러워. 난 여기서 이야기안해. 난 나가서 지내 . (식사)없지 한번도

- 불만 사항은.. 애들이 전기를 쓰면 에어컨 키잖아. 복도... 자기가 더워서 켰으면. 잘 때는 끌줄도 알고 오래키지 말아야하잖아. 밤에는 선풍기만 틀어도 된단말야. 애들이 밤새도록 트는거야. 여자들은 10만원 나오면 남자들은 30만원 나와. 전기세나 가스비나 ... 애들이 안내지. 구청에서 내잖아.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난리나지.

- 만나면 이야기는 하는데, 애들이 뭘 하나해도... 냄새를 풍기고, 문열고 지내면 냄새가나 그래서 나는 상대를 안해. 할망구들도 심심하니깐 나보고 내려오라고 전화해. 맛있는거 있으면....근데 여기도 다 어울리는 거 아냐... 친한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난 (남자)이런 애들이랑 안맞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말 안 걸어. 내가 혼냈더니 나한테는 이야기도 안해.

- 여기는 싸잖아. 10만원. 다른 곳은 비싸.

- 장은 안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자전거 타고 다니지.

Collection @ uos

- 자전거가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힘드니까, 감자를 산다던가. 수박을 산다던가. 내가 실어다주고하지. 관리자는 병원갈때만 도와주고 안도와주지.

C -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거주자 인터뷰

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A

(가) 노인 1

- 여자 / 82세
- 여기 한지 얼마 안됐거든 3년 됐어. 난 여기 어지간하면 잘 안 오게 되더라고. 겨울에는 여기 3-4명씩 자고, 두명 잘 때도 있고 나는 집에가서 자. 지금은 농사철이 되가지고, 각자가 집에가니까 저녁에 잘 안모이더라고.
- 경로 회의있으면 자주오고 그래요. 친구들이니까 맛있는 음식 해먹고 하지.
- 별로 그런건 없고. 딱 필요한건 렌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딱히. 화장실에 뭐 손잡이 있는건 없어요. 근데 뭐 아직까진....
-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다들 조심해요. 경로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청년도 있으니까, 다치면 오니까 그런데 각자 조심하는 거지.
- 가스 불을 안끄면 밖으로 나가면 되지. 지진이 한번 와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응급)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가 아프면 119 부르면 되니까. (병원이랑 연결된 비상벨 시스템이 있으면 좋으세요?) 우리는 그런거 없어요. 우린 다 전화해야 되요.
- 잘 되어있어요. 여기는 문 하나도 불편이 없고,
- 젊은이들이 뭘 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한 번도 사용 안해요. 각자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하죠. 여기 이불도 다 각자 있거든요. 그리고 집이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씻고 해요.

Collection @ uos

- 예, 그런 건 좀 우리가 불편하지. (보일러 사용법은요?) 예전엔 잘 사용했는데, 고장나서.. 가스 불 잠그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핸드폰 화면 어둡게 나와서.. 밝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거 잘 모르니까요. (젊은 사람이 와서 이런거 해주면 좋을텐데 그쵸?)여기에 젊은사람이 없어여. 그게 하나 애로사항이야. 이거하려면 아는 사람한테 가야되 한참 걸어가야되. 아가씨들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이게 제일 불편해요. 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고장나면 누구한테 말해요.

- 없어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 저기는 남자 화장실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 자식은 다 서울에 있어요. 혼자있어요. 나는 집도 여기랑 멀리 있어요.

- 괜찮죠. 좋죠.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여기서는 손님을 모시고 하진 않아요. 다 동네사람이지.

- 난 밤에 집에서 자요. 내는 여기서 안자니까, 여기는 신경안써요. 보건소에서 와서 뭐 해주는 거 해요. 치매나 침 맞고. 춤추고 이런건 없어요. (배우러하는 그런거 와요?) 여기는 언양 나가야해요. 언양에 복지관있거든요. 할머니들한테 알려줘요.

- 서로 닥치면 해요. 내가 먼저오면 내가하고 딴분이 먼저 오면 먼저해요. 의논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만 해요. 오늘도 그랬어요. 자기가 쓴건 자기가 치워야하는데 그런게 없어요.

- 난 농사 같은 건 안해요. 할 수가 없어요. 경로당 안오면 놀지. 여기서 놀고 언양에서도 놀고. 언양 친구들은 멀어서 못오고, 할매들 모임 있으면 오고, 맛있는거 묵자 하면 오고..... (운동이나 노래 같은거 있으면 자주 올 것같으세요?) 그런거 있으면 자주 오죠.

- 아직까지는 그런 적 없어. 다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예요.

- 밥먹고 놀고 뭐 이야기하고 그렇지뭐..

- 여기서 누가 밥 해먹으면, 다같이 먹고 해요. 돌아가면서 해요. 옛날에는 반찬같은거 사왔는데 이제는 직접 했어요. 옛날에는

- 여기 하나 들어놨으면 하는데,,,, 여기 우리만 사는게 아니고 해서 들여

Collection @ uos

놓으면 경로가 뭐라 한다고.. 그래서 못놓지. 여기는 공동으로 쓰니까,,,

-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공간을 이용하니까 보장이 안되죠. 다 보고 있으니까요. 개인 공간이 있어야지.

- 안해요. 놀고, 풀 뽑고 하죠. 청소하고 그래요.

- 없어요. 뭐 텔레비 고장나면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매들이 잘 못놀러서...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오면 고치고 그래요.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죠.

- 그렇진 않아요.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죠.

- 주로 거실을 많이 이용하죠. 여기가 우리 사용공간이지.

- 서로 성격이 안 맞은 사람은 혼자 있어요. 사람이 다 친하진 않아요. 싸우긴 해도 뭐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 여기 동네니까, 모이는 데이니까 빠져도 안되고 다같이 모여야죠.

- 나는 후자가 좋아요.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 뭐 바라는 거는 건강하고 서로가 잘 지내는 거지 뭐 없어요. 할머니들이 서로 잘 해서, 잘 놀고 해야지. 딴거는 다 잘되어 있어요.

(나) 노인 2

- 여자 / 38년생 81세

- 처음에는 했는데, 수술 후는 안하지. 작년부터는 안해. 3년 됐지.

- 처음에는 경로당이었는데, 군수님이 다 부시고 새로 지었어. 새로 다 해줘서 이거 독거를 해줬지. 자식들이 암만 많아도 혼자 사는 사람이지.

- (손잡이) 그렇지. (침대없이) 누웠다가 일어날 때 그거 잡기도 그렇지. (소파) 여기가 그런게 있으면 좋지.

- 없어. 뭐 그런 것도 없어.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그런거 없어. 고관절 수술은 한 3년되고 무릎수술한건 2년차야.

- 그냥 집 안에만 있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나.

- 있으면 좋지. 근데 시골이 어떻게 병원이 가까운 데가 있어. 누르면 119

Collection @ uos

가 오면 좋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119부르면 오는 순간도 멀고 하니까 그렇지.

- 세탁은 각자 집에서 했어. 세탁기 있어도 안하고 각자 집에 세탁기 있으니까. 아무도 안해. 웬만하면 다 집에서 하지.

- 셋째 딸네 집이 아래에서도 누르고 들어갈 때도 누르고 하던데. 난 손자들 따라다녔지. 내가 어쩌다가 길을 잃어서 104동 갔어야 하는데 잘 못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나와가지고 식겁했잖아. 주차장에서 빙빙 돌고 하고 있었는데, 누가 차타고 들어오길래 아저씨 내가 길을 잘못들어서 그러는데 밖에다가 내려주쇼 해서 나왔지. (그럼 할머니는 아파트보다 이런 집이 더 좋네요?) 응 이런데가 더 좋아. 이런데가 최고 좋아.

- 그 전에는 잤지. 그랬는데, 내가 고관절 수술하고 무릎수술하고 맨땅에서 잠을 못자. 일어나려면 화장실 가려면 한참 걸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잠을 못자. (여기서 주무시고 싶어도요?) 응. 왜냐면, 맨땅에서 자다가 화장실은 자주 가지. 한번 씩 일어나려면 오래 걸리니까. 집에는 침대가 있으니까, (같이 잘 때는 안 불편해요?)불편한건 없어요. 동네 다 아는 사람이라.

- 불편하게 없어. (저쪽은) 남자들 오면 저기 사용하고, 뭐

- 같이 살 수 있나. 아이고 그거 불편하지. 젊은 사람이 어째 할머니들하고 같이 살 수 있나. 우리 불편하겠지. 그리고 한집에서 사는게 보통이 아니겠지. 우리 손주들도 명절 때 왔다가 그냥가지. (같이 사는건 그래서 싫으세요?) 아니 같이 살면 좋은데, 젊은 사람이 촌구석에 와서 살겠나.

- (수술하기 전에는 안 불편하셨어요?) 그때는 수술 안 할 때는 불편한 거 없었지. 그때는 우리 다 이불 가져와서 다 자고, (이제는 안주무시겠어요?) 불편 안하고 혹시 여기와서 잘 사람들은 자고, 나는 불편하니까 못자. 오고가고는 많이 하는데, 내가 가까운데 있으니깐..청소도 하고, 행사 있으면 청소하지. (뭐하세요 낮에?) 일 없으면 여기 와서 놀고 점심 먹고 하지. 볼일보고 밭일 하면, 안오긴 하지만 여기와서 밥 먹고 놀지. (수업은요?) 그런 거 있으면 좋지. 회의도 하고, 점심와서 먹고. 저녁도 해먹을러

Collection @ uos

면 먹고.

- 다 같이하고, 아무라도 닥치면 그때 있는 사람이 하지.

- 암 것도 못해. 다리가 아파서 못해. 다리 아프기 전에는 했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했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조금씩 앉기도 힘들어.

- 나간사람 없어.

- 집에서도 묵고, 여기서도 묵고, 서로. 독거 쌀 두고 먹고 하지. 서울은 반찬 가져다준다던데. (가져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뭐, 내가 해먹으면 되지. 그런 할머니는 너무 늙어가지고 그런거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해먹으면 되지. 45분씩 나가면 시장 있어.

- 별거 없어. 그냥 목욕탕 다니는 게 취미지. 두 시간 목욕하고, (가까운데가 좋겠네요?) 가까운데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수지가 맞겠나.

- 이 집에 불편한 게 뭐 있겠노, 연료비도 다 내주지. 노인들 쌀도 나오는데, 뭐 내 생활에는 하나도 불만이 없지. 뭐 말썽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해버려.

- 싸운 적이 없어. 한 사람이 얄궂긴 한데,, 그 노인이 성질이 안 좋아. 성질이 딴 사람과 틀려.

-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난 안갔어. 내가 아는 언니는 자식한테 갔는데 우울증 왔데. (운동 기구 자전거) - 쓸 수는 있는데, 조정을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조정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 줄 몰라.

- 남자들은 안자. 경로회의 할 때만 남자들이 오지.. 남자들은 안자.

- 그렇지. 다 내주지. (집에 있으면 혼자 다 내는데 여기서 계속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여.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지내겠어. 집이 있어야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다 하겠어. 여기서는 생활이 안돼.

(다 같이 자는 공동식이 좋은지, 거실을 같이 사용하는데 개인 방을 주는 게 좋은지) (개인방) 뭐 이렇게 줄 사람이 있나. 뭐. 그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네. 우리 독거가 7명이거든. 근데 잔다고 하면 다 같이 자고, 근데 농사하고 이러니깐 잘 못 모여. (공과금 적게 내서 다 같이 지낼 수 있

Collection @ uos

잖아요?) 적게 내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내 살림하는게 좋아.

- 내 짐을 어떻게 다 여기다가 가져와서 살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경로인데. 못살지. (1층에 경로당을 두고 2층에 할머니 집은요?) 그러면 좋지.

- 낮은 층이 좋지. 우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움직이여.

(다) 노인 3

- 여자 / 83

- 나는 한 3년. 저 사람들은 더 됐을거여.

- 여기. 여기 이용하게 된 이유는 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아프거나 하면은 그거 하다고 위험하다고, 모여가지고 한데 자면 아프든지 하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 119도 부르면 부르고 의지도 되고 좀.. 아프다고 하면, 지 혼자는 어찌 볼 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한데 모여가지고 있어라, 울주군에서.. 군수님이 만들어가 .. 땅은 동네땅이고, 마을이라. 자라고 지었어. (좋은 것 같으세요?) 좋아. 뜻만 맞으면 좋아. 잘 지내면 좋겠더라고

- (손잡이) 그런거 해놓으면 괜찮은데.. 여기 집에 손대면 말이 많아서 안돼. 왜 안되냐면 마을 회관인데, 우리 7명이 아니고 서른 몇 명이.. 그거아이가. 노인들 거기거든, 우리 독거도 독거지만, 독거말고도 노인정 회원들이 37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거 하면 불편하지. 마을회관이 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회의도 하니깐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럼. 7명 있으면 그런것도 하고 방도 (개인) 하면 좋고. 그런거 할 수가 없어.

- 많이 자. 없어. 그래도 안 미끄러워. 맨날 있는 방이 돼서 안 미끄러워.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한 적 없어.

- 울렁울렁할 때, 집이 흔들렸지. 나는 앉아있었지. 뭔지 몰랐지. 처음이니까, (대피하실 방법 아세요?) 몰라.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 119 불러가지고 병원가야지. 그럴려고 여기 한데 모아둔건데. 뭐 혼자 잘 안 있어. 근데 있으면 좋지.

- 여기서는 세탁을 안 하고 우리 속옷 같은 거는 여기서 씻어가지고 저녁

Collection @ uos

에 ... 세수하면서 널어놓지. 아침에는 빠짝 말라. 세탁기 많이 쓸 일이 없었어. 부엌에, 화장실에, 할아버지는 많이 없어. 안와. 방에다 널고 하지.
- 우리는 열쇠로 한다. 뭐 비밀번호로 하면 까먹고,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도 딴 사람이 까먹는다. 나는 기억을 해도, 딴사람은 열쇠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쇠 가지고 열쇠 보일러실에 담아두고 누구든지 오면 열어 줘야하고. 여기는 공동 집이여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열어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열쇠가 낫지.
- 나는 여기서 잤어. 매일 겨울되면, 여름에는 인제 밭에... 아프기나 말기나 집에 있고, 겨울되면 여기서 다 잤어. 봄 되도 자고 가을에도 자고 나도 그러고 둘이서 자고 셋이서 자고 넷이서 자지. (개인방 필요하세요?) 그게 있나? 개인방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집이 없어. 근데 여기는 없어. 그러면 좋지.
- 여기에? 여기 뭐 불편한 거 없어. 사람이 얼마 안되니까, 여럿이 올 때도 괜찮고. 화장실 때문에 줄서서 있지 않거든. 할배도 얼마 없고, (개인방으로 나눠서 쓴다고 하면 화장실이 개인용이였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대답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기고, 할 수가 없다.
- 네. 가끔 놀러와요. (여기 오신적 있어요?)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들 먹으라고 먹을 것도 사오고 하죠. (명절에 올 때 자식 분들이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나요? 안 좁아요?) 자고가지. 여기 집은 다 크지.
-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 왜 사노.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이요.) 그러면 좋지만, 살 수가 없잖아. 여기는 외지가 되가지고 다 차로 다니는데 할 수가 없어. 젊은 사람이 올 수가없어. 되면 좋지만,
- 미술 같은 거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한테 해당이 안돼. 머리가 늙어서 그게 들어가나.
-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해.
- 나는 텃밭이 없어. 앉아 쉬는거? 괜찮지. 운동 하는거 해달라고 했더니만, 청년들 저쪽에 있거든 저기 가서 하라고 하지 운동기구 해달라고 했는데 (자전거) 해줬지. 다 하긴해.

Collection @ uos

- 자기들이 먹을 때 되면 자기들이 다 해먹어. 재료도 뭐 살 것도 없어. 텃밭에 다 있으니까, (외부에 나가실 때는요?) 나가지. 내 사생활 볼일이 있어서 나가지 목욕탕 일주일에 3-4번씩 가. 많이 가지. 한 시간씩 여 할머니들 목욕 자주가.

- 땅에. (침대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못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 집에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있으면 좋지.

- 없어. 그런거 없어. 여기 다 옷장 있거든. 뺏어 갈 것도 없어.

- 할매가 취미생활이 뭐 있겠노, 밭에가서 일하거나 하지. 안심심해.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게 나.

- 전기세는 우리가 내는게 아니고 군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거 가지고 경로에는 그런게 있어. 우리 돈을 내는게 아니고, 전기세하고 여기에 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게 없어. 왜 그러냐하면, 여기 독거 집 같은 경우 (나눠서 내는 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마을회관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안하거든. 할 수가 없다고.

- 싸운 적은 없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할머니들이 전부 자기들이 주장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없는게 아니고 다 있겠지.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같이 진짜로 있으면 좋겠더라고.

- 뭐 그걸 일일이 말 할 수는 없잖아. 못 지내는 사람도 있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

- 지금 우리들은 이런 데가 좋지. 공기도 좋고, 내멋대로 내 손으로 다 하고, 이런게 좋지.

- 이게 오래된게 아닌데, 설 지나고서부터 다리가 아팠어. 다리가 저려

- 그거는 여기서 물어볼 그게 없네. 여기는 물어볼 상황이 안되잖아. 여기는 아파트도 없고, 여기는 경로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근데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아. 생각도 안 하는거, 뭐 생각 해야되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하고 싶고 그런게 할 일이 없잖아. 나는 여기가 좋다. 내 멋대로 밭에 가서 하고, 낮고, 공기도 좋고 건강하잖아. 한 70넘어가면 오지가 다 좋아.

Collection @ uos

2)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B

(가) 노인 1

- 여 / 80
- 다 똑같아. 3년이지. 다 똑같지.
- 독거노인이라고 와서 있으라고 해서 그런거지 뭐. 내가 오려고 한게 아니잖아. 만들어져서 온거지.
- 다친 사람들은 없어. 여기서 아직은
- 뭐 서로 전화해주고 하지. 그리고 비상약도 잘 되어있어.
- 여기 세탁기 있잖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지 뭐 . 혼자 하기도 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예요?) 아직 몰라 그런거 없어.
- 시골인데 그런게 어딨어.
- 다같이 자지. 근데 다는 못 자. 넓었으면 좋겠어.
- 화장실 좁아 물건 두는 곳이 다 화장실에 둬서 좁아.
- 살면 좋지 심부름 해주고, 밥해주고.. 총무님도 너무 바빠가지고 어렵지.
- 여기 안 오지. 집에만 가지. 집에서 자면 되는데 뭘
- 경로당은 큰 행사 일 때만, 주로 여기서 있지
- 총무님이 많이 하고, 우리는 좀만 하지.
- 수업 같은 거 나는 생각 안 해봤어...지금 앉아서 이야기 하고 하는 거지 뭐.
- 뭘해 그냥 앉아서 떠들거나 자거나 하는거지 뭐.
- 같이 할 때도 있고, 총무님이 와서 해줄때도 있고
- 총무가 장 봐오지.
- 침대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다가 침대 놓을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어. 방이 넓어야 놓지. 좁은데 뭘 할 수 있어.
- 뭐있어.. 그냥 이렇게 지내는게 좋지. (그럼 자기 집은 언제 가세요?)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잘 때도 있긴 하는데, 집에서 자고 싶을때는 자는 거지. 집에 있다가 여기 서 자러 올때도 있고.

Collection @ uos

- 여기는 그런거 없어.
- 노인네가 취미생활이야 뭐
- 방이 컸으면 좋겠지만 일단 첫째 광이 없어서 뭐 놓을 때가 없어. 그게 제일 불편해. 물건 들여놓는 그런거 있으면 좋겠는데
- 싸우긴 왜 싸워..,. 그냥 서로 참고 참고 하는거지 뭐.
- 그런거는 생각 안해봤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좋겠네.
- 나는 아직 그런거 생각 안했지. 뭐 다같이 있는게 좋지. 혼자 있는데 쓰러져봐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여럿이 있어서 공동생활 하라는 거잖아.. 해주지도 않고 해준 적도 없음. 운동기구 하라고 밖에 해줬는데 노인들은 못해

(나) 노인 2

- 여 / 81
- 3년됐나.
- (자식있어요?) 있죠. 다 있어요. 독거들은 여기서 자라고 하니까..
- 좁아서 못해
- 없어요..조심해서 다녀요..
- 우리도 울리긴 했어. 밖에 나가라는데 뭐..
- 서로 전화해주고 하니까 뭐 생각 안해봤는데, 있으면 편하겠지
- 이장님이랑 총무가 잘해줘
- 여기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하지. 세탁실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 우리네가 그런거 제대로 알아서 할 수 있을지... 번호를 못맞추니까.
- 개인방이요? 에이 그냥 다같이 여럿이 자는게 좋죠. 서로가 아파도 도와주고 하니까.
- 좁아요. 여기서 씻고 이런거 하려면 좁아..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 우리집에서 자면되지. 여기는 안와요...

Collection @ uos

- 좋은데.. 시골이라 여기엔.. 없지.
- 경로당 저기 있어. 큰 행사 할때만 가지 뭐 안가. 여기서 놀지 (경로당 사람도 여기서 지내시나요?) 아니 여기는 여기사람만 지내요.
- 총무가 와서 해주고, 우리도 할 때도 있고
- 노인네들이 다리아픈데 텃밭을 어떻게해. 그런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긴 시골이라
- 먹고 자고 떠들지 뭘해요..
- 때에 따라서 하지. 총무가 바쁘면 우리가 하고.. (반찬배달 있나요?) 그런거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는 촌이니까.
- 이장님이나 총무가 장봐서 해줘요. 약도 갔다주고 다 해줘요.
- 침대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 둘 때가 없어요.
- 뭐 감출게 있다고.. (통화나 이런거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개인방이라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도 좋아요.. 시골이라 어디 있겠어요...
- 여긴 니것 내것이 없어.
- 좀 좁긴 해도 괜찮아요 다. / 독거노인에게 나오는 돈으로 써야혀.
같이 지내는게 좋죠..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다섯이 잤다가 넷도 잤다가 번갈어서 (좁지않으세요?) 좁아요 그래서 번갈아서 ... 다같이는 못자. 좁아가지고

(다) 노인 3

- 여 / 83
- 3년차부터인가 그래. 똑같이 들어왔어.
- 노인네들이 혼자 있고 병나니까, 자식 있어도 다 먼데 사니까. 혼자 사는데 병나고 넘어서 죽고 하니깐 이장이 신청해서 여기서 사는 거야. (자식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도 다 먼데서 사니까
- 뭐 벽잡고 돌아다니라고 해주니까 딱히 생각해 본 적없어요.

Collection @ uos

- 여기서 총무가 붙잡고 다니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지. 일어나면은 이렇게 벽잡고 움직이지. 우리는 침대가 없고 방이니까 벽 잡고 하죠.
- 여기는 잘 몰라서 늙은이들밖에 없어서. 지진나면 여긴 촌이라 뭐 덜 걱정이지. 여기서 맨날 불나면은 물 트는거 알려주고 나가는 방법 알려주고 해.
- 우리는 같이 자서 서로 이렇게 자식들 전화번호 다 써 있고 해서 다 전화하면 되요.
- 부녀회장도 많이 도와주고, 이장댁도 많이 도와주고, 다 청년회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와서 도와주지. 자기네들이 시간 있으면 노인네들이 밥해주지.
- 여기 빨래, 세탁기 있잖아. (세탁기 위에 짐이있던데..)좁으니까 세탁기 위에 놓는거지.
- 여기는 열쇠만 해. 있으면 좋지
- 여럿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말하고 운동하고, 서로 도와주잖아. 그러니깐 좋아서 한데서 자지.
- 크면 좋겠는데, 좁아서 나쁘다니까. 뭐 번찰로 하는데 밀리겠어. 안밀리지. 저기에 소쿠리 같은거 놨잖아. 그래서 여기에 광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어. 세탁기도 두고, 소쿠리도 두고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 화장실 좁은데 저기에 둬서... 거실에다도 널고 옆집에다가도 널어. 다 집은 있어요. 날마다 자. 집에서는 더러 자고, 여기서 자야하다고 하더라고, 놀다가 한데서 자야지. 아픈곳도 알고 쓰러져도 안다니까 여기서 자래.
- 우리집 있으니까 거기에 있지. 거기서 자고 가지. 여기는 안와. 우리들이 외로우니깐 한데 같이 사는거지.
- 젊은 사람들이 있나, 신랑들 때문에 못오지. 애기도 있고, 대학생들 있으면 좋지 .그런데 누가 여기 있겠어.
- 회의같은거 하면 저기 경로당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 사람만 쓰는거. 저거는 회관이야. 응 안와. 여기 해놓고 여기 생활하는 사람만 오지.
- 부녀회장도 해주고 우리도 가끔씩 하고 해요.

Collection @ uos

- 정신바가지가 없는데 노인들이 다 잊어버리지. 그런데 그런거 있으면 정신이 났지. 화투라도 쳐야지. 근데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서로 껄끄럽고 하지..
- 아까처럼 감자쪄먹고 놀고 이야기 하고 화투 치고 하지뭐..
- 우리가 해먹지. (청소는) 총무가 많이해요. (반찬배달 있나요?) 우리는 사오지. 총무가 가져오지. 근데 여긴 없어 촌이야.
-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다 장 봐줘. 그래서 돈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주고 해 .
- 침대 있으면 좋긴 하는데 좁은데 어떻게 놔요. 여기는 침대생활도 못해. 넓기만 하면 침대가 났죠.
- 여기서 뭘 훔쳐가. 서로 가져오지. 애들이 가져오면 여기로 다 가져오지.
- 하나도 없어요. 술도 안먹어. 담배도 안해.
- 여기는 불편한거 없어요. 약까지 다 사먹이고 잘해주는데 뭐가 불편해요. / 독거노인에 나오는 돈으로 그걸로 사는 거야. 한달. 카드로 꼭 해야해 그래서 총무가 확인하지
- 이게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늙은이들이라.
- 3,4,5 잘때도 있고 (좁지않으세요?) 좁죠.
- 남자들 별로없어. 안주무셔요. (그럼 저방은 뭐해요?) 이 집이 원래 회관이였는데 이렇게 만들고 저기에 경로당 만들어서 하지 근데 저 방도 쓰긴쓰지. 그래도 저기도 주방 화장실 다 있긴해 (저방에 남자들 주무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남자들도 많으면 그렇게 하면되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마누라 있고 신랑있는 사람은 여기 없자나. 마누라 있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지.

Collection @ uos

3)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C

(가) 노인 1

- 여 / 80
- 5-6년 됐을걸.. 시작한지가 5-6년 됐어.
- 혼자 살으니께.. 있어도 다 나가서 사니까
- 그런거 있으면 좋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 다친거 없어.
- 그런거 있으면 좋지. 버스타고 가고 하지. 버스가 6번 댕겨.
- 말벗같은거 해주면 좋지..
- 노인네들이 잘할까... 그걸로 하면 노인네들이 못하지. 우리는 하더라도 더 노인네들은 못해.
- 좁지. 그래서 4명씩 4명씩 조짜서 자는거야. 일주일에 4명씩 자지.
- 불편하지. 그래도 살아야지. 남자여자 따로 있어. 밖으로 나가야 하니깐 불편하지. 개인으로 있으면 좋지. (방도)
- 목욕탕 가지. 집에서도 하고. 여기는 샤워실 없어. 많이 불편하지만 뭐 어떻게 없으니까..
- 그런거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못와. 가르치는 사람이 요청을 못해. 밭도 있는 사람도 없어 .심심하긴 하지. 그렇지만 다리아프고 허리아프고 하니까 하지 못하지.
- 점심먹고 저녁먹고.. 서로서로 해요.조 짜서 해요. 두명 씩해요. 밥도..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2명씩 일주일씩 해요.
- 침대 있으면 좋지...좁잖아
- 두분이 있는데 나가서 피고 그러지. 피해가는건 없어.
- 뭐있어. 불만사항이 어딨어. 돈이 많이 나오면 모르지.
- 난방비 가스비 이런거 정부에서 나오지.. 우리가 내는건 없어. 경로당 비용이 있지. 여기서 가스 이런거 노인회장이 해주지. 독거노인에서 나오는 돈으로 해.
- 먹고 드러누웠다 하지.

Collection @ uos

-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일있으면 보러가고 아무것도 안하면 여기서하지. 독거노인이라 여기서 자라는거야. 집이 편하지... 여럿이 자는게 더 좋지.
- 부녀회장이 다 해줘. 다 책임져줘. 얼마씩 내는지 모르겠어.
- 공동으로 사는게 좋지. 늙은이들 혼자있어봐. 위험해.
남자들방 여기 여자방 있지. 남자들은 늙어서 잘 안와. 여자들만 많이 모이지

(나) 노인 2

- 여 / 82
- 오래됐지. 5-6년 됐어.
- 독거노인이니까. 다 나갔지 . 여기 없어.
- 좋지. 저기서 넘어졌는데..현관 신발신는데에서.. 거기 턱이 있고, 벽이 있고 잡을때가 없어가지고 못일어났어. 소리질렀는데 여기 방 문을 닫아서 못알아 듣는거야. 다들 방에 있으니까.. 못알아들어. 그래서 한사람이 오줌마려와서 도와줬잖아. 붙잡고 있는게 있어야 일어나지.
- 119불러서 병원가지. 서로 불러주지.
- 뭐 뒤집어 쓰고 도망가라는데..
- 말 벗 같은거 좋지. (반찬배달)있으면 좋지. 가을에 회관에서 담그면, 한통씩 가져와. 우리는 우리가 담궈야해. 겨울에 먹을거....
- 집에 가서 하지. 세탁기는 있어. 저쪽에. 근데 가져다 둘 때가 없어. 좁아서 없어. 화장실도 돌아가서 가야하고... 집이 먼사람은 어렵지 가까운 사람이 좋지
- 좋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와. 좋지.
- 애들 와도 나는 여기서 와서 자지. 애들은 저기서 자라고 하지. 집이 가까우니까 니들끼리 저기서(우리집)에서 자라고 하고 하지. 딸이 한 2명 왔어. 그래서 내가 난 여기서 잘게. 니들 저기서 자. 이랬어.

Collection @ uos

- 가끔 청소하는 사람이오고, 우리네가 하지.
- 여긴 텃밭이 없어. 집만 들어있지. (다른 경로당에는 수업같은게 하는데 있으면 어때요?) 오면 뭐하.. 사람이 몇 안모여. 와서 잤다가 가고, 하지. 그리고 하고싶지도 않고 안해봐서.... 여기 정자 있는데 차라리 거실이 더 좋아. 거기 육각형에 문을 다 해놨는데 거실이 더 좋아. 거긴 남자들이 가지. 우리들이 안가지 거기 뭐하러 가.
- 노인 회장, 총무가 있거든. 그들이 다 관리를 해줘. 글쎄..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얼마씩?) 몰라... 얼마씩 내는지..... 돈 없다고 못사는 사람없어. 독거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니까..
- 뭐 밥먹고 지내는거지. (소일거리 주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 다리 아파서 못해.
- 같이 하지. 2명씩 돌아가면서, 부녀회장도 해주고....
- 여기 가까워요. 요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 돈이 적어서 맘대로 뜨거운 물도 못써. 맘대로 못 틀어. 1년 지정해준 돈으로 하니까... 돈이 적어가지고 어떨 땐 기름도 할아버지 돈으로 해.
- 훔쳐갈게 뭐가있어. 늙은이들밖에 없는데.
- 담배 피워요.. 담배는 내가 집에 있어도, 집도 치워야해. 두집 살림해야 되. 집에 가서도 방에서 안펴. 밖에서 피지.
- 우리는 다 밖에서 하지. 다 떠드니깐,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지 .
- 화장실에 불 켜놓고 문열어 놓고싶은데, 밖에 있으니까 어둡고 화장실에서 불을 키면 벌레들이 다 오고..길에서 넘어질까봐. 밖에 가로등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아직 안된데. (세탁) 집 먼 사람만 불편하지. 그래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만 와.
- 싸운 적은 없어. (경로당분들이랑은?) 안 싸워.
- 내가 감기 걸렸을 때, 하나도 못 먹고 있었는데... 못 먹어서 내가 헛것을 봤어. 같이 지내는게 더 좋지. 혼자 있으면 찬밥도 먹고 그래. 여기서는 다 같이 먹으니깐
- 여기 사는게 좋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타지로 가면 텃세가 커.

Collection @ uos

- 침대가 있으면 좋은디, 좁아서 침대생활을 못해. 이불깔고 자야되.

(다) 노인 3

- 여 / 81
- 잘 모르겠네.. 오래됐지. 5-6년 됐을겨.
- 그냥 자게되서 잔거지.. 혼자있어서 외로우니까
- 없어요.
- 여기서는 안다쳤어. 집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아파. 비상벨이 있으면 좋긴하지.
- 그런거 모르지
- 가끔와서 뭐 해주는게 있으면 좋겠어.
- 집에 가서 하지. 세탁기에다가 하지. 집에서 하는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 그런거는 뭐 별로..여기는 노인네들이라...
- 조짜서 자요.
- 다리 아픈 사람은 화장실에 넘어질까봐 무섭지 뭐. 어둡기도 하고. (개인 방이나 개인화장실 있으면 편하실 것같아요?) 그럼 좋지만, 뭐 그게 내 맘대로 되나.
- 뭐 아무 때나 앉아서 이야기 하는 거지 뭐. 자고 가는건 그렇지 좀
- 다 여기서 지내는 거죠 뭐. 그리고 자는 것도 여기서 하고 . 여기서 다 자고 먹고 하는 거죠.
- 뭐 .. 노인네들이 허리아프고 다리아픈데 뭘 해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놀고 하지 뭐.
- 나눠서 둘씩 청소해요. 그리고 몇일에 한번씩 와서 청소해줘요.
- 여기? 없유. 우리는 밭도 못해요. 힘들어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 못해.
- 여기 새로 짓고 들어온 지 얼마 안돼요.

Collection @ uos

- 그냥 이렇게 놀다가 둘러보는 거지 뭐.

- 2명씩 나눠서 해요. 그다음에 한주되면 다른사람이 하고 그래요. 다같이 해요.

- 침대는 없고, 이불은 많아요.

- 없어요. 뭐 만나면 좋고, 반갑고 하잖아요.

- 뭐 부녀회장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부녀회장이 다 장 봐줘요.

Collection @ uos

ABSTRACT

Post-Occupancy Evaluation of Senior Share House as an Alternative Housing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Female Elderly in 'Senior Share Home' and 'Borine Share House' in Seoul-

Hwang, Sung Min
Dep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Advised by Professor Rieh, Sun Young

In Korea, the family structure is changing due to the sudden Agied Society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The most noticeable change i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especially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which is a socially vulnerable class. In 2017, the proportion of elderly households aged 65 or older reached 24.4% of total elderly households,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households with one elderly household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Single elderly households have more difficulties such as social

Collection @ uos

isolation, loneliness and economic difficulty than ordinary elderly people, and it is revealed that they are exposed to poor housing environment and daily risk due to high housing cost burden. A new type of housing type is needed to compensate for thi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to mainta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n the same atmosphere as the home, to have a form without the burden of the house price, and to have an alternative living such as Shared House where the community life can be enjoye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mmunity life in the elderly, Senior shared homes similar to share houses are being introduced, such as 'Borine Share House', 'Senior Share Home', 'Cloud Gardeners', and 'Single Elderly Living Facilities (rural areas)'. In this way, the interest and demand of shared housing is increasing in Korea, and it will encourage the formation of community by spreading the Senior Share House in the future, and it will become an alternative type of housing for the elderly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shared housing that will become an important type of housing for an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through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POE) of the shared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elderly shared house in the future.

The 'Senior Share House' proposed in this study is a non-blood related relationship, and it is defined as a residential house where one elderly household resides in one house with more than two households,

Collection @ uos

and shares a private space with living room, kitchen.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12 senior share houses that are accessible for investigation, 'Borine Share House', and 'Senior Share Home', and 'Single Elderly Living Facilities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idential experience of residential elderly people, the survey method is based on surveys, in-depth interviews, and post-occupancy evaluation (POE) in the form of field surveys.

The problem that we found is the fact that most of the Senior Share House has progressed indefinitely and sequential movements without prior coordination of personal life style or physical level,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for living together. Conflicts were caused by space use, difficulty in forming a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o on in various spaces such as a sleeping space, a dining space, a laundry space, a bath and toilet space, and a community space. Based on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desired type of residence by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on the personal tendency and life history of residents before moving 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preliminary investigation such as the tendency and the way of living of the residents before moving in. Basically, liv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and two toilets should be provided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living together. Second, post-occupancy

Collection @ uos

evaluation (POE) results,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common need to improve the space of safety, flexibility, amenity, and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plan for the safety of the residents in the reside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space suitable for the lifesty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son, and sufficient space for all residents to use together in the common space such as the living room, the kitchen and the laundry room. And for community activity among residents, there should be programs and rules to guide communities in shared housing.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munities among residents in senior share house, to suggest directions of essential community facilities, and to encourage natural community activation. In particular, it proposes a planning direction of physical sp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ommunity, Common Cooking, Common Wash, Common Bath. The quality of community liv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by establishing essential community facilities, we encourage natural community revitalization, build trust among residents. Fourth, residents in senior share house need to meet various generations more than the same generation, so it is necessary to plan a multi-purpose space that can accommodate various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community activation by establishing a multipurpose space for small-scale gatherings instead of senior ho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occupancy and use of space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plan of the

Collection @ uos

senior share house, after analyzing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for planning the senior share house, establishing the necessary space for the resident 's real life beyond the existing theoretical data, and encouraging community activation.

Keyword : Single elderly household, Housing for female senior, Senior Share House, POE, Supportive housing

Collection @ uos